

# 雪峰文化

1994 · 봄  
제 11 호



□ 특 집 □

利川陶藝村 현황과 問題點

□ 특별기고 □

雪峰文化祭를 活性化하자

□ 문화유적 발굴 □

利川郡 新屯面一帶의 支石墓

利川文化院



# 파써블 정수기 이천지사



“뛰어난 품질만큼 확실한 A/S를 책임집니다”

### 1. 역삼투압 냉온수기

R/O 정수 System이 내장되어 완벽하게 정수됨.

### 2. 자외선 살균장치

정수된 물에 외부로부터 새롭게 침투할 수 있는 세균 및 발암물질 100% 제거

### 3. 보온·보냉장치

보온(90°C 이상), 보냉(4°C 이하) 능력이 뛰어난 절전효과가 커서 경제적이다.

### 4. 전자동 조절장치

전 System이 S/V 및 Sensor 작동으로 연속적인 정수 및 통제로 전 자동화 되었음.



## 취급 품 목

- 가정용
- 산업용
- 업소용
- 공업용

TEL(0336) 637-0206  
637-0207  
637-0208  
FAX(0336) 637-0209

## 『파써블 정수기』로 정수한 물은 이렇게 좋습니다.

- 과일, 채소등의 농약성분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 밥을 지으면 하얗고 오래 보관하여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 숙취해독에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 얼음을 얼리면 수정같이 맑은 얼음이 됩니다.
- 커피, 홍차등 차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 보일러, 온수히터등의 수명이 2배로 연장됩니다.
- 어느 물보다 인체에 흡수가 빠릅니다.
- 물을 끓이는데 필요한 열을 22~30% 절약합니다.
- 설거지시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피부가 거칠어 지지 않습니다.
- 물통에 물을 보관해도 물때가 전혀 끼지 않습니다.
- 락테일을 할 경우 부드럽고 상쾌한 맛을 즐길수 있습니다.
- 혈액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고혈압, 동맥경화증 예방에 좋습니다.
- 가습기에 사용하면 찌꺼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 요리할 때 단백질, 녹말, 비타민, 칼슘등의 영양분을 파괴시키지 않으며 음식 고유의 맛을 더욱 더 살려줍니다.
- 어린이 발열 치료에도 효과가 큼니다.
- 아기의 목욕물로 사용하면 락티도 안나고 피부병도 예방됩니다.
- 생화가 오래가고 뿌리의 약취가 방지됩니다.
- 세안수로 사용하면 피부가 당기지 않으며 화장이 잘 받습니다.
- 결석증 담석증에 좋습니다.
- 세포속에 노폐물을 제거하며 노화를 예방하고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 콤팩트렌즈 세척수로 이용하면 박테리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약을 달일때 약초 속의 성분을 빠른시간에 용해시킴으로 약효가 높아집니다.
- 아기의 우유물로 사용시 잘 녹고 어린이 음료수로 사용하면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서울연락처(현대백화점)

- 압구정점 (02)516-7114 본점지하 2층 통신판매소름
- 무역센터점 (02)552-2233, 직통 553-7777 7층 통신판매소름

자택 635-3549/2984

지사장 김형상

내고장 文化財 ①

## 설봉산 映月庵



映月庵은 신라 文武王때 義湘 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우리고장에서 가장 유서 깊은 古刹로 손꼽힌다. 경내에는 보물 제822호인 마애보살입상을 비롯하여 석조광배와 연화좌대, 삼층석탑등의 유물이 있고 수령 600여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좌대 ▶



영월암 주변은 관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우거진 숲으로 둘러싸여 경관이 아름답고 이천읍 전경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이 일품이기도 하다.

▼ 영월암마애보살입상(보물822호)



사진으로 보는  
**열린음악회**

[사진제공 - 무지개 사진관]



▲ 이천군청 합창단의 합창

◀ 테너 엄정행교수의 독창

▼ 7군단 군악대의 연주모습



경기도립 무용단 순회공연

# 한국춤전



- ◀ 정재만단장의 허튼살풀이 춤
- ▼ 화관무



부채춤 ▶



◀ 풍물놀이



▶ 함토출신 단원(징)이 연주한  
흥겨운 사물놀이

◀ 북소리 사위



1994 • 봄

제 11 호

雪峰文化

□ 원색화보 □ 내고장 文化財① / 열린음악회 / 한국춤전

□ 雪峰文化칼럼 □

욕심이 부른 悖倫 ..... 신배섭 • 10

□ 특집 □

利川陶藝村 현황과 問題點

— 利川陶藝村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編輯室 • 11

□ 특별기고 □

雪峰문화祭를 活性化하자 ..... 金洪雲 • 27

□ 향토사자료 □

文平公 金吉通墓表 ..... 編輯室 • 29

□ 풍물스케치 □

술관 / 모노로그 ..... 박호창 • 31

□ 옛이야기 발굴 □

이인(異人) • 기인(奇人)들의 일화<上> ..... 朴光植 • 34

□ 文化遺蹟발굴 □

利川郡 新屯面一帶의 支石墓

..... 海剛陶磁美術館 • 45

□ 일본여행기 □

箱根 • 東京 • 日光을 보고 ..... 韓勝男 • 51



- 표지화 □ 박호창 - 고담리의 봄풍경  
 (1994년작 오일캔버스 45×37cm) □ 제자 □ 유달영



□ 우리고장의 歷史紀行 ⑥ □

暮加面 · 大月面편 ..... 李仁洙 · 61

□ 설봉문단 □

■ 특집 I ■ 향토문예교실수료자 글모음 ..... 72

■ 특집 II ■ 경규희 時調詩모음 ..... 경규희 · 85

<특별기고> 편지문화 ..... 김일제 · 91

□ 설봉문화게시판 □

○ 봄맞이 열린 음악회 ..... 94

○ 한국춤전 ..... 96

○ 경기도립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 이향주 · 98

○ 4차원적 심상의 세계 <金基日展> ..... 100

<문화단신> ..... 102

<신간안내> ..... 112

<문화원소식> ..... 114

□ 문화원 임원 · 회원명단 □ ..... 117

□ 편집후기 □ ..... 120

# 욕심이 부른 悖倫

신 배 섭  
(편집위원 · 시인)

최근 여기저기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패륜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यो, '이제 울 것이 왔구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물음은 물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염두에 두고 한 물음일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예전부터 계속 있어 온 교육의 문제이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중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드물다. 고작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듯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되풀이 되었던 '人性教育'이니 '倫理教育'이니 하는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만 재론해 왔을 뿐이다.

한편,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확산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또한 그때마다 매번 교육 정책을 원망하는 소리가 곳곳에 드높았다. 마치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 교육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것 처럼 말이다. 물론 학교 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의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치달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교육자의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일관된 교육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나쳐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물론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모름지기 교육이란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의 문제는 가정에서의 진실된 교육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되뇌일 수 밖에 없다.

요사이에 이르러 자기 자녀의 능력과 적성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일류 대학, 일류 학과에 보내려는 부모의 사고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심지어는 대학에 갈 능력이 여의치 않으면 자식을 해외에 유학시키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오로지 남에게 자기 자식을 해외에 유학 보냈다고 자랑하려는 부모의 욕심일 뿐이며 자기 과시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하고 사려 깊지 못한 부모의 행동이 결국은 어떠한 상황을 불러 일으켰는가? 자식에게 비싼 돈을 들여 유학을 보내면 무엇하겠는가?

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곧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마침내 우리 사회에 패륜이라는 병폐를 낳게 된 것이다. 유학할 실력은 조금도 없으면서 유학이랍시고 고작 여학연수원에 다니면서 공부 커닝 노름만 일삼다가 노름빚에 쪼들려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한 그 패륜아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일부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 그리고 범죄,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의식을 타하기에 앞서 과연 청소년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둔 사회는 책임이 없는가 반문하고 싶다.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마음껏 기상을 펼칠 문화적 공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네의 실정이다. 사회가 오히려 그들을 비행과 탈선의 현장으로 내몰지는 않았는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또한 책임이 없는 것일까? 부모로부터의 과잉 보호나 과잉 기대로 혹은 무관심으로 자녀를 잘못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때이다. 자녀에 대한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만 늘 강조한 것은 혹 아닐지 .....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 이점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삼자(학교 - 가정 -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교육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식들은 자신의 비행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타이름을 잔소리나 간섭 쫄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항상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부모에게는 필요하다. 이는 그 어떤 교육보다도 가정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패륜아'라는 더 이상의 낙인이 찍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라도 자녀와 대화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리하여 밝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열어 갑시다.

# 利川陶藝村, 현황과 問題点

— 利川陶藝村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 조사의 목적과 방법
- 일반현황
- 판매 방식과 경기동향
- 도자기원료 수급에 대하여
-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 직업에 대한 만족도
- 앞으로의 전망
- 도자기 축제에 대한 의견
- 당면 문제점과 존경하는 도예인
- 맺는 말



□ 설문내용 □

이천도예촌 현황조사에 따른

**설문서**

1. 귀하의 도예경력은 몇년입니까?  
 (1) 5년미만      (2) 6~10년      (3) 11~20년      (4) 21년이상
  2. 요장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1) 60~70년      (2) 71~80년      (3) 81~90년      (4) 91년이후
  3. 주요 생산품목은?(두 항목 이상 표시가능)  
 A (1) 청자      (2) 백자      (3) 분청      (4) 기타(      )  
 B (1) 관상용자기      (2) 생활자기      (3) 기타(      )
  4. 판매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 직매      (2) 수출      (3) 주문생산      (4)중간상인      (5) 기타(      )
  5. 판매방식은 무엇입니까?  
 (1) 본인이 직접하고 있다      (2) 별도 판매부서를 두고 있다
  6. 최근 국내시장의 매출추이는?  
 (1) 증가      (2) 약간증가      (3) 변동없음      (4) 감소      (5) 크게감소
  7. 해외시장에 대한 매출추이는?  
 (1) 증가      (2) 약간증가      (3) 변동없음      (4) 감소      (5) 크게감소
  8. 전반적인 도자기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 양호하다      (2) 그저 그렇다      (3) 불황      (4) 극히 불황
  9. 주원료에 대한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1) 자체조달      (2) 구입사용      (3) 겸용
  10. 구입원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 바랍니다.
- 
11. 전통공예품 생산에 따른 관계기관의 지원이나 혜택은 어느정도인가?  
 (1) 적절하다      (2) 그저 그렇다      (3) 미흡하다      (4) 매우 미흡하다
  12.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는?  
 (1) 적절한 편      (2) 그저 그렇다      (3) 미흡하다      (4) 매우 미흡하다
  13.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는?  
 (1) 적절한 편      (2) 그저 그렇다      (3) 미흡하다      (4) 매우 미흡하다
  14.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

15. 귀 요장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노력은 어느정도인가?  
 (1) 적극추진 (2) 미흡하지만 추진 (3) 앞으로 추진할 예정 (4) 관심없음
16. 현재 직업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정도인가?  
 (1) 매우 만족 (2) 그런대로 보람을 느낌 (3) 그저 그렇다  
 (4) 불만이지만 계속하겠다 (5) 기회가 있으면 직업을 바꾸겠다.
17. 자녀들에게 가업을 계승케할 용의는?  
 (1) 꼭 시키겠다 (2) 본인이 원한다면 (3) 시키지 않겠다
18. 도자기 산업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1) 낙관적이다 (2) 그저 그럴것이다 (3) 비관적이다
19. 도자기 산업에 있어 앞으로 중점개발해야할 분야는?  
 (1) 도예작품 (2) 관광민예품 (3) 생활자기 (4) 기타( )
20. 도자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 
21. 도자기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1) 전문대학 (2) 요업시험소 (3) 종합전시관 (4) 공동전시판매장  
 (5) 기타( )
22. 이천도예촌이 관광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1) 크게 도움이 됨 (2) 비교적 도움이 됨 (3) 그저 그렇다 (4) 도움이 안됨
23. 도자기 협동조합의 구성을 어떻게 보는지?  
 (1) 꼭 필요하다 (2) 있으면 좋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치않다
24. 이천도자기 축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꼭 필요하다 (2) 있는것이 좋다 (3) 그저 그렇다 (4) 필요치않다
25. 도자기 축제 참가여부에 대하여  
 (1) 계속참가 (2) 금년부터 참가 (3) 때가 되면 참가하겠다  
 (4) 불참하겠다
26. 도자기 축제 행사내용중 중점을 뒤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1) 도자기 할인시장 (2) 도예작품전 (3) 도자기 미인대회 (4) 기타( )
27. 이천도자기 축제중 개선해야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 
28. 현재 요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29. 존경하는 도예인은 누구인가? (두명 이상도 가함)
- 
30. 기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글머리에

서울에서 경충산업도로를 타고 광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넓고개 마루에 올라서면 ‘쌀도자기 온천의 고장’이란 큼직한 팻말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고개를 내려와 마을이 시작되는 곳부터, 도로 양편으로 늘어선 도자기 상점들과 요란한 요장 안내판들이 도예촌에 들어섰음을 실감하게 한다.

우리고장의 자랑거리인 특산물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서슴치않고 쌀과 도자기를 손꼽는다. 이천쌀은 옛날부터 임금에게 진상미로 올린 자채쌀을 비롯하여 품질좋은 쌀의 고장으로 소문이 났지만, 도자기가 우리고장의 특산물로 명성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 남짓한 근래의 일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한적한 시골이었던 신둔면 수광리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전통도자기 공방들이, 60년대 후반에 와서 한 일국교 정상화와 함께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갑자기 관광민예품으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새로 문을 여는 공방들이 점차 늘어갔고,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 수요가

불어나서 수광리와 인접한 이천읍 사음리 일대를 중심으로한 도자기마을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천도자기는 일인들이 처음 그 성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여 주요고객으로 등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70년대 이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와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근래에 와서 여러 해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예업계는 전반적인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공방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도자기 상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장의 수요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자기는 쌀과 더불어 우리고장의 양대 특산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제일의 도자기 산지임을 자랑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업체의 숫자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이웃 여주군에 더 많은 도예 공방들이 있고, 인접지역인 광주군에도 적잖은 수요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통도자기 하면 쉽게 이천을 연상하게 되고 이천도자기를 손꼽는 것은, 30년 남짓한 짧은 기간동안 이천도자기의 인식이 그만큼 널리 알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분야는 문화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쳐도, 도자기 축제와 같은 행사추진이나 지역문화의 발전 구상을 위해서 이천도예촌의 현황파악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문화원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이천도예촌 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보편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고장의 문화를 이야기하려면 도자기문화를 빼어놓을 수가 없고, 지역문화 가운데 도자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이천문화원이 설봉문화제를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색을 살리기 위한 중심행사로 도자기축제를 내세웠던 이유도 이와같은 맥락에서였다.

도자기산업이 지역경제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는 탓에 알 수가 없다. 다만 신문면 전체와 이천읍 사음리의 경우 주민들중 절대 다수가 도자기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써, 고용효과와 생산활동의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한 적지않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할 뿐이다. 관광사업 쪽에는 특히 온천을 제외하면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고장의 경우 도자기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처럼 도자기산업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및 지역문화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장전체의 수효나 소재지 파악, 종사자현황 같은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아는한 관련기관은 물론 어디에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실태파악조차도 시도한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예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기관의 미흡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지원노력은 고사하고 거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통해 증명이 되는 셈이다.

## 2. 조사의 목적과 방법

일년이면 수십차례씩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원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해 도예촌에 관한 궁금한 일들을 묻는다. 신문 방송잡지기자 등 언론기관은 물론, 요즘은 범람하기 시작한 각종 사보나 회지를 만드는 사람들과 대학기관이나 연구소, 그리고 주로 일인들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도 있다. 도예촌형성에 대한 지정학적 고찰이나 경제구조같은 내용을 연구과제로 삼아 논문을 쓰겠다는 대학생들도 심심치않게 찾아오고 있다. 이들이 대부분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은 도예촌이 이루어지게된 역사적인 배경과 각종 기본현황들로 집약된다.

그런데 이미 지적했듯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탓에, 대충 우리가 알고있는 내용들을 상대에게 말로 설명을 해주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적잖은 시간을 할애해야하고 상대방 또한 미흡하기 마련인 것이다. 도자기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도 해를 거듭하면서 기본통계를 바탕으로 현실성있는 발전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이므로 처음 시작부터가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분야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쳐도 도자기축제와 같은 행사추진이나 지역문화의 발전구상을 위해, 이천도예촌의 현황파악이 이처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이천문화원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이천도에촌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문화원 종사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조사카드의 각 항목별로 문답한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이 원고에서 다루려는 설문조사는 이천도에촌 현황조사와는 별도로 판매구조와 원료의 수급, 경기의 동향, 관계기관의 지원에 따른 요장주들의 의견, 도자기축제에 대한 의견 등 전반적인 도예종사자들의 집약된 의견과 요구를 알아보기위한 목적으로 현황조사와 아울러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내 도예업체 141개소 중 12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으며, 모두 30개 항목에 걸친 설문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 일반현황

설문조사의 첫 항목은 <귀하의 도예경력은 몇년입니까?>하는 질문이었다.

126명의 응답자 중

- |            |            |
|------------|------------|
| (1) 5년미만   | 8명(6.3%)   |
| (2) 6~10년  | 20명(15.9%) |
| (3) 11~20년 | 47명(37.3%) |
| (4) 21년이상  | 51명(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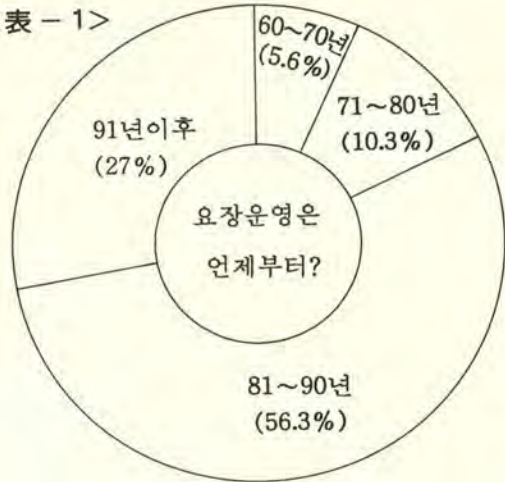
로 나타나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 <요장운영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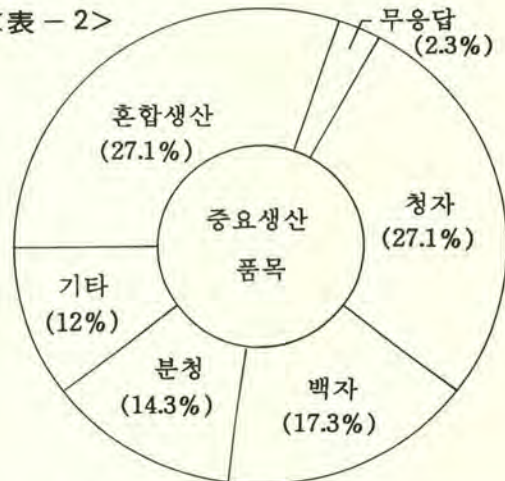
- |            |            |
|------------|------------|
| (1) 60~70년 | 7명(5.6%)   |
| (2) 71~80년 | 13명(10.3%) |
| (3) 81~90년 | 71명(56.3%) |
| (4) 91년이후  | 34명(27%)   |
| (5) 무응답    | 1명         |

<表-1>으로 81년 이후 문을 연 곳이 83%나 되었다. 이는 70년대의 호황기에는 20개 남짓한 요장뿐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도예촌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준다.

<表-1>



<表-2>



세번째 주요생산품목에 관한 설문조사는 두 갈래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종류별로 보면 청자전문생산업체가 36개소(27%), 백자전문이 23개소(17.3%), 분청사기전문이 19개소(14.3%)이며, 두가지를 겸했거나 세가지 모두 생산하는 업체가 36개소(27%)였다. 다음 용도별로는 관상용사기가 25개소(19.2%), 생활자기가 42개소(32.3%), 관상용과 생활자기 겸용생산이 20개소(15.4%), 기타 4개소(3%)로 나타나 생활자기 생산업체 수요가 월등하게 나타났는데, 이 항목에는 무응답이 39개소(30%)나 되어 정확한 자료분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도자기의 국내시장 보급이 조금씩 증가해 가면서 생활자기 생산이 늘어가



는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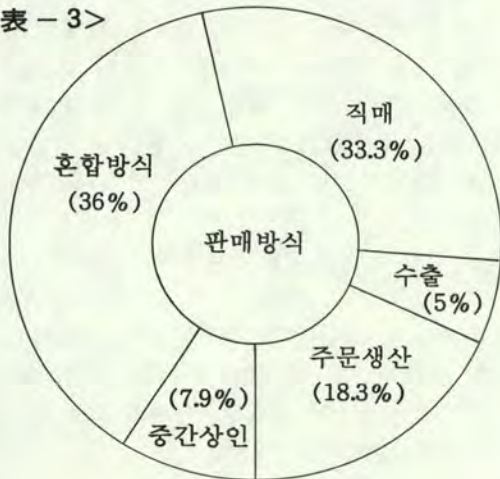
이 설문조사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참고로 현황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현황중 먼저 매출액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조사를 통해 파악된 141개 요장중 연간 2,000만원 이하가 37개소, 2,000만원~5,000만원이 33개소, 5,000만원~1억이 16개소, 1억원 이상의 매출업소가 27개소, 무응답 27개소였다.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70개소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종사원 통계를 보면 1~5명이 102개소, 6~10명이 21개소, 11~20명이 10개소, 20명 이상이 5개소로 고용인 5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삼분의 이가 넘는다. 이것은 업체들이 매출액의 공개를 꺼리거나 가급적이면 낮춰잡고있고, 전통도자기 제작과정이 거의 모든 공정을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 수공업형태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자기산업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4. 판매방식과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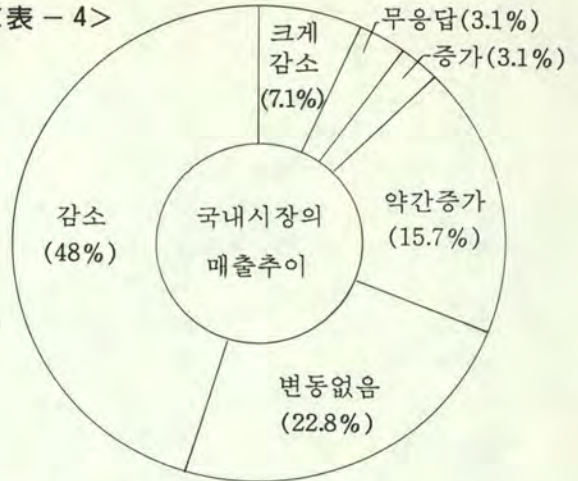
다음 <판매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 3>

- (1) 직매 42개소(33.3%)
- (2) 수출 5개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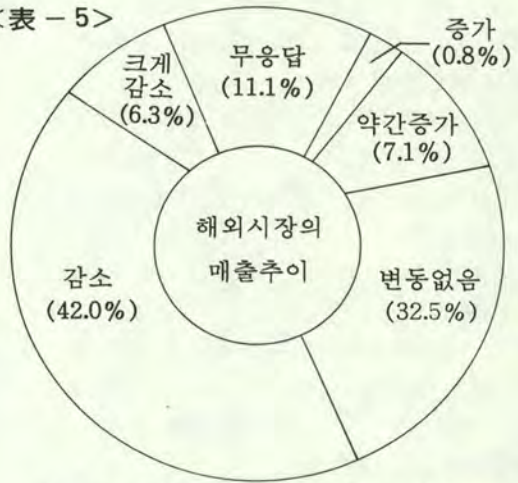
<表 - 3>



<表 - 4>



<表 - 5>



- (3) 주문생산 23개소(18.3%)
- (4) 중간상인 10개소(7.9%)
- (5) 기타(혼합방식) 45개소(36%)

<판매방식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은,

- (1) 본인이 직접한다 114명(90.5%)
- (2) 별도 판매부서를 두고있다. 12명(9.5%)으로 주문, 생산, 판매를 모두 혼자서 도맡아 하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예업의 영세성과 직결되고 있다.

최근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도예업계의 불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관상용품은 물론 생활도자기까지도 아직은 생활의 여유가 있을때 찾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도자기 매출은 경기동향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10여개 업소가 문을 닫고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것으로 들어났는데, 요즘은 도자기 경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먼저 <최근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추이>에 대한 반응은, <表 - 4>

(1) 증가	4개소(3.1%)
(2) 약간증가	20개소(15.7%)
(3) 변동없음	29개소(22.8%)
(4) 감소	61개소(48%)
(5) 크게 감소	9개소(7.1%)
(6) 무응답	4개소(3.1%)

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70개 업체가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해외시장에 대한 매출추이>는

(1) 증가	1개소(0.8%)
(2) 약간증가	9개소(7.1%)
(3) 변동없음	41개소(32.5%)
(4) 감소	53개소(42%)
(5) 크게감소	8개소(6.3%)
(6) 무응답	14개소(11.1%)

로 나타나 대부분이 감소되었거나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表 - 5>

<전반적인 도자기경기를 어떻게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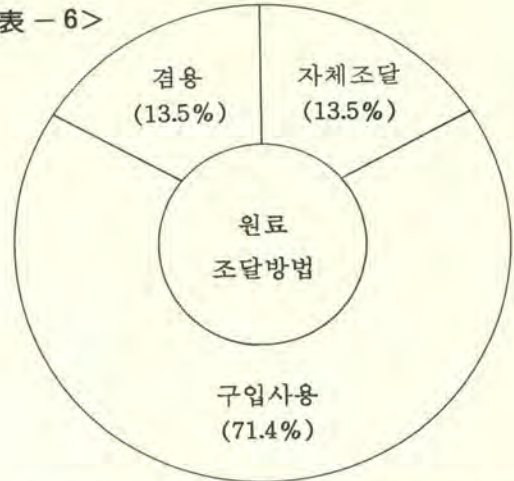
(1) 양호하다	5명(4%)
(2) 그저 그렇다	24명(19%)
(3) 불황	79명(62.7%)
(4) 극히불황	16명(12.7%)

이어서 불황 내지는 극히 불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역시 삼분의 이가 넘었다.

## 5. 도자기 원료 수급에 대하여

다음은 도자기의 원료 수급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특히 청자나 백자는 태토나 유약이 모두 티 한 점없이 고른 발색이 이루어져야 최상으로 되기 때문에 원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表 - 6>



는 거의 모든 도예공방들이 태토에서 유약이나 안료에 이르는 원료들을 자체 해결하는 자급자족 형태였고, 각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원료의 배합이 중요한 비법으로 인식되었다. 근래에 와서 생활도자기를 다량제작하는 요장들이 늘어나면서 도자기원료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원료생산업체들이 생기고 구입원료를 사용하는 요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주원료에 대한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알아보았다. <表 - 6>

(1) 자체조달	17개소(13.5%)
(2) 구입사용	90개소(71.4%)
(3) 겸용	17개소(13.5%)

로 삼분의 이 이상이 구입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입원료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자체조달 17개소를 제외한 응답내용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무응답이 48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그밖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들은,

- (1) 원료의 성분·함량이 일정치 않다. 27개소 (품질불량, 정량미달, 원하는것과 다르다)
- (2)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함 10개소 (원료생산업체의 영세성, 업체의 횡포, 다양한 원료개발이 필요함)

(3) 비싸다 9개소

위의 응답내용에서 보듯 구입원료에 대한 문제는 원료의 품질불량과 정량미달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어났고, 이는 품질불량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을때 보상대책이 없음을 지적한 2명의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더 늘어난다. 다음으로 원료수급이 제대로 안되는 점과 비싸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그밖에 원료에 대한 정보가 없음(3명), 협회나 조합을 통한 구입창구의 일원화(2명), 생활자기에는 별문제 없음(5명), 전보다 양호(1명), 애로사항이 많음(1명), 세금공제가 안된다(1명) 같은 소수의견도 있었다.

### 6.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도자기 산업에 대한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전통공예품 생산에 따른 관계기관의 지원이나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表 - 7>

- (1) 적절하다 2명(1.6%)
- (2) 그저 그렇다 16명(12.7%)
- (3) 미흡하다 35명(27.8%)
- (4) 매우 미흡하다 70명(55.6%)
- (5) 무응답 3명(2.4%)

으로 전체 응답자의 83%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 <관광산업육성의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한 의견은,

- (1) 적절한 편 3명(2.4%)
- (2) 그저 그렇다 15명(11.9%)
- (3) 미흡하다 47명(37.3%)
- (4) 매우 미흡하다 59명(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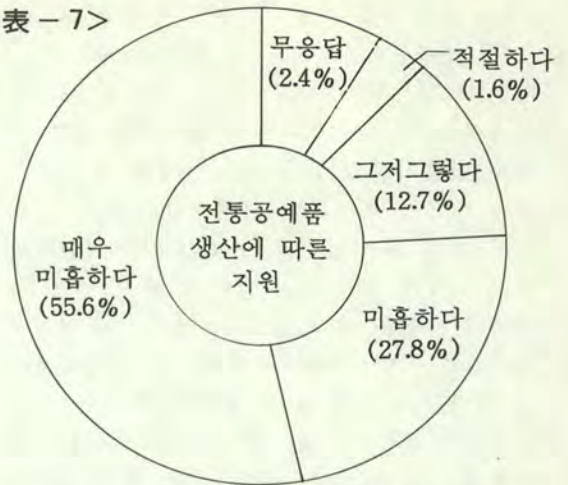
여서 전항목과 비슷한 수준인 84%가 미흡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 8>

이어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한 응답내용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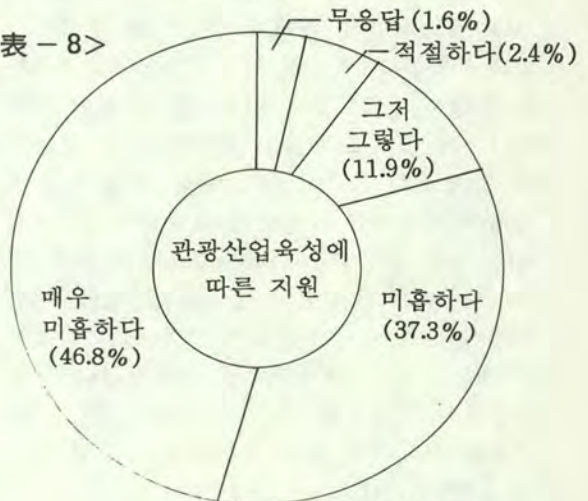
<表 - 9>

- (1) 적절한 편 4명(3.1%)
- (2) 그저 그렇다 14명(11.1%)
- (3) 미흡하다 50명(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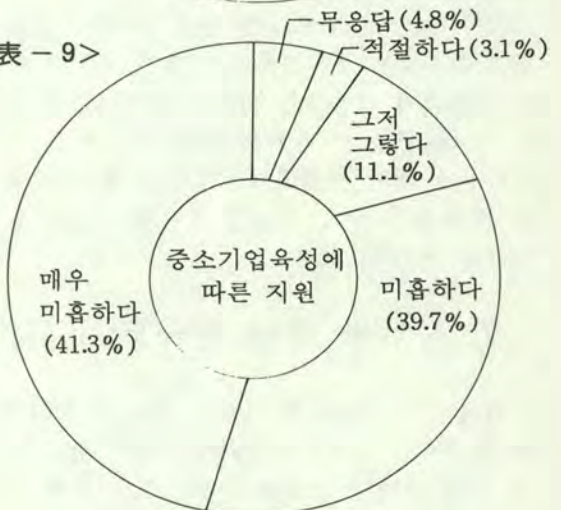
<表 - 7>



<表 - 8>



<表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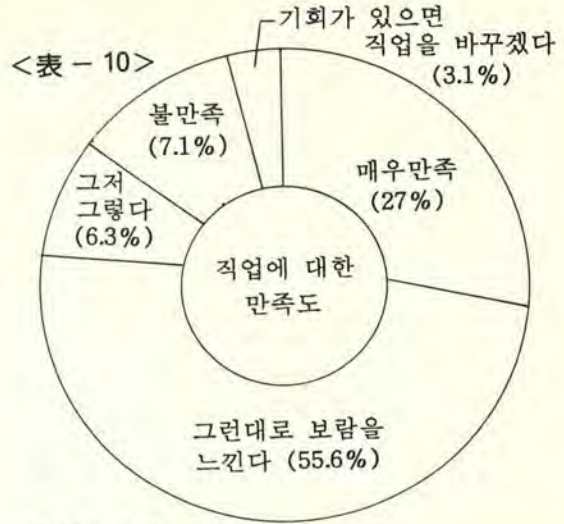
- (4) 매우 미흡하다 52명(41.3%)
- (5) 무응답 6명(4.8%)

으로 역시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81%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처럼 미흡하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절반이 훨씬 넘는 77명이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해보아야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불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우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금·세제·행정지원의 제도화요망, 전통문화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식부족, 지원이 형식적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안된다 등을 포함하여 23개소로 월등하였다. 다음 지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 실사를 통한 공정성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 영세업체 우선 지원요망 등 지원방법에 대한 지적이 11개소, 공장설립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함으로 규제완화를 요망하거나 무허가공장의 양성화를 바라는 요구가 7개소, 대규모의 도예센터 또는 종합전시장 건립 희망이 3개소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수의견으로는 올림픽때만 지원해주고 그후로는 무신경하다, 사업장 규모가 아닌 도자기의 작품성을 위주로 지원기준을 삼아 달라, 공동전시판매를 통한 지원희망, 전통가마에 대한 환경공해규제가 문제, 등이었다. 협조적이다라고 호감을 표시한 응답도 유일하게 한 명이 있다.

## 7.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예종사자들이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현재 직업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表 - 10>

- (1) 매우 만족 34명(27%)
- (2) 그런대로 보람을 느낀다 70명(55.6%)
- (3) 그저 그렇다 8명(6.3%)
- (4) 불만이지만 계속하겠다 9명(7.1%)
- (5) 기회가 있으면 직업을 바꾸겠다 4명(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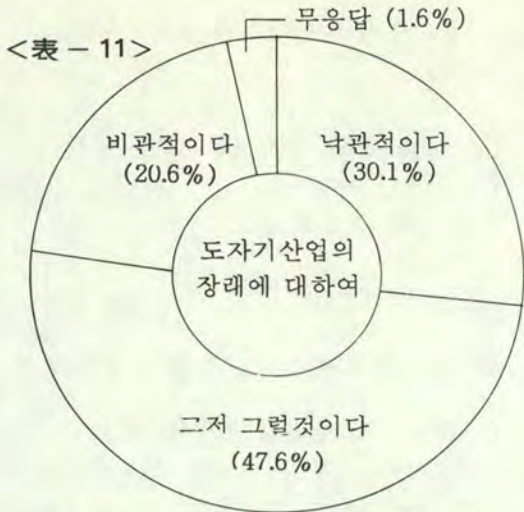
로 83%의 대다수가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가업을 계승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결과,

- (1) 꼭 시키겠다 9명(7.2%)
- (2) 본인이 원한다면 시키겠다 90명(72%)
- (3) 시키지 않겠다 22명(17.6%)
- (4) 무응답 4명(3.1%)

으로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월등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는 직접 연관이 없으나 <귀하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였다.

- (1) 적극 추진 66명(52.4%)
- (2) 미흡하지만 추진 43명(34.1%)
- (3)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4명(11.1%)
- (4) 관심없음, 무응답 3명(2.4%)

으로 대다수의 업체들이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외부사람들이 이천도자기가 전통채련과 문화재모방 쪽에만 너무 치중하여 새로운 형식의 공예품개발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들어냈는데, 이것은 결국 도예 종사자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성과면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 8.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도자기 산업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에 대하여, <表 - 11>

- |              |            |
|--------------|------------|
| (1) 낙관적이다    | 38명(30.1%) |
| (2) 그저 그럴것이다 | 60명(47.6%) |
| (3) 비관적이다    | 26명(20.6%) |

으로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낙관론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세부항목이라 할 수 있는 <앞으로 중점개발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를 물어 보았다. <表 - 12>

- |           |            |
|-----------|------------|
| (1) 도예작품  | 48명(36.4%) |
| (2) 관광민예품 | 39명(29.5%) |
| (3) 생활자기  | 34명(25.8%) |
| (4) 기타    | 9명(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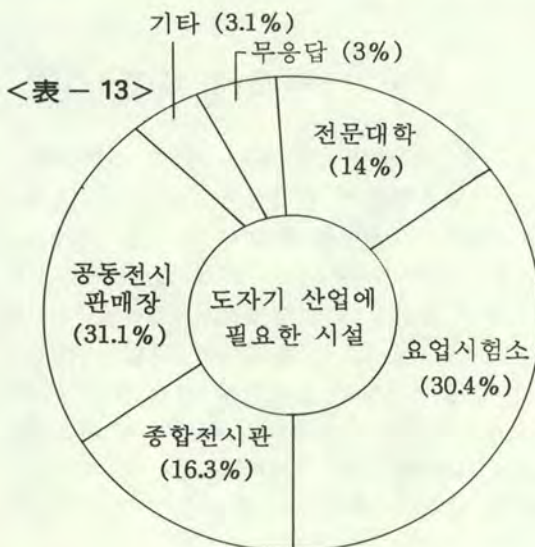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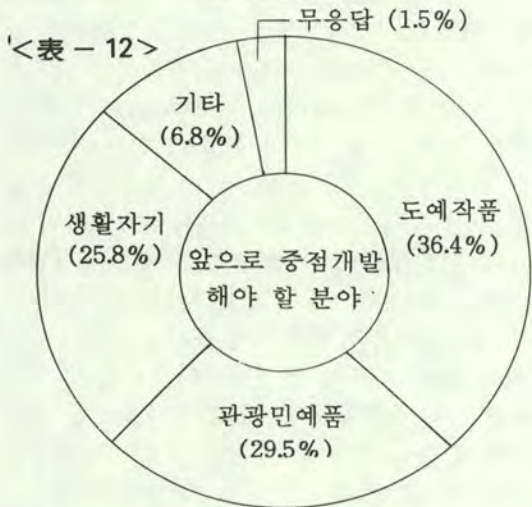
위의 결과에서 보듯 도예작품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국민 생활 문화 속에 파고들기 위해 생활자기 개발에 비중을 두어야한다는 일반론과 차이를 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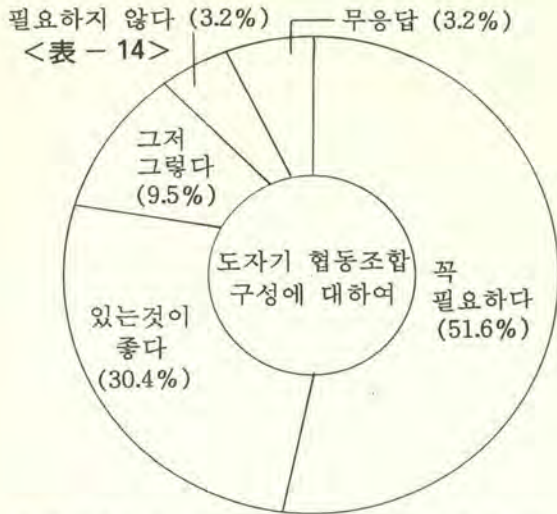
<도자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서는,

- |              |            |
|--------------|------------|
| (1) 도자기 전문대학 | 19명(14.0%) |
| (2) 요업시험소    | 41명(30.4%) |
| (3) 종합전시관    | 22명(16.3%) |
| (4) 공동전시판매장  | 42명(31.1%) |
| (5) 무응답      | 7명(3.0%)   |

로 공동전시판매장, 요업시험소가 우세한 가운데 네가지 예를 든 필요한 시설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表 - 13>

최근 이천도예촌을 이웃 용인군의 자연농원이나 민속촌과 연계한 관광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이 있어 <이천도예촌이 관광





특별구역으로 지정된다면?>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 |               |            |
|---------------|------------|
| (1) 크게 도움이 됨  | 83명(65.9%) |
| (2) 비교적 도움이 됨 | 27명(21.4%) |
| (3) 그저 그럴것이다  | 9명(7.1%)   |
| (4) 도움이 안됨    | 3명(2.4%)   |

아울러 도자기협동조합 구성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도자기 협동조합의 구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응답내용은,

- |               |            |
|---------------|------------|
| (1) 꼭 필요하다    | 65명(51.6%) |
| (2) 있으면 좋을것이다 | 41명(30.4%) |
| (3) 그저 그렇다    | 12명(9.5%)  |
| (4) 필요없다      | 4명(3.2%)   |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82%로 압도적이었다. <表 - 14>

다음은 <도자기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서술형식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무응답이 57명이나 되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다른 서술형태의 질문보다는 낮은 비율이어서 응답자들이 비교적 관심을 보인 부분이었으며, 응답내용도 20여 항목이나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그 중 중요한 순서대로 예시하면,

- |                    |     |
|--------------------|-----|
| (1) 정부나 관계기관의 실질지원 | 18명 |
|--------------------|-----|

(관광진흥책, 수출장려책 필요, 세계상의 혜택)

- |                 |    |
|-----------------|----|
| (2)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 | 7명 |
|-----------------|----|

(공장설립 또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 |            |     |
|------------|-----|
| (3) 인력난 해결 | 12명 |
|------------|-----|

(기능인력 수급책 필요, 전문인력 양성 시급)

- |                        |     |
|------------------------|-----|
| (4) 도자기 홍보강화 및 판매전략 수립 | 11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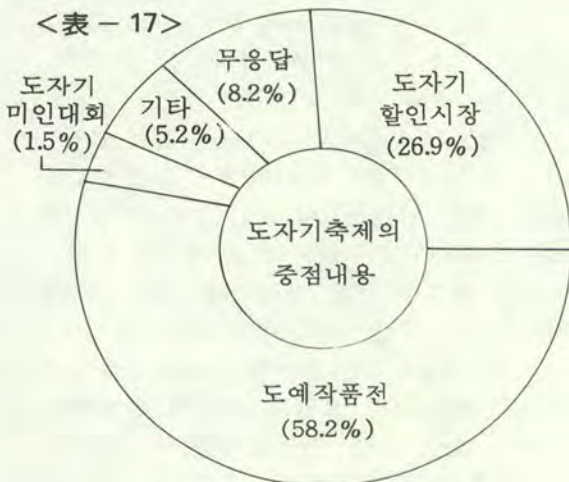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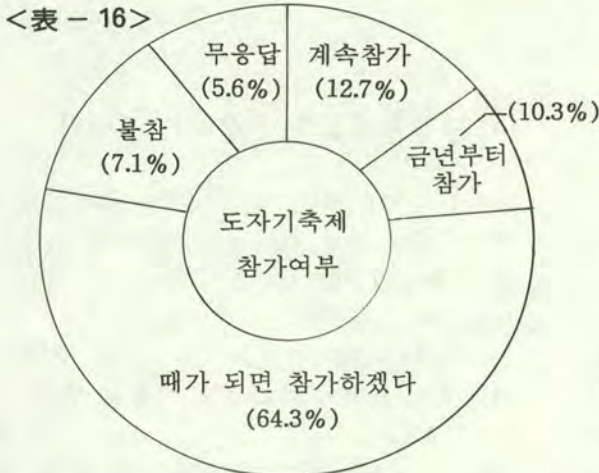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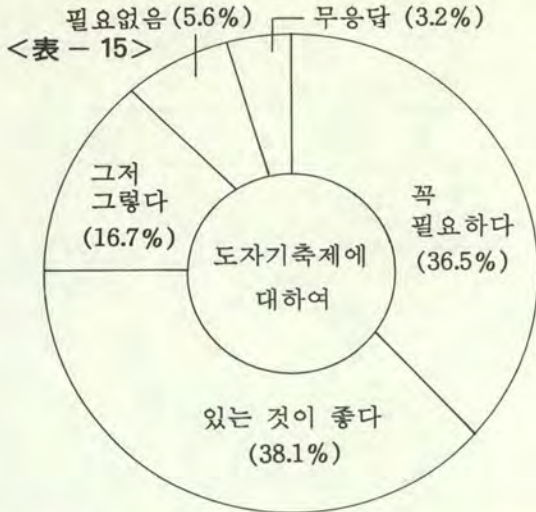
- |                         |    |
|-------------------------|----|
| (5) 상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경쟁력 회복 | 7명 |
|-------------------------|----|

(덤핑방지 및 중간상인 횡포방지)

의 순이어서 정부의 지원과 인력난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작품성체고 등 자체노력을 통해 품질향상에 주력해야 한다(6명), 소명감과 결속력을 갖도록 도예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4명), 분업화를 통해 요장마다 특색있는 전문생산체제가 돼야한다(3명), 조합구성이 필요하다(3명) 등 자성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 원료구입이 어렵다(3명), 행정규제완화(2명), 도예업에 관한 정보부재(2명), 연구기관 설립(1명), 작품과 생활자기를 분리정립(1명), 경제성회복이 선결되어야(1명) 등의 소수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 전통작품에만 치중해야 한다와 전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로 서로 상반된 주장이 1명씩 나타났다.

## 9. 도자기 축제에 대한 의견

도자기축제는 지난 87년 제1회 설봉문화제가 열렸을때부터 간판행사로서 매년 개최되어, 행사전체가 취소되었던 9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모두 여섯차례가 열렸다. 도자기축제는 처음부터 외래방문객들을 겨냥한 관광축제의 성격으로 계획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고, 91년부터는 도자기가가씨 선발대회를 신설하여 내용면에서도 다양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사의 중심이 돼야할



도예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참여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 기회에 도자기 축제에 관한 도예인들 전체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이천도자기 축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은?>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表 - 15>

- |             |            |
|-------------|------------|
| (1) 꼭 필요하다  | 46명(36.5%) |
| (2) 있는것이 좋다 | 48명(38.1%) |
| (3) 그저 그렇다  | 21명(16.7%) |
| (4) 필요없다    | 7명(5.6%)   |
| (5) 무응답     | 4명(3.2%)   |

이어서 삼분의 이인 74.6%가 도자기축제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자기축제 참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 |                 |            |
|-----------------|------------|
| (1) 계속 참가하겠다    | 16명(12.7%) |
| (2) 금년부터는 참가하겠다 | 13명(10.3%) |
| (3) 때가 되면 참가하겠다 | 81명(64.3%) |
| (4) 불참하겠다       | 9명(7.1%)   |
| (5) 무응답         | 7명(5.6%)   |

으로 나타나, 참가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힌 사람이 19명(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대신 때가 되면 참가하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밝힌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를 통해 축제의 당위성을 인식시켜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表 - 16>

<도자기축제 행사내용중 중점을 뒤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 |              |            |
|--------------|------------|
| (1) 도자기 할인시장 | 36명(26.9%) |
| (2) 도예작품전    | 78명(58.2%) |
| (3) 도자기 미인대회 | 2명(1.5%)   |
| (4) 기타행사     | 7명(5.2%)   |
| (5) 무응답      | 11명(8.2%)  |

이어서 도예작품전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이 도자기 할인시장의 순이었다. <表 - 17>

도자기축제에 관한 설문중 마지막으로 <이천도자기축제중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형식으로 해답을 구해 보았다. 이 항목 역시 다른 서술

<表 - 18>

□ 요장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사항 □

자금난과 경기침체	40명
기능인력부족 기능인력의 빈번한 이동	22명
자금, 세제상 관계기관의 지원부족	6명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움	5명
기타의견	15명

형식의 항목들처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69명이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응답내용 중에는 참가업체가 더 많아져야 한다,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가 1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자기가가씨의 효과적인 활용,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떠나 축제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포함하여 11명이었고, 도자축제임으로 도자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도자기시장에 비해 야시장의 규모가 너무 큼)는 지적과 영구적인 장소, 실내,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각각 7명씩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인근지방과 차별화를 통한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가 너무 판매를 치중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을 포함하여 6명, 참가요장의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4명, 도예단지화 추진 등을 통한 진취적인 발전방향이 나와야 한다가 3명이었다. 기타 축제장의 시설개선 필요, 판매가의 적정선 유지, 도자기 미인 선발대회를 전국규모로 확대,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요망, 이천지역 외의 대도시에서 개최, 업체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판매전략수립, 지역민의 관심부족이 소수의견으로 눈에 띠며, 잘 모르

겠다(2명)와 잘 되고 있다(1명)는 응답도 있었다.

## 10. 당면문제점과 존경하는 도예인

28번째 항목은 이번 설문조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현재 요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表 - 18>

- |                                 |     |
|---------------------------------|-----|
| (1) 자금난과 경기침체                   | 40명 |
| (판매부진, 도자기 가격하락, 인건비 상승, 판로문제등) |     |
| (2) 기능인력 부족, 기능인들의 이동이 많음       | 22명 |
| (3) 자금지원, 세제상 지원이 필요            | 6명  |
| (4)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복잡              | 5명  |
| (관계기관의 이해 및 협조부족)               |     |

으로 단연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소수의견으로는 원료구입이 문제(2명), 환경보존차원의 등요규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필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업화가 필요, 새로운 작품개발을 위한 자체노력의 부족, 영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타요장에서 개발품을 쉽게 모방, 요업기술상담을 위한 자문기관이 없음, 중간상인들의 횡포가 지적되었고, 문제점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가 3명, 내 소유의 요장 장만이 애로사항이란 응답자도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천지역도예업체들의 영세성인데, 고용원 5명이하의 소규모업체가 전체의 삼분의 이가 넘으며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응답자의 90%가 도자기 제작에서부터 판매와 운영관리를 도맡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었다.

1명이 있었다.

다음은 참고로 도예종사자들 스스로 <존경하는 도예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두 명 이상의 복수추천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무응답 62명과 없다고 대답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작고한 유근형옹이 21명의 추천을 받아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홍재표(10명)·지순탁(작고-8명)씨가 손꼽혔고, 이정하·안동오(작고)·김종호씨가 각각 3명, 이기휴(작고)·조소수(작고)·임항택씨가 각각 2명씩의 추천을 받았다.

그밖에 작고한 유하상·고영재·김완배씨와 천한봉·조성주·김용한·유광렬·이은구·김세용·이춘규·김정옥·위군섭·김정호·박인수·조무호·김대회·홍성호 제씨의 이름이 눈에 띄며, 현대도예쪽의 권순형·신상호씨와 정양모 현 국립중앙박물관장, 일본인 魯山人·하마다 쇼지의 이름을 적어넣은 응답내용도 있었다.

끝으로 <기타 귀하의 의견>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된 의견들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 (1) 영세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희망 7명  
(지원방법의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주문 포함)
- (2) 조합같은 공동기구를 결성 상부상조해야 4명
- (3) 새로운 작품개발에 주력 작품성을

살려 나가야 함

4명

(타지방 도자기 상품 취급을 하지말아야)

(4) 도예및 도자기 축제의 홍보강화 필요

3명

(5) 도자기 업종에 관한 세제상 혜택희망

3명

등이었다.

기타 도자기축제행사의 관주도 탈피, 전문인력 양성시급,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 도예 1세대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투자희망같은 의견들과 함께, 각종 도예관계 공모전이 형식적이어서 의욕이 생기지 않음, 전문 기능인들만이 도예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함, 장작가마에 대한 환경오염규제는 어불성설, 도예홍보 및 사업정보 수출정보 등을 전달하는 기관설립의 필요함, 상공자원부가 주관하는 공모전 출품을 여주에 가서 해야하는데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 조합구성은 필요없다 등의 다양한 주장들이 개진되었다.

## 11. 맺는 말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이천지역 도예업체들의 영세성인데, 고용원 5명 이하의 소규모업체가 전체의 삼분의 이가 넘으며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응답자 전체의 90%가 도자기 제작에서부터 판매와 운영관리를 도맡아 처리해야하는 입장이며, 원료생산업체의 영세성은 대부분이 사용

경기침체에 따른 도예업계의 불황은 업체의 성격상 타업종보다도 심각하며, 과거 이천도예촌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해외시장의 경우는 더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도자기업체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관계기관의 지원미흡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들어난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라 하겠다.

하고있는 구입원료의 품질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예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효과적인 홍보및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고객들의 취향을 미리 알아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작품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현대식 경영개념이 도예업계 쪽에는 아직도 요원하기만한 셈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예업계의 불황은 업체의 성격상 타업종보다도 심각하며, 과거 이천도예촌 형성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해외시장의 경우는 더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이번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나 전통공예품 생산및 관광민예품 생산장려의 차원에서,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대부분이 매우 미흡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기업체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관계기관의 지원 미흡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들어난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라 하겠다.

도자기축제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조사된 바는 아니지만 요장을 꾸러가기도 힘든 판인데 행사에 나가보아야 번거롭기만 할뿐 크게 이익되는 점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도자기축제는 우선 도예종사자들 자신이 적극 참여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도자기축제의 예에서 보듯 이번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들어난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도예종사자들의 의식구조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조사항목중 구체적인 본인의 의견제시를 요구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절반 이상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음은 그만큼 자신의 일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정부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매우 미흡하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달라는 대목에서는 입을 다물고 만다. 종합전시관이나 공동판매장, 요업시험소 같은 시설이 필요함은 인정하면서, 도자기 협동조합 같은 공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와같은 공감대를 공동의 노력으로 통해 구체화하려는 의지가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좀체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닌 탓에 이번 조사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들 자신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이만큼의 기본자료만이라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하며, 서두에서도 밝혔듯 도자기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때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이를 계기로 도예종사자들 스스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계기관에서도 도예문화 발전과 도예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雪峰文化祭를活性化하자.



金 洪 雲  
(漢陽大學校 觀光學科 教授)

## 1. 전통놀이와 축제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은 고도의 기술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스스로를 속박하게 되었고 인간의 주관성 부재 및 비개성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즉 모두가 경직된 사회조직체의 한 구성원으로만 전락할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욕구하고 사유하는 인간들은 결국 이러한 현대산업사회의 모든 병폐를 고치고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 부각된 것이 전통민속놀이 축제이다.

축제는 인간성 상실과 소외의 사회에서 인간애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느낄 수 있으며, 일상적인 질서의 중압으로 시들어버린 잠재의식에 생동감과 활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관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전통놀이와 축제의 현대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정한 공간과 문화를 단위로 전통적으로 계

지난번 <설봉문화> 제10호에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김홍운 교수의 '전통민속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이란 글을 수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김 교수께서 雪峰文化祭活性化를 내용으로 한 소중한 원고를 보내오셨다. 雪峰文化祭를 陶磁器 祝祭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가의 견해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원고를 주신 김홍운 교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編輯者 註

오늘날의 축제는 두드러진 특징이 그 지방의 특산품이다. 상품을 선전하고 생산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특산품 축제가 많이 생기고 이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다행히 이천의 설봉문화제에는 지역특산품인 도자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대도시인 서울과 근린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 활성화에 가능성을 준다.

승·유지, 발전되어 온 대부분의 놀이와 의례는 이제 지역주민의 향토민속문화행사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농경민족이었고 지역성이 뚜렷하여 각 고을이나 마을마다 독특한 놀이문화나 민속행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이것들을 미신이라 규정짓고 행사를 중지시켰다. 다행히 우리는 60년대 경제성장기에서 이제 문화로의 발걸음에서 각 지방마다 고유의 전통놀이가 행해지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일이 아닐수 없다.

여가시간을 포함하는 세속적 의례에는 관광과 유사한 또다른 보편적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놀이라 할 수 있다.

놀이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힘겨운 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쉬는 것이고 또 새로이 시작된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과 몸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다.

현대의 민속행사 축제는 민족의 전통적 축제일을 바탕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의 양양과 지역개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축제는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의 축제는 두드러진 특징이 그 지방의 특산품이나 상품을 선전하고 생산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특산품축제가 많이 생기고 이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축제는 지역주민에게는 고향의 긍지를 갖게하고 출향한 주민들에게는 애乡심을 돋우고 지역적으로는 경제적 활성화를 갖게 한다.

다행히 이천의 설봉문화제는 지역특산품인 도자기를 바탕으로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대도시인 서울과 근린하고 있다는 것이 이의 활성화에 가능성을 준다. 다행히 설봉문화제가 토산품을 바탕으로 민속축제를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비전이 있기에 한국관광공사는 이천의 도자기 행사를 매우 큰 관광축제로 선정했으며 이를 일간지나 메스콤을 통하여 선전하고 있다.

## 2. 설봉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오늘날 많은 지방문화축제는 그 지방 군중의 놀이로 정착되었고 중대한 문화행사가 되어 지방문화를 꽃피우고 지방을 돋보이게 하며 행사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상품, 관광자원이 되었고 그 지방의 특산품을 대내외로 선전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토산품의 생산자는 이 축제의 연출자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모두가 합의일치가 되어 행사를 주관하고 멋진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의 지방민속축제가 거의 갖고있는 결점은 개최일자의 유동이다. 즉 언제하는지 날

설봉문화제가 이천지역주민에게 매력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첫째 수입이 있어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고, 무엇인가 먹거리·살거리·돈 쓸거리가 있어야 하고,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놀이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천의 설봉축제가 비록 그 연조는 짧다고 할수 있으나 서울과 이웃하고 또 도자기의 축제가 되고 공해없는 지역이기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차적 기능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날자를 고정시켜 중단없이 행사를 이끌어 간다면 역사가 더해져서 보다 전통있는 축제로 정착화 될 수 있다. 다음은 출향민들에게 이같은 축제를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이촌향도의 추세로 도시에 진출한 출향민들에게 이 축제시기에 각급학교 졸업생 동창회를 갖게하자는 것이다. 축제도 참석하고 동창회도 참석하고 고향의 특산품도 사는 다목적적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날자를 6일간으로 정한다면 도자기 전시는 장기간으로 하고 2일은 운동행사, 2일은 민속행사, 2일은 학술발표 등으로 정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함께하는 비빔밥식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너무 잦은 행사로 싫증을 가져와서도 안되고 지역 유지들에게도 경제적 과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출염이라는 형식으로 축제와 놀이를 조출하게 치루어 왔다. 흥청 망청하는 과소비의 풍조는 없어야 한다.

또한 설봉문화제가 이천 지역주민에게 매력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매력이 있는 고장이라면 첫째, 수입이 있어 주머니가 두둑해야

하고, 무엇인가 먹거리, 살거리, 돈쓸거리가 있어야 하고, 아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놀이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설봉축제가 이천주민에게 매력을 줄수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이천의 주민들이 이 축제 동안이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아는 사람과 만나고, 각종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멋진 축제가 연출될 것이다.

'94년은 정부가 손님맞이해로 정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중흥기로 삼고 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아오고 있다. 서울의 고궁, 용인의 민속촌을 본 외국인은 이천의 설봉축제를 가게될 것이다. 일본은 축제의 나라라 할 정도로 축제가 많고 이것들이 관광대상이 되어있다. 이천의 설봉축제가 비록 그 연조는 짧다고 할수 있으나 서울과 이웃하고 또 도자기의 축제가 되고 공해없는 지역이기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차적 기능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끝으로 이 축제가 아기자기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되어 이천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 금석문 자료 ③

# 文平公 金吉通 墓表

所在地：利川郡 新屯面 水廣里

時 代：純祖 22年(1822)

撰 者：李友信

書 者：俞漢之

規 模：높이 356cm, 폭 55cm, 두께 15.5cm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승정대부 행 호조판서 월천군(月川君) 시(諡) 문평(文平) 김공(金公)의 휘(諱)는 길통(吉通)이요. 자(字)는 숙경(叔經)인데 그 묘소는 이천(利川) 수출리(水出里)에 있다. 옛날부터 비갈(碑碣)이 있어 왔으나 세운지가 오래되니 글씨가 흐려져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후손 성민(聖民)과 요흠(堯欽)등이 돌을 다듬어 다시 비를 세우려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내가 구비(舊碑)를 살펴보니 다만 공의 고비(考妣)와 생년(生年)·역관(歷官) 졸장년월(卒葬年月) 및 여섯 아들에 대한 기록뿐으로써 그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였다.

그러나 명(銘)에 이르기를 『나라에는 의지할 곳이 있고 학문은 전할 바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공의 사람됨을 은연중에 상상할 수 있도다. 또 책훈(策勳)시 공에게 내린 교서(敎書)를 보면 『단엄하여 지킨 바가 있고, 청백하면서도 덕화가 없지 않았으며 기상은 풍상보다 더하고 충성은 일월처럼 빛났다.』하였으며 또 나라에서 내린 시법(諡法)을 상고 해보니 경직하고 자혜로웠으니 이는 문(文)이요. 처사에 절도가 있었으니 이는 평(平)이라고 하였다. (敬直慈惠曰文 執事有度曰平)

공의 행의를 위의 교서와 시법에 나타난 바에 따른다면 공은 우유부단하거나 아유 구용(阿諛苟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병자년 육신(六臣)들이 붙들렸을 때 공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기를 『이 사람들과 같이 죽지 못한 주제에 문장은 남겨서 무엇하겠는가?』하고 자기의 초고를 다 불태워 버렸으니 이로 보면 공이야말로 명실 상부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옛날 비석에는 이 사실을 쓰지 않았고 그뒤에 공께서 남긴 시(詩) 수십여편을 모아 한권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도 옛날 비석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구비(舊碑)는 당시에 세워졌으니 이 일을 감히 실을 수 없었을 것이요, 시집(詩集)의 첫 간행도 육신이 신설(伸雪) 되기 이전이었으니 모두 숨기고 쓰지 않았음이 꺾이할 것은 없다. 백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뒤에 구구하게 주어 모은 시(詩)가 수십여편이나 되는 것을 보면 공의 문장이 성하기는 하였던 모양인데 마침내 이 수십편 밖에 모으지 못한 것은 어찌 또 까닭이 없었겠는가?

구비(舊碑)에 관직을 역임한 년월이 없어 초고를 불태웠을 때에 공이 무슨 벼슬로 있었고 그 후에 진퇴를 어떻게 하였는 줄을 알지 못함이 한스러우나 오직 한가지 성종(成宗) 초년에 나라



는 어렵고 임금은 어렸는데 공은 선조(先朝)의 구신으로 마음을 다하여 보좌하였으니 그 공은 크고 충성은 지극하였었다.

공의 선세(先世)는 고려 시종 대유(大猷)가 청풍(淸風)으로 본적을 옮김에서부터 비롯된다. 그 분이 시랑 인우(仁佑)를 낳았고 이분의 증자는 도충제 충(仲)이며 도충제가 집의 증 호조 참판 직방(直方)을 낳았고 참판이 서운정(書雲正) 증 병조 판서 광무(光茂)를 낳았으며 이분이 공의 아버지인 현감을 낳았으니 구비(舊碑)에 기록한 증 좌찬성 효례(孝禮)가 바로 그분이다. 오 부인(吳夫人)은 사재정(司宰正) 은(隱)의 따님이오, 공의 배위 이씨(李氏)의 고(考)는 판예빈시사 심지(審之)이니 모두 구갈(舊碣)에는 실리지 않았던 바요, 구갈에는 또 『공의四名 순명(順明)이 북정(北征)하여 공신희를 내렸으나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니 즐한 후에 공양(恭讓)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봉호는 청릉군(靑陵君)이었고 책록은 공과 같은 좌리공신이었다.』하였다.

처음 북적(北敵) 이시애(李施愛)가 단종(端宗) 복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명하였으나 알고보니 그것은 거짓이어서 의(義)로써 이들을 토벌하였다. 그러나 끝내 훈작을 사양한 것은 공께서 문고(文稿)를 불태운 뜻을 따른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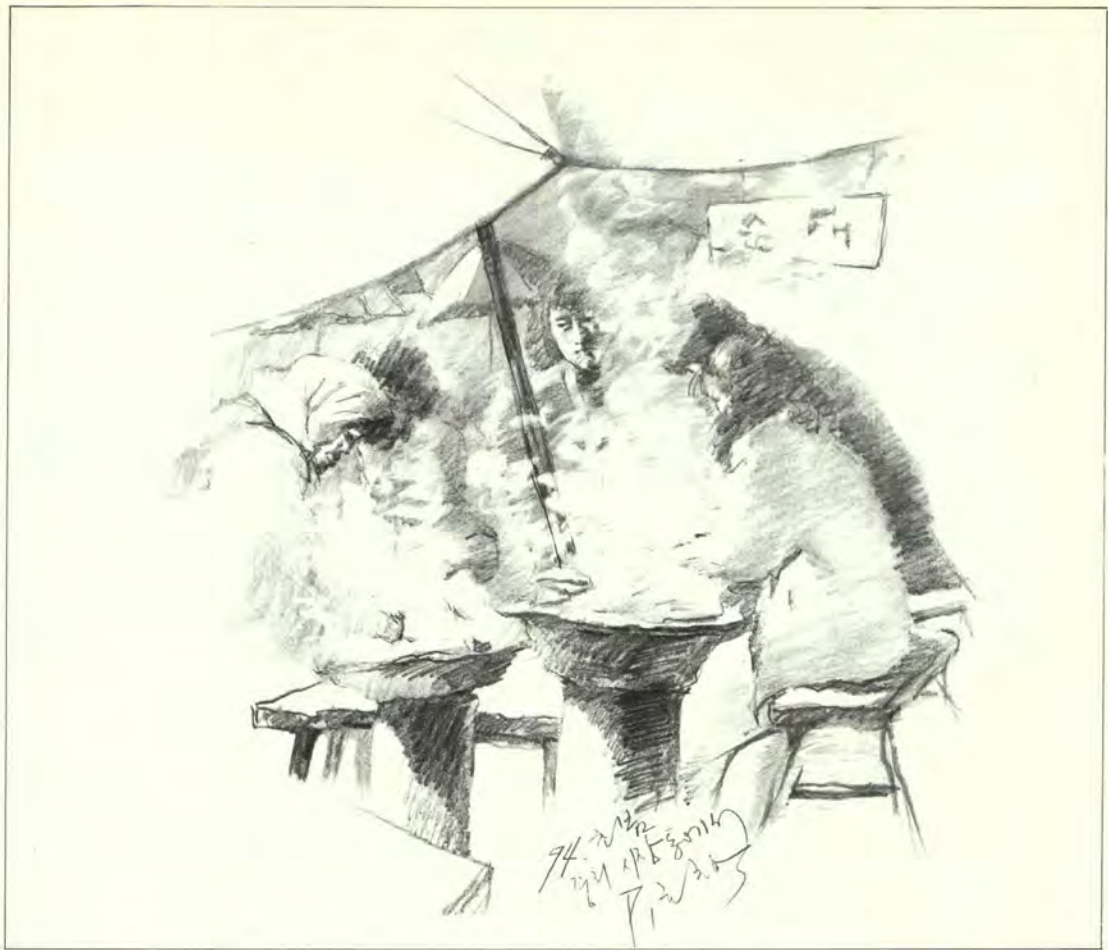
공의 칠세손 익선(益銑)은 병자란의 와중에서 성장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고 공양공의 현손 세마 답천(答天)도 적을 만나 굴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으며 그의 아들 호군 성진(聲振)도 자취를 감추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후 자손들도 선조의 가르침에 따라 수세를 과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양공으로부터 세마까지는 대대로 벼슬이 있었으나 그후에는 약간 부진하였다.

회라! 그들은 조상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어 받음이 없이 그럴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그떨치지 못한 것이 고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나는 그 사실을 특별히 기록하여 공의 묘앞에 이 뜻을 함께 새기게 하는 바이다.

조봉대부 행 시강원 자의(諮議) 겸 경연관 이우신(李友信) 지음.

통훈대부 행 영춘 현감 유한지(兪漢芝)는 글을 씀.

송정 기원후 四임오 월일 세움.



## 술 판

세상은  
 치열해 지라고 보다 가열차라고 한다  
 한숨처럼 올망졸망 모여 앉은  
 시장통 선술집  
 거나해 갈 수록 늘어나는  
 욕질과 헛다짐  
 별경게 핏발선 눈으로 끝낸  
 술자리엔 우리들 몸에서 떨어진  
 발가벗은 욕망들이 꿈지락  
 꿈지락 기어다닌다.

~이천을 중리 시장통에서~

□ 글·그림 - 박호창 □





## MONOLOGUE

나는 방기(放棄) 당했어  
용도폐기처분 되었지  
한마디로 몽똥그리자면 좋겠어  
나의 쓸모는 이제  
변두리 나이트클럽의 무희처럼  
관록있는 몸똥아리뿐이야  
그뿐이야  
그렇게 버티기로 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끝장을 보고 말거야  
진짜야, 어금니 꼭개물구  
독한 맘 먹었다구

~이천을 중리 208-13번지 마당에서~

□ 글·그림 - 박호창 □

# 이인(異人) 기인(奇人)들의 일화 (上)

박 광 식  
(정리 - 編輯室)

**서고청(徐古淸)은 이천 서씨로 천비 출생이라 탁월한 재질을 갖고서도 초야에 묻혀 사는 억울한 운명이다. 그의 출생 경위를 살펴보면, 조선 중종대왕 시절 대전에서 공주를 가는 길목에 계룡산 자락을 깔고 공암이란 마을이 있다.**

## 서고청(徐古淸)굴의 由來

서고청(徐古淸)은 이천 서씨로 천비 출생이라 탁월한 재질을 갖고서도 초야에 묻혀 사는 억울한 운명이다. 그의 출생 경위를 살펴보면, 조선 중종대왕 시절 대전에서 공주로 가는 길목에 계룡산 자락을 깔고 구곡수가 흐르는 곳에 공암이란 마을이 있다. 공암 못미처 길가에 있는 산기슭 동쪽으로 바위굴이 있으니 서고청굴이라 전해 온다.

공암은 일찍부터 사대부인 이평산 맥이 세거해온 마을이었다. 때는 칠월 망간무렵으로 이평산맥 여종 하나가 산기슭에 있는 서숙밭에 새를 쫓고 있었다.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

만치 보이는 서고청굴이 비를 피하기에 안성마춤이어서 노비는 바위굴로 뛰어들어갔다. 잠시후 새우젓통을 지고 근처를 지나가던 띠꺼머리 늙은 총각이 소낙비를 만나 허둥대다가 노비가 있는 굴안으로 뛰어들었다.

비를 맞은 두 남녀가 굴안에 함께 서있으니 서로 옷깃이 다을 정도이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서먹 서먹하여 겨눈질로 상대방을 훑쳐보다가 가까이 이성의 체온을 느끼다 보니 야릇한 심정이 되어 숨결이 가빠졌다.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서로 포옹을 하고 처음점 마지막으로 운우지락을 나누게 되었다.

비가 그치고 두 남녀는 서로 수줍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졌는데 아쉬운 것은

여자편이다. 상대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하다못해 성씨라도 알아두었어야 하는데 엉겁결에 황홀지경을 당하여 도망치듯 헤어졌으니 말이다. 그 일로 노비가 잉태를 하여 수 개월이 지나자 배가 차츰 불러오기 시작했다. 이평산 부인이 생각하니 오죽 못났으면 나이 서른이 넘도록 짝을 못찾다가 그래도 임자를 만난 모양이라고 불쌍한 마음에서 전보다 더 마음을 써 주었다. 열달후 노비가 귀여운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 아이가 서고칭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용모가 비범하여 평산 영감이 귀여워하며 사동으로 키우는 동안 영리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글도 가르쳤다. 총명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식으로 조속하여 겨우 5, 6세에 자학자습으로 사서삼경을 모두 배웠고, 10여세가 되니 불교 도교 의학 복술서 어느것 하나 막히는 것이 없고 특히 궁리가 넓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자신의 성조차 모르는 것이 한이 되었다.

하루는 모친을 졸라 자기가 태어난 내력을 자세히 듣고 2, 3년 동안을 여름 7월 망간이면 공암 바위굴 아래로 가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살피는데 통지게 장수들은 각별히 눈여겨 살폈다. 삼년째 되던 7월 망간 무렵, 다른 날처럼 고칭이 지나가는 길

손들을 살피는데 띠꺼머리 통지게 장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굴을 쳐다보며 싱긋이 웃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칭이 얼른 그를 보고 물었다.

“여보세요. 어르신네께서는 왜 저굴을 쳐다보고 웃으셨나요?”

“아니다.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느냐?”

통지게 장수가 속이 뜨끔하여 얼결에 잡아떼며 아이를 보니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 생긴 소년이었다.

“제가 똑똑이 보았습니다. 저도 까닭이 있어 여쭙는 것이니 숨기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태도가 진지하고 야무지게

묻는 바람에 통지게 장수는 자신이 10여년전 이곳을 지나가다가 소낙비를 만나 굴로 피신했던 일이며, 굴 속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였다.

통지게 장수의 말이 끝나자 소년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면서 까닭을 물으니 그 야무진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칭은 아버지를 찾고 자신이 이천 서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부친을 주인택으로 모시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모처럼 한가족이 모여 살게



“  
**그 날  
 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평산 영감은  
 남몰래 심복지인  
 두사람을 보내서  
 탐지해 보았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 날  
 그 시각에  
 해인사에  
 큰 불이 났으며,  
 별안간  
 북서쪽으로 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쏟아져  
 불을 꺾다는  
 것이다.**”

되었다.

어느해 여름 서고청은 이 평산 영감의 마부가 되어 말을 몰고 대전쪽으로 나들이 길에 올랐다. 유동천을 건너 중간쯤 가서 갑자기 고청이 말채찍으로 냇물을 찍어서는 남동쪽으로 뿌리기를 세번하면서 중얼중얼 지껄린다. 평산 영감이 이상하여 까닭을 물었다.

“예, 지금 합천 해인사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절이 타면 천하의 보배인 팔만대장경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끄고있는 중입니다.”

평산 영감은 기가 막혔다. 서고청의 재질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수백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며, 흑안다고 해도 말채찍에 적신 물 몇 방울로 어찌 큰 불을 끈단말인가. 평산영감이 의심 적은 얼굴로 물었다.

“그래 그것으로 불을 끌 수 있단 말이나?”

“예, 이미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날 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평산 영감은 남몰래 심복지인 두 사람을 보내서 탐지해 보았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날 그시각에 해인사에 큰 불이 났으며, 별안간 북서쪽으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쏟아져 불을 꺾다는 것이다.

평산 영감은 다시한번 서고청의 귀신같은 재주에 감탄을 하였고, 그후 천한일을

그만두게하고 자신과 평등하게 대우하였다고 한다. 비슷한 시대에 불우한 천민 출신으로는 여산 송씨 송구봉이나 조정암의 스승겸 친구였던 동대문 밖 갓바치 움집의 김거인 등이 있으며, 정북창이나 토정 이지함 같은 기인들도 많았다.

### 토정(土亭)의 기행과 상노

토정 이지함은 조선 명종과 선조때 걸쳐 살았던 기인으로 유명하며 특히 주역에 달통하여 육효의 신비를 담은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만들었다. 토정비결을 가지고 일년신수를 보는데 귀신같이 잘맞았다. 너무 잘 맞아서 사람들이 이를 믿고 게을러질 염려가 있었다. 백성들에게 폐단이 될 것을 염려한 토정이 죽을 무렵 책을 불질렀다고 하는데, 불탄 찌꺼기를 그의 조카가 건져내어 다시 살을 붙여 만든 것이 오늘에 전하는 책이라는 것이다.

토정의 본관은 한산이요 토정(土亭)은 그의 호이니, 마포 나루터 근처에 흙을 구어서 이층 흙집을짓고 살았기로 토정이라 하였다 한다. 토정은 기행으로도 유명하여 수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않는 이야기 두어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 이산해(李山海)는 토정의



장조카로 그의 과년한 딸의 사위감을 고르는 일을 삼촌인 토정에게 부탁하였다. 어느날 토정이 조카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오는 2월 보름날 진사에서 사시 사이에 사람을 동대문 밖 여주 이천 광주 방면으로부터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면 서울로 이사 오는 쇠짐마리가 들어오는데, 그중 쇠짐마를 타고오는 도령이 있을터이니 그 도령을 놓치지말고 사위로 삼으라고 일러 주었다. 이산해는 삼촌이 알려준대로 2월 보름날이 되자 심복 청지기를 동대문 밖으로 보내 여주 이천 광주 쪽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도록 하였다. 진사가 지나고 사시도 거의 지날 무렵 과연 10여세 되는 도령이 짐마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청지기는 그 소년의 뒤를 밟아 이사온 집을 확인하여 상

전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도령은 이산해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문과급제하고 사위가 되니, 광주 이씨로 선조 때 명재상인 한음 이덕형(李德馨)이 바로 그이다.

서해안 지대로 둔포나루가 생기기 전에는 이 일대가 굳은 땅이었는데 수 많은 세월 동안 땅 밑으로 바닷물이 스며들어 사리 조금을 거둬들여 공중에 떠 있던 땅이 어느날 갑자기 밑으로 내려앉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이에 얼킨 이야기 한토막. 토정은 이인이었다. 무쇠로 갓을 만들어 쓰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엮어놓고 술으로 사용하여 밥을 지어먹고 다시 깨 끝이 닳아서 머리에 쓰고 다니곤 하였다.

둔포나루가 내려앉던 날 시각이 미시초인데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다. 토정은 땅

이 꺼지리라는 것을 미리알고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살폈다. 그런데 이날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에 사색이 깊어 생명을 구해줄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운명이로구나 탄식하며 천천히 말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는데 난데없는 총각녀석이 말채적으로 말궁둥이를 뚫다 치면서,

“어서 빨리 가자. 이 느낌 땡이 말아!” 한다.

토정이 돌아보니 총각의 행색은 초라하지만 보통사람이 아니다.

“이보게. 미시(未時)초인데 무엇이 급한고?”

“이거보시오. 자오(子午)가 상충되어 오시(午時)로 다가든 것을 모르시오?”

땡은 그것도 일리있는 말이라 생각하면서 총각이 말을 모는대로 급히 뛰쳐나와

오성과 한음은 어린시절부터 만나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탁월한 자질로 두 사람이 모두 소년 등과하여, 촉망받는 젊은이들로 국가의 동량으로 국사를 돌보면서도 평생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두터운 우정을 주고 받았다.

언덕에 닿자마자 철렁 큰 소리와 함께 장터 일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인가도 사람들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벽해가 되어버렸고, 토정이 탄 말은 앞발이 언덕을 딛고 뒷발은 물에 빠졌다가 뛰쳐나와 간신히 생명을 보전하였다. 그런데 함께 있던 총각은 온데 간데가 없더라는 이야기가 아산 등지에 전해 온다.

토정은 항상 날지네를 씹어먹고 독을 제거하기위해 생률(生栗) 세 톨씩을 먹었다. 조반후 지네 세마리를 자시고 손을 내밀면 상노가 준비했던 생률을 냉큼 올리는데 언제나 하는 버릇이다.

하루는 상노가 날마다 생률을 까는 일에 피가 났던지, 아니면 장난기가 발동했던지 버드나무로 생률처럼 세 톨을 꺾어놓았다가 이날도 조반후 토정이 손을 내밀자 버드나무 조각을 손바닥에 놓아주었다. 토정은 말없이 밤톨처럼 생긴 버드나무 조각을 씹어서 뺨고 다시 손을 내밀어 씹어뺨고 이렇게 세 번을 되풀이 하였다. 결국 지네독으로 억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니 무슨 업보일까.

#### 오성의 해학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의리좋은 친구사이를 일컬어 관포지교라 하니 이는 중국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의 우정이 남달랐기에 유래된 말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성과 한음의 우정도, 이들 못지않았기에 오한지교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소년시절의 오성 이항복은 서울에서 자랐다. 오성이 살고있는 집 근처에 대장간이 있었으니 주로 마소의 정신을 만드는 대갈공장이다. 년중 풀무질을 하여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여 대갈을 만드는데, 매일처럼 어린 오성이 아랫도리를 벗은채 대장간에 놀러가서는 대갈을 만들어 늘어놓은 흙바닥에 털석 주저앉아 엉덩이 사이로 대갈을 한개씩 물어다가 슬그머니 가져가는 취미가 있었다. 대장장이는 진작 이것을 눈치챘지만 상대가 양반집 귀한 도령이어서 대놓고 야단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보니 대장장이는 슬그머니 약이 올라 한 피를 냈다. 도령이 놀러올 무렵쯤 해서 불

에 달군 대갈 하나를 슬그머니 맨 위에다 올려 놓았다. 과연 도령이 들어오더니 뜨거운 대갈을 털썩 깔고 앉았는데 못본척 것눈질로 어린 도령의 반응을 살펴보던 대장장이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아이들이라면 뜨겁다고 난리를 피울 것이 정한 이치인데 오성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그후로도 오성은 여전히 아무런 내색도 없이 놀러와서는 대갈을 꿈무니에 끼워갔다. 어느날 오성이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살구 한응큼을 들고 대장간을 찾았다.

대장장이가 바쁘게 일손을 놀리면서

“도령님 살구가 먹음직스러우니 나 하나 주오.”

하니, 선선히 그러라고 하면서 그중 가장 크고 빛깔좋은 놈 하나를 집어서 대장장이의 입안에 넣어 준다. 무심코 한 입 꼭 깨무는 순간 오만상을 찌푸리며 짹짹대는 대장장이였다. 오성은 깔깔 웃으며 양반을 속여 꿀탕을 먹었으니 똥을 먹어 마땅하다고 했다.

그후 10여년 세월이 흘렀다. 대장장이가 무엇이 잘못 되어 빈털털이가 되었다. 이때 오성이 대장장이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 장난으로 대장간에서 몰래 가져다가 쌓아둔 것이 있으니 도로 가져가라는 것이다. 옛날 일이라 까맣게 잊고있던 대장장이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어서 오성이 안내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뒷걸 큰 독안으로 대갈이 하나 가득이었다.

대장장이는 오성에게 백배 사죄하고 한 섬이나 되는 대갈을 가져다가 팔아서 다시 대장간을 일으킬 수 있었다.

### 오성과 한음의 우정

오성과 한음은 어린 시절부터 만나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탁월한 자질로 두사람이 모두 소년등과하여, 촉망받는 젊은이들로 국가의 동량으로 국사를 돌보면서도 평생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두터운 우정을 주고 받았다.

동문수학할 당시 하루는 오성이 한음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였다.

“여보게. 내가 오면서 보니까 염병으로 한가족 여섯명이 몰살을 당한 집이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네. 곧 여름이 되면 시체가 썩어 악취를 풍기고 또 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테니

그냥 버려 둘 수 없는 실정인데 아무도 나서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나서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한음은 쾌히 승락을 하고 당장 오늘밤에 장사를 치루기로 하였다. 오성은 삼베와 흰 종이며 칠성판을 준비하기로 하고 한음은 촛불과 향따위를 분담하여 유시에 그 집에서 만나기로 약조하고 헤어졌다.

시간이 되어 한음이 상가에 도착해 보니 오성은 아직 오지않은듯 사방은 어둡고 적막하다. 마당에는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고 추녀에는 거미줄이 엉겼으며, 퀴퀴한 냄새와 함께 음산한 바람이 감도는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듯하였다.

한음이 감감한 방문을 열고 촛불로 방안을 비춰보니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즐비하게 누워있는 시체냄새가 코를 찌르며 찬바람에 촛불이 별름거렸다. 방안에 들어서자 복판의 송장이 별안간 벌떡 일어선다. 기절초풍할줄 알았는데 한음이 태연자약하게 웃는다.

“자네가 먼저 와 있을줄 알았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나?”

오성이 되물었다.

“그것은 첫째 시체들이 제멋대로 누워 있어야 하는데 가즈런한 것이 의심스러웠고,

자네가 분명 여섯 식구라고 했는데 세어보니 일곱이 아닌가. 그래서 자네가 미리 와서 나를 시험 하려는 것을 알았다네.”

두 사람은 한바탕 웃고나서 시체를 염하기 시작하여 모두 깨끗이 정돈한 다음 이른날 노비를 불러 장례를 지내주었다.

오랑(吳娘)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천민출신이지만 재질이 뛰어나서 학식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아니라 자색이 곱고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까지 지녔다. 오랑이 평소 중인의 정실이 되기보다는 의기가 서로 투합하는 양반의 부실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랑의 눈에 비친 뜻이 통하는 젊은이가 다름아닌 오성과 한음이었다.

오성과 한음에게는 나름대로의 매력과 장점이 있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사람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연정을 나누는데, 두사람이 모두 오랑에게 깊은 연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억누르며 서로 양보하여 상대에게 부실로 삼기를 권하였다. 결국 한음은 가정이 부실을 들일만한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오랑은 오성 쪽으로 마음을 정하였다.

오성과 한음은 나란히 선조조때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정열을 받쳐 국사를 유감없이 돌보았다. 동료간에는 물론 군

“  
 오성은 속으로  
 당황하였으나  
 전혀 내색을 않고  
 도포자락을 양손에  
 감아쥐더니  
 목청을 돋우어  
 꼬꼬댁하면서 닭이  
 활개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더니 선조대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소신은 수탉이  
 되어서 계란을  
 못가져 왔습니다.”  
 이 기발한  
 임기응변에 군신이  
 모두 박장대소  
 하였다.”

신간에도 자칫 소원할 수 있는 관계를 멧진 해학으로 활력소를 불어넣었으니 그중에도 오성의 임기응변은 기상천외한 것이 많았다.

어느날 조회를 파한후 군신이 잠시 휴식하는 시간인데 오성이 자리에 없었다. 한중신이 말하기를,

“오성은 임기응변에 능하니 만일 내일 조회를 파한후 탐전에 계란을 한개씩 늘어놓기로 정하면 이 사실을 알지못한 오성은 계란을 가져오지 못할테니 어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하고 제안하여 군신간에 그렇게 정하기로 약조하였다.

이튿날 과연 조회를 파한후 삼상육경이 차례로 도포소매 속에서 계란 한개씩 꺼내어 탐전에 늘어 놓았다. 오성은 속으로 당황하였으나 전혀 내색치 않고 도포자락을 양손에 갈라 쥐더니 목청을 돋우어 꼬꼬댁하면서 닭이 활개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더니 선조대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말이,

“소신은 수탉이 되어서 계란을 못가져 왔습니다.”

이 기발한 임기응변에 군신이 모두 박장대소하였다.

그후 몇달후 어느날 조회를 파하고 보니 오성의 모습이 또 눈에 띈다. 어떤 신하가 제안하기를, 지난번에는 계란을 가져오기로 했다가 모두 암닭이 되는 수모를 겪었으므로, 이번에는

명일 조회후 고추장 한종지씩 탐전에 늘어놓으면 제아무리 오성이라한들 어찌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모두들 찬성하였다. 이튿날 조회를 파한후 또 삼공육경이 차례로 고추장 종지를 꺼내어 탐전에 늘어 놓는다. 오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탐전에 털석 주저앉아 대님을 풀더니 바지가랑이를 걷고 장단지를 앞으로 내밀면서,

“소신은 장단지째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모두들 오성의 재치에 감탄하였다.

#### 임란극복과 오성의 활약

선조 25년 4월 13일 왜적 15만 8천명이 바다를 건너와서 부산에 상륙하니 일찌기 율곡 선생이 주장한 십만양병론을 무시하고 태평세월을 구가하던 조정에서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다. 조정에서는 부라부라 신립 장군으로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령을 지키게 하고, 이일 장군에게도 3천명의 병력을 가지고 상주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도원수 김명원에게는 수도방위의 중책을 맡겼다.

그런데 신립 장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령을 포기하고 후퇴하여 충주 달래강 앞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다가 패배하고, 상주를 지키던 이일도 임무에 실패하니 왜적





은 무인지경으로 서울을 향해 진군하여 왔다. 급보가 빗발치는 가운데 조정에서는 긴급 군신회의를 열어 피난을 떠나기로 하였다.

4월 그믐날 비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였지만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부랴부랴 여가를 모신 대소관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백리 이내로 왜적들이 접근해온 급박한 처지이니 피난준비를 할 틈도 없었다. 비를 맞으며 궁궐을 빠져 나가는 초라한 행렬을 보면서 통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신하들이 모두 걸어서 여가 뒤를 따르는데 이 환난 중에도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이 죽을동 살동 잘도 따라간다. 이 꼴을 본 오성이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의아한 표정인데,

“각기중에는 난리탕이 역

시 제일이야.”

하는 말을 듣고는 모두 웃음을 금치 못했다. 이는 허준이 평소에 각기중이 있음을 핑계하여 평교자를 타고 대궐출입을 한 것을 꼬집는 말이었다.

한 신하가 긴 한숨을 쉬면서,

“이 난리를 하필이면 우리가 겪어야 하나.”

하고 원망조의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오성이 얼른 대답하기를,

“이 난리가 전에 일어났다면 당신 부모나 조부모가 겪었을 것이요, 후세에 일어난다면 아들이나 손자가 겪을 것인즉, 몸소 내가 겪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소?”

하니 모두들 숙연히 그 말에 긍정하는 표정들이었다.

무학재를 넘어서 허위단심 임진강 나루터에 다다른 것은 이날 밤이었다. 군신이 모두 지치고 춥고 배고프나 적

군의 추격이 다급하여 급히 강을 건너야 하는데 사방이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니 진퇴양난이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때 오성이 강언덕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지르니,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져서 군신이 모두 배를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 화석정은 울곡 선생께서 일찌기 앞날을 내다 보고 정자를 지을때 기름과 유황을 먹인 재목으로 집을 짓고 이 비밀을 오성에게 전하였다는 것이다.

간신히 강을 건넌 일행은 밤새도록 걸어 이튿날 아침 개성에 도착하여 조반을 지어먹고 또 쉴새없이 길을 재촉하여 평양을 향해 떠났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500리 길이다. 십여일 만에 간신히 평양성에 도착한 군신들

이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데, 부상하던 왜군이 만일을 위해 길을 나누어 함경도로 피난을 갔던 왕자 임해군과 광해군을 생포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다시 평양을 버리고 의주로 파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오성은 임금을 지척에서 모시는 도승지였고 한 음은 이조참의였다. 왜적은 침략 40여일 만인 5월 20일 평양에 입성하였는데 불행중 다행인 것은 왜장 소서행장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않은 점이었다. 그것은 당초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니 수군이 서해를 북상하여 평양에서 만나 서로 협력하기로 되었으나, 이순신 장군의 연이은 대첩으로 남해안에서 발이 묶여 서해로 진출을 하지 못했던 탓이다. 또 적장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의 사이가 서로 시기하고 견제하는 입장이어서 협력하지 못한점도 원인이었으니 조선의 국운이 이때 무너질 만큼 쇠한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의주에 주둔한 선조는 초조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왜군을 물리칠 방도는 오직 명나라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차례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했지만, 명의 조정에서는 마지못해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주둔지의 조승훈(祖承訓)을 보내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였다. 8월에는 유

격장군 심유경을 보내어 강화담판을 벌인다고 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이 시절 선조대왕이 초조한 자신의 심회를 읊은 시한수가 있다.

압록강에 부는 바람 나의 시름만 더해지고

산상(山上)에 달을 보며 통곡하노라.

오늘의 쓰린 경험 잊지 않는다면

그 누가 동서(東西)로 다툼 것인가.

### 명나라 외교에 열킨 이야기

다시 명의 구원요청을 위한 군신회의가 열렸다. 이때 오성이 충신 정곤수를 사신으로 보내면 틀림없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진언하였다. 대소 신료들은 모두 오성의 안목을 믿고 이 말에 찬성하여 정곤수를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다.

워낙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되어 다소 원망하는 기색인 정곤수를 오성이 불러 밀봉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리 저리하라고 계책을 일러 주었다. 정곤수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오성의 말을 믿기로 하고 길을 떠났다. 급히 말을 몰아 남경에 도착하는데로 황극전 뜰앞에 자리를 깔고 엎드려 대성통곡하기를 밤낮 5일간 하였다. 그 날밤 신종황제가 꿈을 꾸는데 홀연 한 대장이 적토마를

타고 달려와서 부복을 했다. 삼각수의 긴 수염과 청룡도를 빛겨든 모습이 듣던바 관운장의 모습임을 한 눈에 알겠다.

장군이 우렁찬 음성으로 아뢰기를 ‘소장은 한소정후 관운장이며 폐하는 소열제 유현덕 형님의 환생 후신입니다. 지금 왜군에 쫓기는 조선왕은 아우 장익덕의 환생입니다. 소장이 왜군 침략을 한성 동대문과 남대문에서 저지하려 했으나 유명이 다르기로 실패하였습니다. 폐하는 속히 파병하시어 곤궁에 빠진 조선왕을 구해 주십시오. 폐하께서는 부디 우리들의 도원결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하고 간청하였다. ‘그렇다면 장군은 어찌 환생을 못하였소?’하고 신종이 물으니 ‘그것은 안량 문추 두 장수를 억울하게 죽인 업보 때문입니다.’ 대답을 마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난 신종이 너무도 기이한 어제밤 꿈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 사신 정곤수가 대궐 앞에서 밤낮 5일째 단식 통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종은 어제밤 꿈의 일이 생시같이 생생한데다 정곤수의 일을 가상히 여기고 드디어 영을 내려 운남성장 이여송으로 하여금 정병 4만을 이끌고 조선을 구하기 위해 출병토록 하였다. 정곤수의 진심어린 단식 통곡이 천지신

명을 감동케 하여 신종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였다

한편 이여송은 4만 군사를 이끌고 도성 50리 밖에 진을 친후 급히 조선사신 정곤수를 잡아들이라 하니 남의 나라 일로 사지로 떠나게된 분풀이를 하려는 것이었다. 이여송 앞에 끌려온 정곤수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품속에서 오성이 준 봉투를 꺼내어 올렸다. 이여송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봉투를 뜯어보니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중국 역대 대장록이다. 읽어보니 표모 한신이며 오호장군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 복파장군 마윈, 당장 설인귀를 비롯하여 죽 읽어내려 가는데 대명 신종황제때 삼국명장 이여송 조선구원군도원수라 쓴 것을 보고는 기분이 좋아져서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자신의 이름이 관운장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명장 반열에 나란히 올라있으니 어깨가 으쓱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명 조선 일본 교전대상국의 명장이 된다했으니 이것은 필시 조선에 이인이 있어 내가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여송은 즉시 영을 내려 조선사신을 석방하고 잘 대접하라 이르니 죽었던 정곤수가 다시 살아났다. 기분 좋게 다시 출병한 명군은 임진 12월 압록강을 건너니 조정

에서는 접빈사 이덕형 도승지 이항복으로 하여금 이여송을 영접케 하였다. 첫대면에 이여송은 말 위에서 거만을 떨었다. 이때 미리 준비한 조선팔도 지도를 건네 준 것은 도승지 이항복이다. 이여송은 조선측의 빈틈없는 준비에 내심으로 감탄하였다.

며칠간 휴식하는 동안 이여송이 대왕을 뵈옵겠다 하거늘 오성은 생각했다. 이여송에게 조선임금의 위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선조대왕의 음성이 작은 것이 문제였다. 오성은 음성이 크고 우렁찬 신하 한사람을 큰 독속에 들어가게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여송을 어전으로 불렀다. 이여송이 예를 올리니, “장군은 본래무량하며 기만리 원정에 노고가 많소. 앞

으로 진심각력하여 조선국을 도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 주시오.”하고 대왕이 말하는데 그 음성이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이여송이 그만 감복하여 힘껏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또한 접빈사 이덕형과 오성 두 젊은이를 사귀면서 두 사람의 인품에 이끌려 조선을 소국이라고 업신여기던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이 해가 끝날 무렵 조명연합군과 서산대사의 승병들이 합세하여 총공격을 감행하니, 왜적들이 대패하여 남으로 도망가고 평양성이 수복된 것은 이듬해인 계사년 정월이다.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한 조명연합군은 그러나 벽제관에서 왜장의 호접진에 말려들어 패전하였고, 이여송



은 풍지가 빠지도록 후퇴하여 평양성에 처박혔다. 왜군은 서울로 집결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반격을 피하려 했으나, 2월 권을 장군의 행주대첩이 치명타를 주어 그들의 책략은 무산되고 남해안으로 후퇴하였다. 이 해 10월 임금이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불타버려 월산대군의 사저에서 집무를 보았다고 한다.

### 오성의 마지막 일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끝나고 30여년 후 광해군이 등극하였다. 김상궁의 유혹에 빠진 광해군은 폭군이 되어 형 임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 마저 시해한후 계비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난정을 행하니, 원로대신 오성은 차마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광해군의 부당함을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

광해군의 미움을 산 오성은 복청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고, 머지 않아 유배지에서 생을 마치니 수 63세였다. 이곳까지 따라가서 수발을 들던 오랑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인조반정에 얼킨 이야기를 소개하면, 임진병란 후 오성은 선조대왕이 총애하는 신하로써 때로는 대왕의 거실로 초대받아 정담을 나누기도 했다. 어느해 정월에 대왕의 거실에서 오성이

배알하여 군신간에 정담을 나누다가 대왕이 왕자와 왕손들이 쓴 글씨며 그림들을 오성에게 보여 주었다. 여러 글씨와 그림을 보고난 오성이 그 중 능양군이 그린 말그림을 들고 '전하 이 그림을 소신에게 주십시오'하고 요청하였다. 대왕이 허락하니 오성은 말그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퇴직하였다.


그후 세월이 흘러 광해군의 폭정이 극심하니 오성은 머지않아 반정이 있을것을 짐작하고 이를 수행할만한 기개있는 젊은이들로 김류이귀 장유 등을 은근히 눈여겨 보았다. 어느날 오성은 김류를 년즈시 불러 능양군의 말그림을 내어주면서 '그대는 앞으로 사직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다음과 같이 일러 주었다. 우선 삼각산 가는 어귀에다 집 한채를 짓는데 사랑채를 깨끗이 지어 사랑문을 밖으로 내고, 사랑문에서 마주 보이는 벽에다 이 말그림을 걸어놓고 때를 기다리라 하였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말그림을 보고 찾아오면 그 사람과 앞 일을 의논하라고 당부했다. 그후 오성은 귀양을 갔다가 별세하였고, 김류는 오성의 말대로 삼각산 길목에다 집을 짓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왕손들은 어느때 자신에게도 불뚱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날 왕손 하나가 삼각산 구경이나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도중에서 소낙비를 만났다. 급히 주위를 돌아보니 가까이 조출하게 꾸민 집 한채가 있어 비를 피하려고 그집 추녀밑으로 들어갔다.

왕손이 추녀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무심코 집안을 들여다 보니 사랑채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자신이 옛날에 그린 말그림이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 왕손이 바로 능양군이였다. 깜짝 놀란 능양군은 주인을 불러 말그림의 임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수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로부터 본격적인 반정모의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귀 부자, 장신 형제와 원두표 등을 규합하고, 어영대장 이홍립, 북병사 이팔, 김자점 등을 포섭하여 계해년 2월 드디어 광해군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거두니, 앞날을 내다보는 오성의 혜안이 인조반정에 까지 숨은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필자가 60여년전 장터에서 파는 엽전소설 <오성과 한음>에서 읽은 내용들이 하도 재미있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낸 것들이다. 오성과 한음의 일화는 이밖에도 많으나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은 제외하였다. 

## 文化遺蹟 발굴

## 利川郡 新屯面 一帶의 支石墓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研究室

利川지역 유형문화재들에 대한 조사는 문화원이 1978년부터 3년간에 걸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자료들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후 계속 조사가 이어져서 원만큼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사시대 유물·유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중점조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문화원에서는 원적산 자락을 낀 신둔면·백사면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에 주목하고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선사유적지표조사를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研究室에 의뢰하였다. 92년부터 94년 봄까지 만 2년간에 걸친 일차 신둔면지역 지석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암리, 장동리, 도봉리, 남정리, 지석리, 수하리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지석묘들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지석리 지역은 600여기에 달하는 대규모 지석묘 군집지역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들에 대한 성격이나 연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차원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이와같은 대규모의 지석묘 군집지역이 확인된 예는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번 조사의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 編輯者 註 -

## 1. 우리나라의 支石墓

우리나라의 靑銅器文化는 대체로 요녕지방의 청동문화와 연결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시베리아의 스키타이 청동문화(B. C. 1700—B. C. 200)와 연관을 가지고 B. C. 700년경에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청동기문화는 韓國式銅劍인 일명 細刑銅劍이 完成되는 B. C. 300년까

지를 靑銅器前期 즉 I期로 보고, 서력기원 개시전후까지를 後期 즉 II期로 구분되고 있다. 청동기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집자리와 墓制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유물로는 집자리와 무덤에서 출토되는 잘 研磨된 土器와 石器, 그리고 소량이지만 銅器를 들 수 있다. 집자리는 I기부터 II기까지 큰 변화없이 대부분이 원형이나 타원형, 그리고 장방형의 반지하식 竪穴집으로 여러가구가 밀집하여 무리를 이루

신둔면 일대의 지석묘 지표조사에 의해 특히 신둔면 支石里에는 규모와 양에 있어 전국의 어느 선사유적과도 견줄수 없는 지석묘군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석묘에 사용했던 돌들을 채취했던 채석장으로 추정되는곳 까지 확인하였다.

고 있으나 묘제는 I기와 II기가 각각 다르다. 청동기 I기의 묘제는 支石墓와 石箱墳이 있다. 이중에서도 지석묘의 경우 유럽의 북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지중해를 거쳐 동유럽과, 남부인도, 중국산둥반도, 요녕반도, 한반도 일부지역과 일본서부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탁자형(北方式)과 한반도의 남부지역에 많이 발견되는 남방식이 있다. 북방식 탁자형 지석묘는 長方形의 板石 4, 5개를 세워 지상에 石室을 만들고 그 위에 장방형의 대형판석을 蓋石한 것으로 매장부가 지상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동강, 임진강, 강화도 등 큰강의 상류지역에서 群을 이루면서 발견되고 있으며 남방한계는 대체로, 수원, 용인에서 북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선이 된다. 그리고 그 소멸시기는 북한지역에 鐵器가 들어오기전인 늦어도 B. C. 300년경으로 추정된다. 남방식 지석묘는 땅을 파고 그안에 石棺, 또는 甕棺을 매장하고 그 위에 소형 판석으로 上石을 받쳐 매장부가 지하에 있다. 우리나라의 남방식 지석묘의 분포는 주로 전라도, 경상도의 해안지대 또는 낙동강, 영산강, 금강등의 유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의 일원까지 北上해 있다.

## 2. 利川地方의 支石墓

용인군, 여주군과 더불어 남방식 지석묘의 북방한계 근처인 이천군 일대에도 지석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들 지석묘는 이천군에서도 新屯面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웃의 栢沙面 麻長面에도 상당수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利川文化院의 조사의뢰에 의하여 지난 1992~1994년간 海剛陶磁美術館에 의해 실시된 신둔면 일대의 지석묘 지표조사 결과, 특히 신둔면의 支石里에는 규모와 양에 있어 전국의 어느 선사유적과도 견줄 수 없는 지석묘군이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석묘에 사용했던 돌들을 채취했던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주변의 道峰2里, 道岩1里, 道岩2里的 지석묘는 하천을 낀 평지에, 南井里와 水下里的 지석묘는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長洞里는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지석묘 분포의 상하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遺蹟임을 알게 되었다.

신둔면 지석묘 지표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京畿道 利川郡 新屯面 道峰2里, 道岩1里, 道岩2里, 南井里, 水下里, 支石里, 長洞里 일대에 해당하며 지도상으로는 동경 127° 25' 에서부터 127° 27' 30", 북위 37° 18' 50" 에서부터 37° 20' 50"까지로 서울과 강원도 지역을 잇는 국도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신둔면은 이천군의 북쪽 鼎蓋山을 경계로 廣州郡 實村面과 인접해 있고 동쪽에는 天德峰과 圓寂山을 경계로 栢沙面과 인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麻長面과 廣州郡 實村面 그리고 都尺面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新屯川을 경계로 利川郡과 인접해 있는 이천군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신둔면 지석묘 조사지역은 신둔면 소재지에서 북동쪽 백사면으로 이어지는 192번 지방도로 약 3km지점에서 부터 시작하여 길을

중심으로 남북에 걸쳐 신문면이 끝나는 지점 약 6km까지 계속된다. 도로 북쪽에는 장동리와 지석리 두곳에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천에 가장 높은 산인 圓寂山의 서남줄기인 소당산(鼎蓋山 해발406.7m)산자락 아래의 구릉사면으로 지석묘는 대체로 구릉의 사면 아래쪽 해발 100~150m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에는 남정리와 도암리, 도봉리, 수하리에 각각 지석묘가 분포해 있는데 이들은 해발 60m정도의 평지와 구릉위에 위치한다. 주변의 유적 현황으로는 지석묘가 있는 지석리의 동편 소당산자락 아래 지석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積石墳이 약 11기 정도 있고 송정리에는 토기편과 철편이 출토된 바 있는 초기백제시대의 石槨墓가 있으며 장동리에도 토기편과 철침 등이 출토된 백제초기의 석곽묘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은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매몰 또는 형질 변경되어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견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그 내용이나 주변유적과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신문면 지역의 청동기 문화유적인 지석묘의 분명한 존재는 이 지역에서 다른 선사유적인 집자리등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된 지석묘 분포현황은 조사자의 기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도암 1리에 3기, 도암 2리에 2기, 장동리에 4기, 도봉 2리에 11기, 남정 2리에 7기, 수하리에 4기, 지석리에 600여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각지역에 조사된 지석묘의 현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道岩 1里 지역

도암 1리 지석묘군은 도암국민학교 남쪽 소나무숲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70m의 낮은 구릉으로 지석묘는 자연소로의 좌·우편에 방치되어 있었다. 上石의 크기는 장축 250~300cm, 단축 170~250cm, 높이 80~100cm의 대형자연석으로 본래의 형태에서 크

게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본래의 자리에서 좌우, 상하로 약간씩 이탈된 것 같았다. 따라서 각각의 支石은 상석의 이탈로 인하여 지상에 노출되어 상석의 주변에 흩어져 있다. 지석은 소형자연석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30×100cm정도이다. 장축방향은 正北이거나 東西방향이고 유물이나 성혈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에 다른 유적의 확인도 없었다. 도암 2리의 지석묘군은 도암 1리에서 192번 지방도로를 따라 수하리 쪽으로 약 300m정도의 마을안쪽 서편의 마지막 민가 옆에 있는데 이곳은 해발 70m의 낮은 구릉으로 이 구릉의 동편에 2기가 있다. 2기의 지석묘는 모두 지상에 上石의 하단까지 노출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방치되어 있다. 상석의 크기는 150×220cm, 235×326cm의 대형자연석으로 크게 파손되지 않은 완형이지만 後代人이 이름을 새겨놓았으며 본래의 장소에서 약간 이탈한 흔적이 보인다. 지석은 확인할 수 없었고 장축방향은 거의 正北에 가깝다. 성혈과 비슷한 흔적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다른 유적이나 유물의 출토는 없었다.

#### ② 南井 2里 지역

남정 2리의 지석묘군은 192번 지방도로 남쪽에 있는데 남정리를 지나 수하리 쪽으로 가다 양지원농장 안쪽으로 약 150m지점의 소로 서편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명 한성부 뒷산이라고 하는데 해발 90m의 구릉으로 남쪽으로 계속가면 남정 1리가 나온다. 소로의 서편에는 7기가 있다. 7기 모두 상석의 하단까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별다른 파손없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1호에서 7호까지 약 50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래의 장소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석은 대형자연석을 특별한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 같으며 크기는 장축이 150~300cm, 단축이 70~220cm, 높이 30~100cm로 각각 다른 크기로 형태도 장방형, 타원형, 사



◀ 도암 1리의 지석묘군  
(전면 숲밭일대)

다리형 등 다양하다. 지석은 확인할 수 없었고 장축방향은 거의 南-北방향이다. 성혈이나 기타 다른 특징은 없고 주변에 다른 유적이나 유물의 출토는 없었고 7기 모두 비슷한 石質로 副葬年代가 거의 비슷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 ③ 長洞里지역

장동리의 지석묘군은 다른지역의 지석묘군보다 높은 해발 200m 지점의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장동리 마을회관 뒤편의 산길을 따라 약 250m를 올라가면 民墓 4기가 있는데 이 민묘 주변에 지석묘 4기가 각각 원래의 장소를 이탈한 채 흩어져 파손없이 방치되어 있다. 상석의 하단까지 지상에 노출된 것도 있으며 상석의 상면만 지상에 노출된 것도 있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이 185~340cm, 단축이 110~180cm, 높이는 48~110cm로 각기 다르며 형태도 장방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으로 각기 다른 대형자연석을 사용하였다. 성혈이나 다른특징은 없고 지석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동리 지석묘군은 주변환경을 고려해 보건데 낮은 구릉과는 거리가 먼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가까운 곳에서

다른 지석묘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석묘가 아닐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 ④ 道峰 2리 지역

도봉 2리의 지석묘군은 현재까지 그 현상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석묘들 간의 관계나 성격을 추정하는데 매우 좋은 상태이다. 남으로 하천이 있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엽과 부토에 쌓여 오래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상에 노출된 지석묘보다 지표하에 묻혀있는 지석묘가 더 많다. 확인된 지석묘의 수는 총 11기였다. 상석은 대형자연석을 별다른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 같으며 크기는 장축 150~440cm, 단축 60~300cm, 높이는 상석의 하단까지 드러난것은 140cm가 가장 크고 상석의 上面만 겨우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형태는 방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등 다양하고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장축방향은 주로 東-西방향이고 지석이나 성혈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변에 주거지와 같은 다른 유적이 있을 수 있으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모두 논이어서 다른 유적이나 유물의 존재는 확인할 길이 없다. 11기 모두 비슷한 석질로 부장연대가 비교적 비슷한 것 같고 북동모서리에





▲ 지석리 지석묘 22호

지석리 지석묘 221호 ▶



있는 지석묘가 가장 크고 나머지 지석묘들은 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퍼져있다.

### ⑤ 水下里 지역

수하리에는 지석묘가 두군데 분포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현재 보호각이 설치되어 보호되어 있고 다른 한군데는 이번조사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현재 보호되어 있는 수하리 지석리묘는 장축이 400cm, 단축이 240cm, 높이 80cm이며 장축방향은 北東~南西방향이다. 상석의 하단까지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성혈이나 특정한 표식은 없다. 경지정리가 진행되기 이전에 몇기의 지석묘가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단 한기만 남아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예전에 이곳에서 돌칼이나 화살촉들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다른 지역의 지석묘군은 수하리 마을안쪽의 해발

70m의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두 3기가 길양편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다. 3기 모두 상석의 하단까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2기는 장축 260~270cm, 단축 160~110cm, 높이 50~70cm로 비교적 크지만 1기는 규모가 작아 94×56cm, 높이 38cm로 2기와는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있다. 특히 지석묘의 상석 상면에 나무침을 박았던 구멍의 흔적이 열을지어 있어 흥미롭다.

### ⑥ 支石里的 支石墓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조사자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 지석리의 支石墓群이었다. 우선 이 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지석묘의 분포범위가 광범위하고 수량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많아 지석묘의 진위여부가 가장 문제시되는 곳 이었다. 그러나 일단 자연적인 경계를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하




<도봉리 고인돌>



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범위는 크게 5개지역으로 나누어 구릉아래에서 부터 구릉위로 옮겨갔다. 산록아래의 평지에는 대략 400cm가 넘는 대형지석묘와 주변의 소형지석묘가 마치 부속되어 있는것처럼 분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본래의 장소를 이탈한 듯 주변에 지석들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구릉위로 갈수록 지석묘의 규모는 축소되어 간 듯하고 지석묘와 비슷한 돌들도 많았다. 특히 소당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의 좌우에는 지석묘에 사용한 돌들을 채취했던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곳도 있어 매우 흥미로왔다. 지석묘의 크기는 장축이 100~500cm, 단축이 100~300cm, 높이가 100~500cm로 다양하고 형태도 장방형에서 부정형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나 지석묘 이외의 다른 유적이나 유물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토대로 이 지역에 있는 지석묘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선사유적지와 마찬가지로 이천지역에도 하천이나 낮은구릉주변에 청동기문화인 지석묘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신문면 북단에 있는 소당산의 아래에는 낮은 구릉사면과 개울, 채석지등이 있어 청동기인들의 군락지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석묘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은 시대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동시대의 신분질서를 나타낸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장축방향은 장소를 이탈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南-北방향으로 죽은자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하는 부장 풍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기대만큼 많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발굴을 통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주민과 행정담당자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箱根 · 東京 · 日光을 보고

韓 勝 男

(이천군청 문화관광계장)

7월 25일(日)

오전 8시 47분에 신간선 특급열차를 타고 교오또역을 출발하여 미시마(三鳥)로 향하였다.

1인당 열차비용은 10,790엔이 소요되었으며 신간선은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1964년 동경에서九州까지 부설되었는데 고속전철 최고 시속은 230km라 한다. 그리고 오사카-동경선은 1일편도 148회로 흑자운영이라하며 그래서 '화물은 자동차 사람은 기차로'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한다. 우리 국민들도 먼거리 여행에는 대중교통인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차창 밖으로 썩의 꼬리털로 깃대 꼭대기에 높다랗고 보기 좋게 장식한 썩의 장목을 한 農旗를 논옆에 세워 놓은

것이 보였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나라 농촌사람들이 논에 김을 매면서 논둑에 꽂아 놓던 것으로 우리의 농경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어 생겨난 유습인지도 모르겠다. 마치, 1960년대 말 논에 김을 매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우리농촌에서는 사라진 추억의 풍경을 보는것 같았다. 揖斐川등에 하상이 정리안된 상태로 고수부지에 버드나무등이 자유롭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논가운데 성황당 같은것이 있고 神社가 있으며, 오래된 숲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마치 강원도 대관령 넘어 하천가에 당집이 있고 숲으로 보존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가끔씩 볼 수 있었다.

창고인듯한 낡은 스테이트 집과 썩은 함석지붕이 몇 채

오사카-동경 철도는 1일편도 148회로 흑자운영이라고 하며 그래서 '화물은 자동차, 사람은 기차로'라는 구호가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도 먼거리 여행에는 대중교통인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보이나 기와지붕이 대부분이고 목재로 새로 잘짓는 2층 집도 있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교회건물은 이상하리만치 보이지 않으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전래된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크게 세력을 펴지 못했던 탓이다.

역주변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간선농로에 소형 승용차 혹은 화물차를 세워 놓고 예초기로 논두렁풀을 깎는 농부가 매우 드물게 보이니, 아마도 게으른 농부가 이제야 풀을 깎는듯 주위 논두렁은 말끔이 단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농촌사람들은 논두렁에 풀을 베지 않고 제초제를 뿌리므로 인하여 빨갛게 죽은 풀이 들가운데 많이 눈에 띄는데 일본에서는 겨우 한두군데에서 보았을 뿐이다.

9시 26분 나고야(名古屋)역에 도착한 열차가 5분 쉬고 다시 출발하였다. 들가운데 얽매듯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비석같은 커다란 立石이 보이고 같은 마을 사람인듯한 10여명이 풀을 베고 있었다. 가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가정집에 개가 어찌다 보이는데 모두 줄에 매어 놓았다. 그리고 어제 시가라키(信樂)시내에서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 닭장 속에 가두어 키우고 있었다.

태평양인듯한 바다가운데

붉은색의 커다란 신사건물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대구 근교농업에서 볼수 있듯, 논에 재배한 연이 꽃을 피우기 시작 하였다.

10시 좀 지나 浜松역에서 2분간 정차한뒤 다시 달리기 시작 하였다. 열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어찌다 보였으나 좌석앞에 달린 책판을 펼쳐놓고 무엇인가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다. 열차안에 물건 파는 점원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차칸을 넘나드는데, 들어 올때나 나갈때나 반드시 정중하게 목례를 하는데 형식적이지 아니라 매우 진지한 모습이였다.

교외 놀이터에 풀장이 있고 각종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논주인을 따라 나온 까만색의 큰개가 경지정리된 농로에서 경중경중 뛰는 모습도 보이고, 분무기통을 어깨에 메고 농약을 살포하는 농부의 모습도 볼수가 있었다. 신간선 열차가 산속을 지나는데 양쪽 산비탈 및 언덕에 그림같이 가꾸어 놓은 차밭이 많이 전개되어 있다. 국토의 80%가 산인 일본이고 보니 耕以登天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싶었다. 차밭을 일구어 하늘로 오르는 일본인의 근면성이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루었음 이렸다. 이곳은 東海지방으로 기후가 따뜻하기로 유명하고

아울러 야채·딸기·밀감·양계, 특히 차의 유명한 생산지로 이름이 났다.

10시 30분에 静岡역에 도착, 4분간 정차하고 다시 열차가 달리는데 철길을 내다 보니 침목은 콘크리트제품이였다. 11시 막 지나 三島역에서 하차한 우리는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하꼬네로 향했다. 三島 시내 한 神社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다. 안내자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감기약등 양약이 일본제 60%, 서양제 30%, 국산은 겨우 10% 안밖이며,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백설표설탕도 일본 총판매장에서 수입하여 가공없이·겨우 포장만 바꾼 설탕이라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므로 인해 똥똥해 지는 어린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보건당국은 설탕 덜먹기 운동을 서둘러야 하겠다. 그리고 대우가 제작하는 차의 부속으로 베어링 72개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모두 일본제품이라는 것이다.

관광안내를 맡은 재일교포 이종완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1시 45분 하꼬네(箱根)에 도착하였다. 소낙비가 쏟아진다, 장마철이라 집에서 가지고 간 우산덕을 톡톡히 보았다. 먹는것 외에는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철저한

■ 大涌谷 온천 ■

우측상단으로 비구름에 가려진 부분이 자욱한 수증기와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온천수가 솟구치는 곳이다.



각오로 짐스럽지만 우산을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는 나만이 아니라 일행 대부분이 우산을 집에서 가지고 갔으며, 두 세명만이 1회용 비닐 우산을 샀다.

점심을 마치고 12시 반을 지나 아시노호수로 배를 타러가다가 선물을 파는 상점에 들러 쇼핑을 하였다. 우리네 습관대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들고 가게안에 들어서니 주인이 반기지 않고 우산에만 눈길을 주기에 이상하다 생각한 우리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은 모두 우산을 비닐 속에 넣어두고 있었다. 입구쪽을 살피니 우산을 넣는 비닐포장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비에 젖은 우산을 비닐포장에 집어넣고 쇼핑을 하였다.

상점을 나와 배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데 소낙비가 폭우로

쏟아지건만 많은 관광객들이 두줄로 늘어선 승선을 기다렸다. 오후 1시 35분 배를 타고 30여분만에 하선하여 수증기가 자욱한 계곡으로 올라갔다. 여기저기에서 온천수가 부글부글 솟구치고 있었으며, 소낙비로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이 제법 많은데 수온은 미지근 하고 손을 닦으니 미끈거렸다. 그리고 유황냄새가 진동하는데 계란냄새와 같았다. 大涌谷에서 온천수증기에 익힌 계란1개를 500엔 주고 사서 먹었는데 계란껍질이 까맣고 희끗희끗하게 익었다. 공중변소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파리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관광차가 여자 손님을 쏟아놓으니 여자용 변소가 꽉차 버리니까 일본인 할머니 두 분이 남자 변소로 들어와 용변을 보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꼬네

(箱根)에서 두번째 높은 駒岳(1327m)에 올라 전망대에 올라 갔으나 구름과 소낙비로 시야를 가려 볼거리를 보지 못했다. 승강기에는 처녀가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출입구에 세로로 '箱根神社交通安全祈禱神璽'라는 얇은 나무로 새긴 조그만 패가 걸려 있었다.

2시 38분 大涌谷을 출발하여 내려오는데 산길에도 車道와 人道를 구획하여 놓았으나 다니는 사람이 없어 人道는 풀로 덮인 곳이 많았다.

3시 14분 나고야에서 동경가는 東明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버스 운전석 머리 위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후진할때 차 뒷편이 TV에 비치니 후진하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3시 30분 편도 3차선 도로임에도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오토바이가 차와 차 사이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일본인들은 가정집은 대지가 좁고 또한 건물도 작게지으나 반면 공공건물은 대지도 넓고 아울러 건물도 잘 짓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다. 그리고 흰색차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검정색보다 야간에는 세 배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이로운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고 있었다. 도로 中央분리대 높이가 2층 버스에서도 상대편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높았다. 東京을 향한 상행선 쪽은 도로 정체가 심하나 반대편은 한산하였다. 그리고 도로 순찰차를 구경하기 어려운데 반대편에서 소리가 한 번 들려왔을 뿐이다.

편도 2차선으로 줄어 들었다. 오토바이가 우리차 앞을 지나는데, 앞서 본 그사람들 같으니 아마도 고속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시속한도가 차보다는 하향조정되고 이를 지키는 듯 하였다. 시속 80km를 넘지않는 상태로 우리를 태운 버스가 달리는데, 中井 11km를 앞두고 정체현상이 풀렸다. 그러나 이는 잠시 뿐이었다.

고속도로변 절개지를 보니 바위와 같이 흩이 매우 단단해 보였다. 도로상황 정보판이 약 500여 미터마다 보이는데 동경 소요시간은 60분이라 알려 주고 있었다. 4시 17분 伊勢市를 지나는데 200미터 앞에 정체 현상이 풀리고 오토바이가 지나 가는데 바퀴가 넓고 속도는 저속으

로 운행하고 있었다.

동경 53km를 앞두고 4시 40분 海老名휴게소에 들러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서 최고 고층은 요코하마에 72층이 있고 일본 음식점은 체인형식으로 종업원이 수 년간 솜씨를 익혀 분점을 개설하는데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종업원이 새로 개점을 하면 서로 견원지간이 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에 의거 엔화가 상승하고 일본 경제가 불황을 맞고 있으나 국민 모두 절약을 부르짖으며 공황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고 있다 한다.

5시 20분 동경 시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밖에는 이슬비가 오고 있다. 동경도청은 45층 건물이나 층간 높이가 일반건물 층보다 훨씬 높아 건물 층높이는 굉장히 높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가정집은 대지가 좁고, 또한 건물도 작게 지으나 반면 공공건물은 대지도 넓고 아울러 건물도 잘 짓는 것이 상례화되

어 있다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흰색차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검정색보다 야간에는 세 배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이로운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내 고속도로에서 보니 운전석이 우리와 같이 차 왼쪽편에 있는 차도 어찌다 보이고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는 옆좌석에, 아이는 뒷좌석에 벨트를 매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안전대를 놓은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동경 시내에 조그만 공간에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은행나무가 키만 크고 옆가지는 많이 잘려져 있었다. 도심 가운데 공동묘지가 숲속에 있고 묘비석이 뽕죽뽕죽 섰는데 1개가 1가정 조상들의 유골이 들었다 한다. 쓰레기 소각장에 연기와 냄새가 전혀나지 않는데 농촌 밭가운데에서는 드럼통에 구멍을 군데군데 뚫어 소각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기 또한 그대로 하늘로 내보내고 있었다.

도예인들이 그토록 일본에 자주 드나들었어도 마음놓고 일본관광 한번 제대로 한 일이 별로 없었다고들 술회하

였다. 그들은 공항에서부터 일본 안내자가 안내하는 대로 시키는대로 술마시고, 인터뷰하고, 싸인하고 바로 귀국하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가 지난날의 힘들었던 추억을 되뇌이면서 젊음과 사명이 없었으면 이 짓도 못할 노릇이라고 서로가 위안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였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없었던들 우리 利川の 아니 우리나라의 자랑인 청자·백자·분청이 일본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반문하고 싶다.

역사 發見館이 차창밖으로 보인다. 박물관이라 한다. 동경 시내 도로 양편에 주차장 구획표시를 하얀선으로 그어 놓았는데 어떤 차도 반드시 그곳에서만 주정차 하며 만약 손님을 하차시킬때 잠깐이라도 표시없는데서 하차시키면 운전수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호텔앞에서 내리지 못하고 약 5분이나 걸어서 호텔에 들어갔다. 시계가 6시 10분을 가리켰다. 6시 50분 호텔방에 각자가 짐을 남겨놓고 저녁을 먹으러 갔다. 우리 일행은 한식식당에 가서 불고기로 저녁을 마치고 8시 20분 호텔로 돌아왔다.

<7월 26일(月)>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하여 시내로 산책을 나가니 비가



■ 동경 시내에서 ■

오기 시작하였다. 그대로 돌아와 옥상 목욕탕에 올라가 목욕하고 7시 30분 아침 식사를 하였다. 8시 43분 로얄호텔을 나와 日光으로 향하였다.

9시 7분 동경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탄 관광버스는 편도 3차선인 東北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9시 15분 비가 멎고 맑은 하늘이 보이면서 햇볕이 나기 시작하였다. 東京은 비가 자주 온다고 한다.

차창 밖 논가운데 赤色, 黄色, 白色旗가 가끔씩 보이니 아마 이는 벼의 병충해 발생 농약 살포등을 알리는 깃발인듯 하다. 9시 48분 佐野휴게소에 들려 2,890엔 주고 全日本道路책을 구입했다. 장애자 전용으로 이용하는 버스가 별도 마련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보호자가 장애자들을 하차시키는데 별로 불편이

없도록 차를 꾸민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고속도로 방음벽이 많이 보이며 등나무를 올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였고, 방음벽 앞에 무궁화꽃도 눈에 많이 띄었다. 도로 순찰을 하는 오토바이 한대가 지나가고 2층집 농가가 보이는데 함석지붕이 심하게 녹이 슬어 폐가를 방불케 하였다.

인구 5만 3천여명이 살고 있는 이마이찌(今市)市를 거쳐 11시 7분 東照宮 주차장에 하차하여 궁내를 둘러보고 12시 42분 동조궁을 출발하였다. 그곳에도 공중변소에서 냄새가 나지를 않았다. 유물전시관에 서기 1616년에 만든 혼천의가 있는데 아마도 이는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절에 만든 혼천의를 보고 만든듯하다.

인구 2만 2천여명이 사는 日光市에 있는 東照宮은 徳川



■ 日光市の東照宮 ■  
단청칠대신 순금의 금박을 입혀 호사스럽게 단장하였다.

家康의 영을 위로하고 祭神으로 삼고 있는 신사로 江戸 시대 日光 제 53대 좌주 慈眼文師(天海)의 진력에 의해 창건되었다. 덕천가장은 1616년 75세로 시즈오카의 준부城에서 죽었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 久能山에 神葬이 행해지고 신사건립이 계획되었다. 天海의 주장에 따라 이에 야스의 유골은 久能山에서 日光으로 이장하기로 결정되자 2대 장군 秀忠은 사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동조궁은 1616년 10월 26일 착수하여 이듬해 3월에는 본사. 本池堂, 영묘등의 社殿이 완성되었고, 4월 4일에 유골이 久能山에서 옮겨져, 같은달 17일에 鎮座의 의식이 행하여졌다.

당시 총공사비는 부역, 인부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金 56만 8천량, 銀 100관, 쌀 1,000石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의 통화로 환산하면 200억엔에 상당한다고 한다. 사용된 목재는 30cm×30cm 길이 3.6m의 것이 147,012개, 이것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520km에 달한다. 또한 社殿에 박은 금박은 2,489,900장이나 된다고 하며, 이를 펼치면 약 23,372㎡에 이른다.

여러차례 개축 및 수리를 해왔는데, 현존하는 五층탑이나 陽明門, 三神庫, 本殿등 대부분은 국보 또는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今市市와 日光市를 연결하는 도로에 특별 사적지로 지정된 아람드리 삼나무 가로수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총연장 37km에 달하며, 총 15,139그루로 둘레가 7m가 넘는것도 있으며 하꼬네의 구가도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삼나무 가로수길이라 한다. 동조궁내에 있는 삼나무의 대부분은 지금으로부터

350여년전 주위의 성주가 달리 봉헌할 것이 없자 이들을 옮겨 심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1시 10분 男体山(해발 2,484m)과 黑樽岳사이 해발 1,268m에 있는 中禪寺湖에 도착했다. 그곳에 미리 예약되어 있는 커다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호수가를 잠깐들러 보고, 일본 3대 폭포에 하나인 龍頭폭포 하구를 승강기로 내려갔다. 승강기 조정자는 매우 잘생긴 20대 초 미모의 청년 아니 소년이었다. 국제적인 관광지라 그런지 안내자는 모두 인물이 뛰어난 미모의 소녀나 소년들이 종사케 하고 있다.

용두폭포의 물떨어지는 소리는 굉음이고 장관이었으며 나르는 물방울이 항상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겨울에도 얼지 않은 中禪寺湖 호수는 주위가 21km, 남북 3.5km, 동서 6.5km, 수심은 제일



깊은 곳이 172m이고 평균 수심은 125m라하며 커다란 배가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타보고 싶었다.

3시 10분 하산하는데 도로 좌우에 야생 원숭이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관광객 유치 위해 일부러 놓아 기르는 것 아니냐고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곳에 서식하는 원숭이로 성질이 매우 사나워 차창을 열고 가면 차에도 뛰어 올라 할컹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동물원에서나 보아왔던 나 이기에 신기함마저 들었다.

산을 오르내리는 길은 이로하고개로서 1984년 가을부터 통행이 무료로 되었으며 제일고개와 제이고개로 되어 있다. 제일이로하 고개는 하산하는 전용도로로서 6.5km에 달하며 굴곡이 심한 길로 1983년 개수하였다는 것이다. 제이 이로하고개는 산을 오르는 전용도로로 9.4km인데서 1965년에 완성 개통하였다 한다. 개수전 도로는 너무 좁고 굴곡이 심해 매우 복잡하였으며 커브길이 48개나 되었다는 것이다. 48구비마다 일본어 48자의 운을 붙여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이로하라 하며 길 또한 이로하 길이 되었다는 것이다.

3시 55분 東北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이정표를 보니 東京 126km이다. 논에서 비료주는 농부가 보이고 가축장에



■ 龍頭폭포의 웅장한 모습 ■

분무기로 소독하는 장면을 처음 발견하였다. 일본 양축가는 돼지 똥을 3개월 발효시킨 뒤 비료로 사용하고 돼지오줌등 가축분뇨는 6단 정화시켜 그 나온 물에 금붕어를 키우고 있다 한다. 그리고 냄내도 연소시키므로써 가축우리 주위에서 조차도 냄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축산지도 공무원과 양축업자들을 견학시켜 일본을 배워 그대로 이행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학부형인 자모들이 모여 학교변소 바닥을 비누로 깨끗히 세척하며 특히 유치원생부터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는 가운데서 소를 비육하는 듯한 축사가 보이는데 완전히 하우스 안에서 소를 키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0대 후반인듯한 아주머니가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옆드려 낮으로 논두렁 풀을 깎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에 햇빛이 들지 못하도록 수건을 잔뜩 썼다. 고속도로가 매우 한산한데도 우리를 태운 버스는 시속 85km를 유지하고 달린다. 좀더 빨리 달려주었으면 좋는데 속력을 높이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답답하여 안내자에게 일부러 외국인이 일본에 하루라도 더 체류케 하기 위하여 일부러 달리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일본운전수는 너나

할것 없이 시속 100km를 넘는 법이 없다 한다.

4시 30분 도네강(利根川) 다리를 통과하는데 주위 강둑의 풀을 깨끗히 깎아 놓았다. 들판에 폐차장이 보이고 소방차 및 구급차도 우리나라와 같이 요란스럽게 질주하지는 않아 보였다. 蓮田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 파리를 구경하지 못한 나는 일부러 쓰레기장에 가서야 파리 몇마리를 보았다. 휴게소 옆 주유소를 보니 석유냄새가 나지 않을뿐 아니라 바닥이 깨끗하며, 유니폼차림의 5~6명 종업원들이 각기 수건을 들고 주입기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들어오면 한사람이 주유하고 나머지 종업원들은 모두 차 앞뒤 옆에 매달려 차를 열심히 닦아주는 모습이 참으로 일본인들의 친절인듯 싶었다. 우리나라 주유소는 어떠한가! 차를 주유기 앞에 대고 경적을 울려야 어슬렁 어슬렁 나오는 종업원들의 태도는 불쾌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도 그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다고 타령만 하니 우리는 하루빨리 개혁하여 보수대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일본인들의 근로정신을 배워야 하겠다.

5시 10분 휴게소를 나와 다시 동경으로 향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일본은 하수구를 땅속 깊이 매설하고 바닷가등 인가 멀리 끌고 내려

가 집중식으로 정화시키는데, 시설비는 한여로 800m 거리에 190억엔을 투자하는 곳도 가본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원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하수도 시설을 하니 이천읍 중리천 하수구는 악취가 진동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수도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겠다. 예산이 부족한 우리라고 포기할것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이천읍 커다란 건물물 가진 건축주에게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한시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린바있고 각가정 모두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모으면 일본같이 집중식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5시 40분 동경시내에 들어서니 아침에 나을때와 같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전신주마다 토지지면을 기록한 표찰이 붙어 있다. 시내 하천에 금붕어가 놀고 있으며 자동판매기가 많이 눈에 보인다. 담배 70%가 자동판매기에 의존하여 판매되고 있다한다.

6시 20분 중국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7시 5분 호텔로 돌아와 853호를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카드함에 카드를 넣었다 빼도 문이 열리지 않아 한동안 출입문과 씨름을 하였다.

다께나까씨가 호텔로 찾아와 우리들 일행을 초청하여

가라오케에 가서 노래하며 즐겁게 놀다 돌아오는 길에, 심야로 영업하는 라면집에 들러 라면 한그릇씩 사서 먹고 호텔로 10시 30분에 돌아왔다. 다께나까씨는 해장청자와 거래를 트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의 후의는 유광 열 관장 덕분이다. 그리고 심야영업은 오전 11시 15분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호텔에 돌아오니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 상공에서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고 한다. 내일이면 귀국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다.

## 7월 27일(火)

아침 일찍 기상하여 커튼을 제치고 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매우 좋다. 9시 20분 호텔을 나와 황궁으로 가는데 동경시내 江戸川을 내려다보니 물은 그리 맑아 보이지는 않으나 월척이나 되어 보이는 비단 잉어들이 유유히 놀고 있음을 보았다.

황궁에 도착하니 10시 10분 이었다. 황궁 앞 공원지대에 깔린 잔디가 모두 서양잔디이기에 왜국자생인지 아니면 서양에서 들여온 것인지 궁금하여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였다. 공원지대에는 짝독짝독 전지할 해송이 많았고 그다음에 느티나무이고 조선소나무도 몇

그루 보이는데 역시 전지를 하였다. 벚나무는 많지 않고 궁성밖에 좀볼 수 있었다.

황궁은 둘레에 인공으로 파놓은 垓字(城둘레에 판 연못)로 적이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채웠다. 성벽은 높은 돌담으로 되어 있고 이곳은 東京의 심장부로 그 면적은 30만평이며, 현재 천황이 기거하고 있다. 황거는 제 2차 세계대전때 대파당하여 1968년 6여년간의 공사끝에 재건되었다 한다. 그리고 황거는 徳川家康 3백년의 居城으로 明治元년에 황거로 지정되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高宗 5년(1868)에 明治天皇이 京都에서 이곳으로 서울을 옮긴 것이다.

10시 55분 황거를 나와 불과 몇분 지나지 않은 거리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보았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은 중안관료들 중에서 재무성 직원을 최고로 치고 다음이 외무성 직원을 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무부 직원을 최고로 치고 있다.

11시 10분 도쿄타워에 올라 구경하고 12시 25분 타워를 내려왔다. 공중변소 타일 벽에 꽃으로 수놓은 타일을 군데군데 부착하여 변소 분위기를 좋게 하였다. 우리는 어떠한가? 백색타일만 부착하여 깨끗하기는 하나 무미 건조함을 느낄수 있다.

도쿄타워 1층및 지하층 통로 공간 벽에는 창문을 향해



■ 황거 앞에서 ■

밖을 내다보는 학생을 그려 놓았다. 그리고 창밖 창공에는 비행기가 날고 있었다. 지하층 식당 출입구 벽에는 발돋움한 한 학생이 머리를 추켜세우고 무엇인가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림의 시선을 따라 자세히 살피니 딱정벌레 한마리를 그려 놓았다. 참으로 좋은 교육적 효과를 보리라 기대된다. 우리도 주위환경을 무미 건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배우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장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리라 본다.

일본 어린이들의 장래 꿈을 물으면 빵가게 주인이 되겠다는 어린이가 제일 많고 두번째는 新幹線 고속전철 운전수, 그다음은 세계를 날르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것이다. 이런 어린이의 꿈이나 관료비중을 고려하건데 경제치중, 해외진출을 지향하고

있는 일본 교육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아들 딸에게 정직하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교훈하고 있으며, 딸에게는 존대 말을 쓰지 않으나 아들에게는 반드시 존대말을 쓴다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말로서 그릇된 점을 타이르는데 듣지 않으면 바늘로 찌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갓 건너간 어머니가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위해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보냈더니, 담장이 오기를 '부담스러우니 차후는 다시 이런것을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쪽지와 함께 선물 상당가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의 도서상품권을 보내왔다 한다.

일본인들은 노사가 잘 화합하여 기업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공장을 가나 한결같이

사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다같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명함을 받은 연후에야 비로소 사장이나 공장장, 중역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장이 정년 퇴임후 그 공장 수위로 근무하며 월급 장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데 교수들도 자신을 교원이라 낮추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라이 관습은 아들에게 대를 잇지않고 딸에게 주는데 이는 얼마던지 훌륭하고 뛰어난 사위를 얻을수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한다.

오후 1시 50분 나리따 공항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영종도 국제공항 신설계획이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동북아의 상권이 한국으로 옮겨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비상이 걸렸다 한다. 현재 나리따 공항 활주로를 가지고는 국제화시대에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증설하고자 해도 일본 국회에서 반대하며 현지 주민도 전혀 이에 호응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땅값이 너무 높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한다. 우리나라 영종도 국제공항을 앞당겨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항내에 약 60~70세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머리에 수건 쓰고 유니폼을 입은채 휴지를 줍고 칼로 바닥에 늘어붙은 껌을 제거하고 있었다.




■ 동경타워에서 내려다본 시가지 모습 ■

출국수속을 마치고 한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4시 11분 이륙하였다. 4시 47분 아래를 내려다보니 일본 열도를 벗어나 동해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기내에서 간식을 먹으며 밖을 내다보니 구름위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데 마치 육지에서 구름사이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둥실 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5시 7분 회썬 구름위로 햇별이 반사되어 약간 눈이 부시다. 기내에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려고 'sky shop' 책장을 이리저리 뒤적이다 진주목걸이, 자수정 화장품 등 에서 눈이 멎었다. 모두가 외래품이다. 고민 끝에 외제는 사지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육지를 내려다 보고 싶어 밖을 내다보니 구름이 짙게 일어 전혀 보이지 않았다.

5시 47분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구름위로 해가 잠깐 비치는데 서해쪽은 맑은 하늘이 보인다. 5시 50분 시꺼먼 구름속으로 계속 하강하는 것 같은데 구름장 사이로 마을이 보이고 아파트 및 건물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는데 한강이 보이고 산과 들 그리고 건물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귀는 여전히 멍멍하다.

6시 4분 활주로가 보이더니 바로 바퀴닿는 촉감이 온다. 밖에는 빗방울이 보이며 비행기창으로 빗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다. 6시 15분 비행기를 내려 입국수속을 쉽게 마친후 짐을 챙겼다. 짐 아래야 달랑하니 가지고 간 손가방 하나가 고작이었다.

미리 예약된 이천에서 올라온 버스를 타고 7시 4분 공항을 빠져나오기 시작하였다. 

# 우리고장의 歷史紀行(6)

## — 暮加面 · 大月面 編 —

글 李仁洙  
그림 박호창

### 모가면(暮加面) 편

이천군의 서쪽은 산줄기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乾芝山(411.3m) · 鳳儀山(331m) · 大德山(308.5m) · 磨玉山(415.4m) · 老城山(269m) · 馬耳山(472m)이 차례로 우뚝 솟아 용인군 · 안성군과 경계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마옥산은 높이가 관내에서 세번째로 칩첩한 산줄기가 중첩된 이천의 수호산이다. 마옥산을 경계로 북쪽은 모가면, 남쪽은 설성면이며 서쪽은 안성군 일죽면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모가면은 원래가 母山과 葛麻洞이라 했다. 그러다가 1700년대에 와서 暮山面과 加麻洞面이 되었고, 고종 42년(1905)에 暮面과 加面으로 개칭하였다가 한일합방 이후인 1914년 두 개의 면을 합하여 暮加面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大月面에 속해있던 梁坪里와 新葛里일부와, 음죽군의 鷲山洞일부가 모가면지역으로 편입되었다.

모가면에는 법정리 수효가 11개이다. 陳加里는 원래가 沓麻洞이라 불렀고 加洞里라고

도 했다. 梁坪里의 원래의 명칭은 郡梁里이며, 院頭里는 元頭里, 所古里는 所古之里, 新葛里는 葛山里, 於農里는 於農洞里였다. 豆美里는 待美洞里와 豆亦里 2개의 마을이었고, 그밖에 西桐里, 山內里, 松谷里, 素沙里가 있다.

### 소고리 마애여래상과 삼존불

소고리는 우선 ‘소고지’라는 우리말 지명인 눈길을 끈다. ‘고지’는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명으로 바다로 길게 튀어나온 땅, 즉 곶(串)을 의미하는데, 고지 안쪽마을(串內)이란 뜻의 ‘고잔’이나 ‘고안’이 같은 계열의 지명들이다. 고지 밖(串外)은 고지밖 → 곶밖 → 꽃밭으로 음이 변화하여 전혀 뜻이 다른 ‘花田’이란 마을이름으로 바뀌었다. 고지계열의 지명은 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서해안 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간혹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에서도 발견되는데 해안에서 처럼 산줄기가 길게 튀어나온 경우이다. 소고리도 마옥산 줄기에서 이어진 얇은 산이 길게 튀어나온 지형을 이루고 있어



◀ 소고리  
마애여래상

고지계열의 지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고리 마애여래좌상과 삼존불상은 마을에서 서쪽으로 마옥산에서 이어진 작은 골짜기 안에 있다. 지난 1979년 12월에 利川文化院이 실시한 문화재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골짜기의 지명이 부처박골, 바위의 이름이 부처바위인 것에 착안한 결과였다.

먼저 마애여래상은 동쪽을 향한 높이 약 4, 5m의 넓고 편편한 바위면에 선각으로 새겼는데 불상의 크기는 높이 약 3.7m, 어깨폭 2.4m, 무릎폭 2.7m이다. 선이 유려하고 몸에 균형이 잘 짜여져 있으며, 양련좌위에 결과부좌한 당당한 모습이 솜씨면에서 볼때 관내에서 가장 뛰어나다. 머리는 소발형(素髮形)으로 큼직한 육계가 있고,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늘며 입술이 작고 미소를 머금고 있어 표정이 자애롭다.

통견(通肩)으로 된 범의의 자락이 양쪽 어깨와 팔에 걸쳐 늘어져있으며, 수인(手印)은 양쪽 손을 가슴앞에 올려 손바닥을 안으로 향하여 각각 중지와 엄지를 마주대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미타여래의 구품인(九品印)중

에 중품중생(中品中生)의 수인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어깨는 넓고 둥글며 풍만한 느낌을 준다. 두광(頭光)은 머리 주위로 일곱겹의 동심원둘러 화사한 느낌이며, 몸체외곽으로는 두겹의 선을 둘러 신광(身光)을 표현하였다.

부드러운 선각으로 표현된 전체적인 인상이 불화를 보는듯한 회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 불상을 조사한 미술사학자 정영호 교수는 원만한 얼굴표정과 당당한 어깨, 잘 짜여진 동체와의 비례를 고려할 때 9세기 경부터 유행한 통일신라의 선각마애불의 한 계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마애불의 조성연대는 통일신라 말인 9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수인으로 미루어 아미타여래의 상으로 짐작된다.

소고리 마애여래상에서 남쪽으로 7,8m가량 떨어진 바위면에 소고리 마애삼존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 삼존불은 남서쪽을 향한 바위면을 다듬어 돌을새김으로 새겼는데 삼존 모두 결과부좌한 좌상의 형태이다. 크기는 본존불의 높이가 2m가량, 좌협시보살 69cm, 우협시보살 93cm이며, 관내의 석조유물 중 유일한



▲ 소고리마애삼존불

삼존불로 불상이라기 보다는 신라 토우나 미개종족의 조각상을 보는듯한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이다.

바위면 상단에는 원호의 배수구 비슷한 구조물이 있고 본존불에만 연화좌를 새겼다. 중앙의 본존불은 머리 위로 굽은 선의 두광을 나타냈고, 머리에는 관모형의 소발을 표현하였다. 얼굴은 긴편으로 이목구비가 도식화되어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가슴에 좌우 대칭으로 사선을 그어 법의의 주름을 나타냈다. 양손 손가락을 벌려 손바닥을 안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에 대었고, 하단에는 결과부좌한 오른쪽 발바닥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좌협시보살은 역시 굽은 선의 두광이 있고 머리는 승려형의 맨머리인듯하여 지장보살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양 손은 가슴에 마주 대고 있다. 우협시보살은 머리에 높직한 관모를 쓰고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양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무릎 앞에 오

른쪽 발바닥을 새겼다.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않고 일반적인 불상조성의 규범을 벗어나 도식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칠고 소박하며 장난기 어린 표현이 다른 불상유물들과는 다른 친밀감을 주고 있다.

### 山內里 忠成公墓

마옥산은 흔히 '마국산'으로 불리워지며 마고할미의 전설과 관련지어 마고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 이름은 五音山이라고 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당시 음죽땅에 은거하고 있던 권양촌(權陽村)을 만나기 위해 이 산길을 지나가려니까, 산허리를 오색빛 상서로운 구름이 감싼 가운데 맑고 영롱한 소리가 들려서 오음산이라 명명했다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다. 마옥산은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이천의 주산이라고 한다. 멀리 속리산을 조상산으로 하여 속리산에서 이어진 산줄기들이 북으로



▲ 충성공 권균의 묘

이어져서 그 끝자락의 기운이 뭉쳐져서 솟아난 산이 마옥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마옥산에서 양편으로 나뉘어진 산줄기들이 두 팔을 벌린듯 이천군을 감싸안고 동쪽으로 향하다가 하나로 합쳐진 지점이 천하의 명당자리라는 여주의 영릉이라고 하는데, 옛날 고을에 가뭄이 들면 맨 마지막으로 마옥산에서 기우제를 올렸다고 하니 옛부터 영산으로 쳤던 모양이다.

마옥산 주봉 기슭에 둥글게 산자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모가면 산내리이다. 마옥산 남쪽 기슭에 있는 설성면 대죽리와 더불어 관내에서는 보기 드문 산골마을인 탓에 이름조차 '산안'인 것이다. 과거에 산안을 가려면 진가리 쪽에서 가파른 고개길을 숨가쁘게 넘어야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고개길도 널찍하게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여기 저기 불성사나운 개발의 흔적이 눈에 들어온다.

산내리는 약 40여호의 주민들중 반수 이상이 안동 권씨들인 권씨의 오랜 세거마을인

데 마을 상단에는 충성공(忠成公) 권균(權鈞)의 사묘가 있고, 건너편 마옥산 기슭에는 잘 다듬어진 충성공 일족의 오래된 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묘역 입구에는 잘 생긴 반송한그루가 부채살처럼 가지를 뺏은 채 서있고 귀부와 이수가 격식있게 갖추어진 높이 2.8m의 충성공신도비가 놓여 있다. 풍우로 희미해져 가는 비면 글씨를 더듬어 보니 중종조의 문장가인 대제학 이행(李荇)이 비문을 지은 것으로 나온다. 문인석 망주석을 비롯한 각종 석물들이 위의있게 갖추어져 있으나, 부인 순흥 안씨와 쌍분으로 조성한 충성공묘는 수년 전 도굴꾼들에 의해 봉분이 파헤쳐져 해를 입었고, 이때 묘 앞에 있던 오래된 석등도 없어졌다고 한다.

충성공은 호를 수연당(愁然堂)이라 했고 1491년(성종 2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춘추관기주관을 거쳐 교리·장령·도승지와 공조판서를 지냈다. 1506년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영창군(永昌君)에 봉해졌고, 그후 좌참찬·형



조판서·좌찬성을 거쳐 1518년(중종 13)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영창부원군(永昌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예조판서·한성부판윤을 역임하고 1523년 우의정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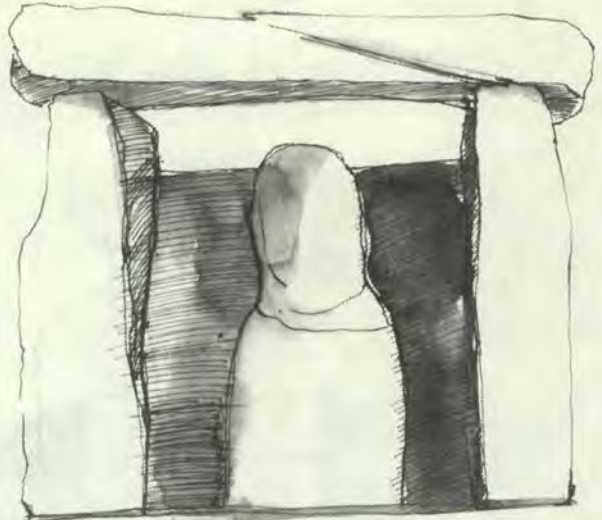
대군이나 군같은 공신들에게 주는 작위에는 보통 그 사람의 출신지나 연고가 있는 지방의 지명을 붙이는 것이 상례이다. 충성공의 작위가 영창부원군(永昌은 利川의 고려때 지명)이므로 그가 이천출신 인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 陳加里 土城과 기타

모가면 소재지인 진가리에는 오래된 토성의 흔적이 남아있다. 진가2리의 우리말 지명은 '진안'인데 진안(陳內)이란 병영안이란 의미로 볼 수 있어 어느 시기엔가 군사들이 주둔했던 주둔지였음을 말해준다. 토성은 이 진안마을을 둥글게 둘러싸고 축조되었는데 축성년대는 알 수 없으나 태조 이성계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둔했던 곳이라는 유래가 전해오고 있다.

진가리에서 지방도로를 따라 설성면 쪽으로 가다보면 송곡리가 나오는데 송곡의 우리말 지명은 소나무골이란 뜻의 '솔울'이며, 솔울이 변하여 소리울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곡리 마옥산 자락에는 '병목안'이란 지명도 있는데, 양편이 산으로 입구가 좁다랗게 되어 있어 병목처럼 생긴 안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의 재미있는 이름이다. 병목안 쪽에서 마옥산을 오르다 보면 7부 능선쯤 된 곳에 오래된 사지(寺址)가 있다. 지금은 근처 농장에서 밭을 일구어 놓아 원형이 사라졌으나, 부도로 보이는 탐재의 일부가 흩어져있어 이곳이 이천읍지에 나오는 안양사(安養寺)의 옛터로 추정되고 있다. 안양사지에서 다시 병목안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편 밭 가운데 조선시대 백자가마터가 있다. 주로 막사밭같은 민수용 백자를 굽던 요지이다.

대덕산 밑에 자리잡은 두미리에도 작은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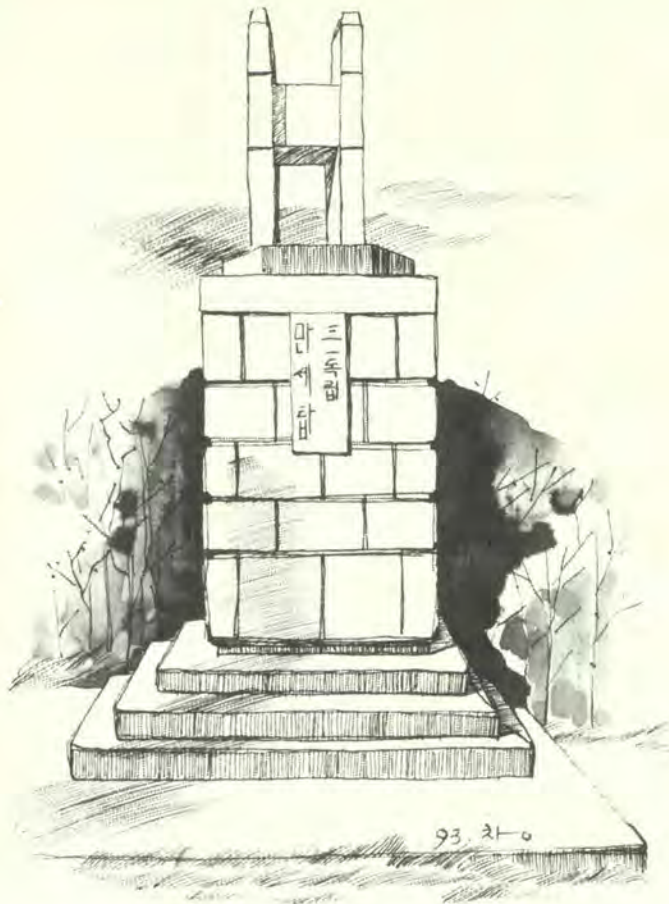
93. 2-5

▲ 두미리 미륵당석물

물이 있다. 모가면 신갈리에서 갈라져서 두미리를 지나서 사슬터고개를 넘으면 안성군이 되는데 이 길은 수년전 만해도 좁고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이었으나 지금은 말끔한 포장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가 부근에서 교차하고 있어 옛날의 한적했던 시골정취가 모두 사라졌다. 이 지역은 또 대덕산 기슭에 들어선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했던 곳으로 지금도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곳이다.

### 대월면(大月面) 편

대월면은 이천의 젓줄인 복하천을 사이에 두고 이천읍·호법면과 경계하고 있으며, 북쪽은 부발읍, 남쪽은 모가면과 설성면, 동쪽은 여주군 가남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월면 상단을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경충산업도로에 인접하여 교통의 요지인 탓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고 있으며, 특히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 사동리일대는 현대전자를 비롯한 대규모 공장들이 들



◀ 군량의 만세탑  
3.1운동당시 군량리 사람들이 이자리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여 김병일 씨가 고향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건립한 것이다.

어선 공단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이 평야와 구릉지대인 탓으로 농장, 과수원 등이 유달리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대월면은 원래가 大陽·月陽村(月良村)·苧枝谷이었다가 면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조선중기에 와서 大陽面과 月陽村面·草枝谷面이 되었다. 1905년 이후 大面·月面·草面으로 개칭되었다가 1911년 10월 3개면을 통합하여 大月面이 되면서, 大面 石塘里(지금의 松葛理)를 戶法面 관할지역으로 이속시키고 梁平里와 新葛里는 모가면으로 이속시켰다.

법정리는 14개리인데 丹月里(옛 명칭은 丹月川里)·大浦里(大浦川里)·高潭里(高垈岩里)·長綠里·道理里(道理洞里)·九時里(九時洞里)·郡梁里(上郡梁과 下郡梁里)·松羅里(松羅谷里)·長坪里(夫皇洞里)·夫必里(富

必里)·巳洞里·大垈里·大興里(範興里와 大洞里)·草芝里(草芝谷里)이다. 중앙에 해룡산이 가로 막혀 있어 소통이 불편함으로 1966년 8월 군조례에 의하여 초지리에 초지출장소를 두어 행정을 분담해 오고 있다.

### 郡梁里와 五玉先生 李聖任

군량리의 우리말 지명은 ‘군들’이니 일부가 1911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모가면에 이속되어 양평리가 되었고, 윗군들과 아랫군들을 합하여 군량리로 하였다. 군들에는 순천 김씨가 16대째 터를 이루어 살고있는 순천 김씨 집성촌으로, 그밖에 이천 서씨와 부안 임씨가 각각 10여 호씩 세거해 오고 있으나 원래는 전주 이씨의 세거마을이었다.



▲ 군량리 무우정

전주 이씨들의 입향조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태조의 세째아들 익안대군의 5대손인 이형(李誦)인데 양화천면에 무우정(舞雩亭)이란 정자를 짓고 아호를 석계(石溪)라 하여 군량리에 은거했다. 형의 아들이 필한(筆翰)·문사(文辭)·언어(言語)·가성(歌聲)·용모가 모두 옥과 같이 뛰어났기에 오옥(五玉)선생이란 칭호를 들은 이성임(李聖任)이다. 이성임은 명종 10년(서기 1577) 군량리에서 태어나 호를 군량리의 고호인 월량촌에서 따다가 월촌(月村)이라 했다.

선조 10년 문과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 이르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순찰사로 토병(土兵)을 이끌고 임진강 연안을 순찰하였고, 뒤에 경상도 순찰사로 활약하였다. 일찌기 경회루에서 정시를 베풀고 활쏘기를 겨루는데 1등을 하여, 선조대왕으로 부터 궁중에서 키우는 말 두 필을 하사받았다고 했으니 문무를 겸전하고 다방면으로 뛰어난 재질을 가졌던 모양이다. 부친 이형과 함께 무우정을 세웠다고 나온다. 월촌의 아들 이용진(李用晉)은 세자익위사의 익위를 거쳐 승지를 지냈는데 광해군 때 폭정에 항소하는 등 기개있는 인물이었다.

우리들의 고향은 제모  
습을 잃은지 오래다.  
김병일씨의 고향가꾸  
기 사업은 잃어버린  
고향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노력의 한 본보  
기가 될 것이다.

이성임의 5대손이 이사성(李思成)이다. 영조때 문무를 겸전하여 전라도 수군절도사를 지내고 영조 4년(서기 1727) 평안도관찰사겸 병마사로 있었는데 이인좌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이사성이 실제로 난에 가담을 했는지, 이인좌와 같은 소론파였기에 당쟁의 희생물이 되었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이 일로 군량리 전주 이씨 일족들이 함께 화를 입게 되었고 무우정 역시 이때 헐리워진 것으로 보인다. 마장면 작촌리의 나라모르기라는 지명과 양각산 치마대의 전설이 모두 이사성과 연관되어 있고, 군량리에도 그의 생가 터와 일화가 전해오고 있어 풍운아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다.

### 金炳鎰씨의 고향가꾸기

군량리에는 군들장터가 있어 지금은 한적한 이 마을이 옛날에는 정기적인 장이 설 만큼 번성했던 마을임을 짐작케 한다. 군량리 뒷말에는 명장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병어리 맹꽂이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와같이 유서깊은 마을의 유래와 전설, 사적지를 비롯한 옛사람들의 자취가 숨어있는 마을의 유산들



▲ 군량리 연자방아간터

을 하나 하나 발굴하여 정리하고, 알뜰하게 손질하여 보존해 놓은 인물이 이 마을 태생인 김병일(金炳鎰)씨이다.

김병일씨가 군량리 고향가꾸기사업에 처음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지난 72년의 일이다. 이 천세무서를 거쳐 서울에서 공직생활로 바쁜 생활을 하다가 모처럼 고향을 찾아와 보니, 생활은 윤택해 졌으나 정다웠던 시골마을의 정취나 미풍양속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다. 고향의 옛 정취를 되살리는 일에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고 결심한 김병일씨는, 이때부터 차근차근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이를 보존하거나 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양화천변 언덕 위에는 무우정을 재현하여 아담한 정자를 건립하였고, 뒷동산에는 3·1 운동때 마을사람들이 모여 만세를 불렀던 자리에 만세탑을, 임금님이 승하하여 곡을 했던 자리에는 망곡대를 세웠다. 이 마을 태생 효자 박성윤과 열녀 행주 기씨의 행적을 기록한 효자비와 열녀비도 건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던 장소에는 망월대를, 동네아이들이 연을 날리던 곳에는

비연대를 세웠고, 장치기터, 씨름터, 그네터를 마련하였으며, 새쫓기막, 연자방아간터, 징검다리에 이르기까지 모습을 재현하거나 유래를 알리는 표석을 해세웠다.

지난 88년에는 마을입구에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새긴 크고 번듯한 기념비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을 김병일씨는 모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설계하였고, 적잖이 소요된 경비의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충당하였다.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떠난 곳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있지만, 닥치는 대로 밀어버리는 개발의 명목이나 이촌향도의 새파속에서 막상 우리들의 고향은 제 모습을 잃은지 오래다. 김병일씨의 경우는 잃어버린 고향을 되살리는 의미있는 노력의 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군량리는 또 순수한 이천지방의 민요인 자채농요의 가락이 원형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천쌀의 대명사였던 자채벼를 심고 가꿀 때 부르던 일노래인 자채농요는 지난 86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때 처음 선을 보여 특별상을 받기도 했



▲ 군량리 석불좌상

는데, 마을의 노인들, 특히 김병익·김병기·김병천 3형제가 뛰어난 기능보유자들이다.

## 거북놀이와 줄다리기

면소재지인 단월리에서 모가면 쪽으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길옆에 대포리 석불 입상이 있다. 이 석불상은 영치 아래부분이 흩속에 묻혀있어 실제의 높이를 알 수 없으나 최소한 4m가 넘을 것으로 보이며, 어깨폭은 96cm이다.

머리는 소발형으로 육계가 큰 편이며 얼굴은 이목구비와 양쪽 볼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표정을 알 수 없다. 이마에는 큼직한 백호공(白毫孔)이 파여있어 보주를 박아넣었던 흔적이 완연하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법의는 통견의(通肩衣)로 양 팔에 걸쳐 옷자락이 밑으로 흐르면서 약간씩 퍼졌다. 허리에는 요대를 둘러는데 그 가운데를 묶은 결대(結帶)를 표현하였고, 수인은 오른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올려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하여 엄지와 검지를 마주댄는데 손바닥에 뚜렷하게 새긴 손금이 재미있고 왼 손은 옆으로 내려뜨린

모습이다. 동체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고 표현수법이 덜 세련되어 고려중기의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룡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도 오래된 석불 좌상이 있다. 이 불상은 원래가 소도니봉(정명산) 근처에 있던 것을 옮겨왔다고 하는데 좌상 높이가 90cm로 역시 표현수법이 서툴다.

대월면 초지리에는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민속놀이인 거북놀이가 유명하다. 거북놀이는 팔월 한가위날 밤 휘영청한 달빛 아래서 흥겹게 벌어지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로, 대월면 지역 뿐만아니라 이천군 전지역과 경기도·충청도 일원의 여러 지역에서 연희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천지역에서는 60년대 초까지 아이들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사라진 것을, 70년대 초에 당시 대월국민학교 교감이던 김종린 씨가 이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현하여 초지리의 민속놀이로 굳어지게 되었다. 거북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두차례나 선보여 두 번 모두 문공부장관상을 받았고, 요즘에도 대월국민학교 학생들에 의해 기능이 보존되고 있다.



▲ 해룡산 석불좌상

단월리에서는 단드래 줄다리기라고 하여 정월 세시풍속으로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줄다리를 재현하였다. 단드래 줄다리기 역시 이 마을에 60년대 후반까지 전래되어 오다가 사라졌던 것을, 마을청년회를 중심으로 80년부터 다시 재현하여 요즘은 2년마다 한번씩 줄다리를 하고 있다. 줄다리를 하는 시기는 설날 하루나 이틀 뒤로 날자를 잡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모처럼 함께 어울려 고향마을의 정취를 맛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進上米 벼를 가꿀때 부르던 자채농요



▲ 정월보름에 마을마다 성행하던 줄다리기



▲ 대포리 석불입상

우리고장은 특히 줄다리가 크게 성행하였던 고장이었음을 1921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기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해 3월 18일(음력 2월 9일) 이천읍에서 벌어졌던 줄다리기에는 구경꾼들이 2만여명이나 모여들어 문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당시의 기사 내용을 보면 줄의 길이가 800여 미터에 굵기가 60cm였고, 직접 줄다리에 참여한 경기인 원만도 6천명이나 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6천명이 한꺼번에 경기를 하다보니 불상사도 있어서 사상자가 12명이나 발생하였고, 민족문화 말살을 획책하던 일제가 이를 빌미로 금지령을 내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속축제는 우리 고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거북놀이나 줄다리는 모두 뿌리 깊은 농경문화의 유산이다. 이와같은 민속놀이들이 특히 대월면지역에서 성행하여 오늘에 와서 다시 재연하고 있음은, 이 지역이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농경지역으로 고유한 문화전통을 비교적 잘 보존하여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설봉문단

## || 특집 I || 향토문예교실 수료자 글모음

한해숙 / 서은희 / 김준규 / 조선숙 /

이옥진 / 유영미 / 홍종희 / 장세영 / 박현미

## || 특집 II || 경규희 시조시 모음

— 제 3 시조시집 <新思美人曲>에서 —

□ 기 고 □ 김 일 제



## 라 일 락 (I) 외 1편

한 해 숙

목련이 피었다가  
 시들어 갔고  
 진달래가 피었다  
 떨어져 갔고  
 개나리도 나왔다  
 스러져 가는  
 동안을 기다리며 우울했었다.

목련꽃 크기보다  
 한참 작은데  
 진달래 송이보다  
 무척 작은데  
 개나리 꽃보다도  
 자그마한데  
 오늘을 초조하게  
 기다렸었다

한 시절을 꾸미는  
 나도 꽃인데  
 늦음이 제 탓인양  
 자책했는데  
 그러나 라일락은  
 크게 외친다  
 하나씩 따로 아닌  
 무리 되었다.



## 라 일 락 (II)

저기 저 담장 안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살거야  
 라일락처럼

초록빛 향내 속엔  
 뽀얀 냄새랑  
 누렇게 찌든 내도  
 섞였을거야

라일락이 서 있는  
 담장 안에서  
 산너머 동네까지  
 풍겨 갈꺼야.

# 라 일 락

서 은 희

발걸음 재촉하는  
봄의 뒷목을 휘어잡고  
알차고 송글송글 맺혔구나

바람이 흐트린  
보라빛 향기에  
스스로 취하여 병글어지고

지나가는 길손에게  
권주가를 불러주니  
그 더욱 흥껏 취해  
가는 길 몰라하는구나.

# 라 일 락

김 준 규

바람에 흔들리는  
곧지도 못한 줄기에서  
다소곳한 잎새  
돌워내고  
희고 홍조던 꽃에서는  
행복한 향내 피워낸다.  
흔드는 바람에  
향내 실어보내니  
짓곳은 바람도  
향기만 한아름 안고 간다  
짓곳은 바람도  
한 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 라 일 락 외 1편

조 선 숙

남김없이  
내 걸을 떠나도  
슬퍼하지 않으리

떨어짐이  
태어남의 몸짓인지  
알 수 없는 우리

하얀 웃음으로 쏟아져도  
하늘을 향한 향기는  
애뜻한 마음 일지

노을이 흘러  
그림자도 잠들면  
혼자로 다가드는 밤.

## 겨울 파발

조 선 숙

떠나자  
마지막 줄을 꿰고

백지로 돌아와  
내 키만큼 키우리라던  
깃발은 침몰하고

채 뽑히지 못한  
기억의 구근들만  
춹춹히 숨을 쉰다

메아리 없는 목소리  
하얗게 날려보낸 하늘에  
꿈이 돌아나고 있다

다시 돌아갈 시간  
묻혀버린 계절을 남겨두고  
저무는 빈 들에서  
아침을 기다린다.

## 라 일 락 (I)

이 옥 진

포도 송이면  
먹기나 하지  
몽실몽실 매력도  
없는 것이  
암 냄새 하나는 끝내 주는구나

세상 남자들  
반하기도 했겠지  
영양가 있는 자태로  
녹색 칼라를 세우고  
찰떡 궁합을 사는구나

살랑살랑 주책 바가지 중매쟁이  
노치녀 속도 모르고  
굽어라 굽어  
죽이자는 거야 뭐야.

## 라 일 락 외 1편

유 영 미

바람에 휩싸인 너는 흡사  
마녀 같구나  
요염한 달빛에 취한 너는  
독한 향기를 품고  
보드란 웃음 보이면서  
유혹하는구나  
작은 주둥아리로 종알대는  
너는  
마치 저의 세상인양  
헤론 몸짓을 하는 구나.

## 겨울 파발

유 영 미

어찌하나  
날 새우는 바람에  
찢기우는 것 조차  
잊은채,  
시퍼렇게  
시퍼렇게 떨고 있으니

어찌하나  
남 잊은 길목에  
목을 빼고,  
기다린들  
찾아줄이 있을까

펼럭이는  
태양을 세우고  
실타래 같은  
전생의 업을  
풀고 있으니.



## 라 일 락 (I) 외 1편

홍 종 희

소록소록

좁쌀같은 바램들이

꿈꾸며 자란다

포근한 연보라 이부자리엔

별님과 나누는

신데렐라 이야기

토옥

토옥

(바램이) 영글어 터지던 날

웃음을 스미어드는

환희의 떨림이여!

이윽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소망의 나래를 접어내린

폐허위에

다시금 피어나는 모성애

## 라 일 락 (II)

운삼월 산자락에  
은은하게 깔리는 파스텔 교향곡  
돌돌 흐르는  
바위틈에 물살  
소리 높이고

‘고향의 봄’을 부를때면  
눈물이 난다던  
영숙이의 해 맑은 얼굴이 그리워질때

소복소복 쌓아올린  
연보라빛 알알이  
추억의 향기를 실어나르네.

# 산수유

장 세 영

느즈막  
서넛 하늘 밑  
채 모르던 곳,  
날 보듬은 너희는  
수처녀 가슴

제따로 한 아름씩  
석양빛 안고  
후르르 날아올라  
홍(紅)으로 발하면  
울긋 토해 놓은  
설움의 핏덩이일지도 몰라

걸음걸음 휘감은  
너희  
뜨거운 살내,  
자지러진 나를 덮쳐  
입술을 훔친다

농익은 산수유  
너희  
시더운 유혹에 빠져  
담수(潭水)에 먹을 감아  
날밤으로 앓고 만다.

## 새벽 예찬

박 현 미

아침이슬을 밟으면서 나는 새벽예배를 드리러 가곤한다. 지난밤 어둠은 땅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옅은 아침이 새어나오는 새벽은 참으로 아름답다.

나트륨등이 환하게 비추는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서면 밤사이 내놓은 쓰레기더미를 받아들고 목까지 찬 숨을 애써 참으며 청소부차는 까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직 남은 고요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담벼락을 따라 한길에 닿으면 큰 눈가진 화물트럭들이 화들작 달려 들었고, 노변의 지방지가 쿨럭거리는, 기침을 연신 토해내고 있었다.

지난 추석 참치선물셋트를 싸게 팔던 사거리 슈퍼 앞에는 아직 켜지지 않은 신호등이 눈을 비비고 서 있었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나는 궁색한 한달음으로 저편 불야성을 향해 달려갔다. 불철주야 계속되는 어느 자동차회사의 광고는 그래도 어두운 이 새벽 나에게 위로인 것만은 분명

하다.

몇개의 높고 낮은 건물을 지날때 획-한점 바람이 스쳤다. 저버린 낙엽을 설새 없이 실어 나르던 어제의 그 바람은 결코 아니었다. 이미 그 바람은 가로등대와 겨울나무를 한기로 때려 눕혔고, 새롭게 나타난 사냥감인 내 목덜미를 노려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짧은 내 목이 순식간에 자라목이 되어 숙달된 군인처럼 얇은 포복걸음을 걸어야 했다.

어느 시골 정거장처럼 낡은 간판이 덕지덕지 붙은 시외버스 터미널앞에 몇대의 개인택시가 기막힌 손님들을 기다리며 허연 김을 내 뿜고 있었고, 분주하지 않은 시장을 지나 성전 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 뒤로 눈부신 햇살이 우르르 몰려와 재잘거렸다. 그리고, 하늘 향해 열린 내 가슴속으로 넓은 하늘이 속속이 들어 오고 있었다.

## 과일가게 素描 외 8편

경 규 희

아이들 얼굴이 겹쳐  
발길 절로  
멈춰지고

지난 한때의 얼굴  
나의 그  
얼굴도 있네

어느새 꽃가을로 온  
인생 같은  
이 果生들.



이천 양정여고 졸업.

<현대시조>誌. 추천으로 문단데뷔(1984)

한국문인협회 · 국제 PEN클럽 한국본부 · 한국시조시  
인협회 · 한국현대시인협회 ·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  
시집 <낮은음자리> <햇살도 저群舞 앞에서는>

## 不 通

입속으로 중얼거리도  
바람벽은 듣는 체 한다

가끔 외로워  
모처럼 말을 걸면

針 뽑고  
손살같이 날아와  
혀끝 톱 쏘는 땡땡.

## 산 안 개

새벽 창을 열면 더 먼저 깨어 이쪽을 바라보던 산.

오늘은 웬일인지 흰 커튼 둘러친 채 아무런 기척 없다.  
간밤을 꼬박 새우고 그루잠이 들었나, 구름장 떠갈 듯 드르렁  
드르렁 산이 코고는 소리 들었다는 셋별,  
별떡 산이 일어나 자리 뜨는 걸 보았다는 그믐달의 귓속 말쭙  
은 뜬 소문으로 돌리고 품속에 안아 키우던 새뎀들, 나무들, 밤  
새 병이나 안 났는지,

건어라 그 점잖은 헛기침 소리  
어서 안개발 건어라.

## 册 사설

내겐 숲이어서  
 잎내음 꽃내음이  
 멧새 소리와  
 싱그럽게 어울려 있고  
 이 영혼 거닐며 다닐  
 오솔길 트여 있다.

이 밤 깊은 밤엔  
 글자 모두 머루알들  
 어느새 한알씩  
 별이 되어 반짝이고  
 그 별빛 열쇠들이 되어  
 하늘의 문 끌러준다.

침성대 서도록 하신  
 여왕님도 예서 뵙고  
 구름길 잡아타고는  
 도솔천에도 올라간다  
 아득한 뒷세상까지  
 예서 여겨보기도.

## 초 겨울비

굳이 적시고 싶거든  
 적시다가 씻기거라  
 때도 없이 부리는 심술  
 무슨 투정이신가

안으로 펼쳐든 우산  
 젖지 않는 연잎 마음.

우산속 뚫고 들어  
 살속으로 파고 드는

차디찬 빗소리여  
 고드름 되고 말 소리

뜨거운 이 눈시울에도  
 고드름 매달리네.

# 女 心

그녀를 붙들려고  
끌어당기는 거울이 둘

하나는 화장대 거울  
이쪽 눈치 살피고

하나는 벽에 붙은 거울  
솔직하고 담백하다.

“아직은 곱다 고와”  
속삭이는 화장대 거울

벽거울은 사실 그대로  
“봐라”하고 비쳐 준다

어쩌나  
화장대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것을.

# 風向計

한 발 허공 던고  
바람 불러 어울린다

한마당  
치솟는 신명  
그들 따라 돌아 가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  
잃지 않는 방향 감각.

한 하늘 이고 서면  
손아귀에 드는 바람

머리채  
휘어잡아  
뱅글뱅글 지축 돌리면

하늘도  
은빛날개로 내려  
퍼덕이는 東, 西, 南, 北.



## 벼락 幻想記

—천둥 번개 치던 날

뒤앞에 시샘이나며  
잔뜩 찌푸린 하늘  
“그래 봐 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른단 말이지”  
드디어 번쩍 우르르 파당하며 때려댄다.

하늘 우러르던  
한 그루 은행나무  
외마디 소리와 함께 어깨, 허리 다 꺾인다  
“사실은 땅이 미워 그랬지만, 뿌리만은 그냥 됐지.”

노여움 푸시는 하늘  
햇살 다시 뿌리신다  
수그린 고개 들면서 하늘에다 눈 주는 땅  
“맨처음 만난 때처럼 나는 그저 땅이에요.”

## 新思美人曲 · 1

‘하나’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그건 숫자가 아니다. 1위, 2위, 3위……등등

등급을 매기는 그것도 아니다.

보잘 것 없는 숫자 1, 1과 1은 하나를 갈라 놓은 분단 아니고 무엇이라,

등급 1위는 무수한 싸움질의 정상에 선 그것 아니고 무엇이며,  
죽어라고 날벼리어 칼갈기 하면서 2위 3위 4위에 싸여 으르렁거  
려야 할 그 1위 아니고 무엇이라,

그 뉘우침, 그 허욕들이 이 강토를 이렇듯 갈라 놓아 우리 이리  
천추의 한을 못떨치지 않느냐.

내게는 ‘하나’라는 말이 나의 조국,  
산과 물이 한데 얼려 천년 만년 숨쉬는 곳,  
나와 임은 그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

■ 기고 ■

## 편지문화

김 일 제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화가 생겨나고 부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대에게 편지 쓴다는게 어렵다는 생각에선지 요즘 젊은이와 어린이들은 편지 쓰기를 외면하기 일쑤다.

편지란 특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글로 정(情)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글이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는 편지야말로 삶의 보람이며 글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애착심과 자신감을 갖고 정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독서를 많이 해야 하며, 일기 등을 꾸준히 쓰는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격식대로라면 편지글의 전문(前文), 본문(本文), 끝부분(結文)의 순서를 지키고 편지지와 봉투도 잘 고르며 바른 예절로 마주 이야기하듯 쉬운 말로 자세하고 분명하면서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편지의 종류에도 안부(문안)편지, 위문편지, 격려편지, 초대(초청)편지, 안내 또는 축하편지, 소개, 추천, 부탁의 편지, 문의, 권유, 주문, 상담, 독촉, 사과등의 편지를 비롯해 사랑의 편지 (Love Letter)도 있고,

받는이에 따라서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사람께 보내지는 편지도 있다.

제 아무리 통신수단이 발달되어도 글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편지는 마음을 감동시켜 상대에게 진한 감동과 기쁨을 준다.

우리 속담에 「고운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사람 고운데 없다.」는 말도 있듯이 정답게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써 내려가면 훌륭한 편지글이 되는 것이다.

물론 현대와 같이 바쁘고 복잡한 사회에서 편지 쓸 여유없다고해서 전화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제 잘못 모르고 정이 메말랐느니, 인심이 각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편지는 격식도 있고 글로 읊기려다 보면 생각해 써야하니 어렵고 귀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인가 보다.

하기야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때 각별하고 정중하게 조의를 표해 주었다고 감사인사 드리는 편지 말미에 어머니 돌아

■ 김 일 제 ■

- 45세, 대졸·상업
- 충북 중원 출생
- 주소 : 이천군 마장면 덕평리 409-2
- 통일문예상(92, 93년)수상
- 서예부문 수상 다수

가셔서 슬픈자식이라는 애자(哀子)를 쓴뒤 자기 이름을 넣었다면 틀린말이고, 큰어머니나 작은 어머님을 백모(伯母)와 숙모(叔母)로 구분하지 못하고 큰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에 숙모라고 쓰면 안되며, 자기가 부를때는 장인을 아버님이나 빙장(聘父)어른이라고 하던 습관대로 남에게 얘기할때도 장인이라하지 않고 아버님 또는 빙장어른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편지를 쓰자.

“마음이야 팔거나 살수없는 것이지만 줄수 있는 보물이다.”라는 프로벨의 말이나 쇼펜하우어의 말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말하자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적합한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면에 있어서도 청년기의 사람은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주로 사색에 따라 결심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글을 통해 갈고 닦아야만 한다고 일깨우는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매일 보는 부모님이나 시집간 누나, 보고싶은 선생님이나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화 보다는 편지를 써 보자는 것이다.

한자(漢字)에 익숙치 못하다보니 여러종류의 편지나 하다못해 축문(祝文)쓰기가

쉽지 않겠으나 근래에 이르러 축문도 한글식으로 간소화되어 “아버님(또는 할아버님) 영전에 삼가 고하나이다. 오늘 이곳에 유택(幽宅)을 마련하였사오니 고이 잠드시고, 길이 명복을 누리시옵소서.”라는 식으로 풀어 쓸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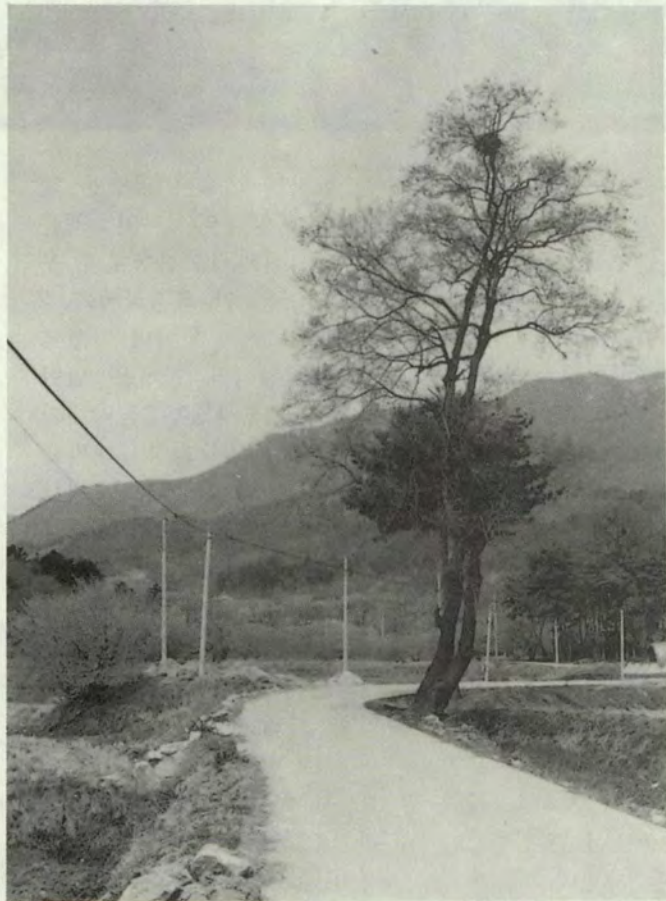
몇백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충무공 이순신이 그의 상관(체찰사 이원익)에게 여든이 넘은 어머니 얼굴보고 올 수 있도록 며칠 휴가를 보내달라고 청하면서 끝부분에 혹 변고가 있더라도 허락받았다하여 중대한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는 애절한 편지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시인 피테가 그의 연인에게 쓴 “사랑하는 이여.”라는 글도 전해 내려온다.

흔히 인생을 시기별로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황금기), 황혼기(노년기)로 나뉘도 편지는 그런데 구애받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마음ियो, 얼굴인 “편지는 나체의 고백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이 알아서는 않될 자존심이다. 편지야 말로 인간이 가질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통화구이다.”라는 이어령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편지쓰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애쓰는 이땅에 편지문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빌어본다.

雪峰文化  
게시판

- 문화행사 지상중계 ■  
- 봄맞이 열린 음악회  
한국 춤전 -
- 전람회 지상중계 ■  
- 金基日展 -
- 문화단신 ■
- 신간안내 ■
- 문화원 소식 ■



##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봄맞이 열린 음악회』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함박눈을 뿌려주는 쌀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려는 청중들의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이천관내에서는 처음 열리게 된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봄맞이 열린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이천장년 봉사회와 청년봉사회가 주최한 봄맞이 열린 음악회가 지난 3월 24일 저녁 7시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 이천협의회, 이천군청 후원과 (주)이천상호신용금고의 협찬으로 600석의 정원을 훨씬 넘어선 청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연을 가졌다.

국악, 고전음악, 대중음악

을 한자리에 모아 공연을 열게 된 본행사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 1부진행에는 우리고장 국악인 최경식씨가, 2부에는 MBC성우이며 탈렌트인 김기현씨가 진행을 맡았다. 육군3군사령부 군악대의 팡파르로 음악회의 개막을 알리자 이어서 국악의 해를 기념이나 하듯 이조 500년동안 궁궐안에서 시연되었던 화관무가 한순서양의 춤과 고수 오병수씨, 아쟁 안경환씨, 피리 최경식씨의 반주에 맞춰 화려하고 우아한 춤사위를 보여 주었다. 다음은 중요 무형문화재 29호로 지정된 국악인 이은관씨가 <배뱅이 굿>을 열창하였다. 배뱅이의 삶속에서 이루지 못

한 소망이 죽어서도 이승의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심정과, 박수무당의 몸을 빌어 굿을 하면서 어머니를 찾아 헤메는 장면을 목소리에 담아 외치는 모습이 고회를 넘어선 이은관씨의 창에 대한 열정을 느끼게 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때로는 한 맺힌 혼백의 소리, 경쾌하게 이어지는 자진모리,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청중들도 박수를 쳐가며 흥에 겨워하는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사물놀이 시연은 장고 이성순(풍물놀이 지도교사), 팽과리(상쇠) 원영오, 북 박문수, 징 안재성씨가 출연하였다.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경쾌하면서도 은근하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흠뻑 담은 주고 받는 넘김 가락이 자연스레 어우러져서 연주자와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2부에서는 92'음악저널 콩쿨 대상을 수상하고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예비학교 수학중인 바이올린 권혁주(이천국교 3년)군의 막스 브르그 작곡 콘체르토 G단조 3악장을 연주해 날로 향상되어 가는 기량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메소소프라노 백남옥(경희대음대교수)씨가 「진달래꽃」 채동선 작곡「그리워」를 불러 주었다. 백남옥씨의 노래는 진달래꽃을 연상하듯 붉은색 드레스인 연주복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주어 청중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테너 엄정행 교수는 윤용하곡「보리밭」 우리민요 「박연폭포」를 불러주어 청소년들과 주부들의 열렬한 인기를 엿볼 수 있었고, 앵콜을 신청하였으나 준비가 안된 관계로 답례인사로 대신하였다. 두 연주자의 반주는 관내에 거주하는 유미원(영남대음대졸)씨가 맡았다.

합창에는 이천군청 혼성합창단(단장-차태익)의 김노현곡「황혼의 노래」, 금수현곡「어허야 둥기둥기」, 이수인곡「별」등 세곡을 임종규 지휘, 김경림 반주로 24명의 단원이 불러 주었고, 1984년 창단



하여 현재 정기공연 43회와 93년 2월 미국L.A 한인친선 교류협회의 초청 연주회를 가졌던 대한 어머니 수원합창단(단장-심영섭) 30명이 박청식 지휘, 정미경 반주로 김규환곡「남촌」, 박순천곡「장미」, 황철익곡「신몽금포타령」을 고운 화음으로 들려주었다.

육군3군 사령부 군악대(지휘-문재익소령)는 뮤지컬음악 「슈퍼스타」, 영화음악 「모정」, 그리고 한국가요 메들리에 울동을 곁들여 청중들의 웃음과 기쁨을 전해 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2부행사 말미에는 이천고 출신의 신인 가수 한상엽(경기대재학)군이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 「신인류의 사랑」 92' SBS 주최 장미가요 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별이란 슬픈 그림자」를 들려주어 학생층의 놀라운 반응을 보였고, 모두 다함께 이주호곡 「사랑으로」, 홍난파곡 「고향의 봄」을 전체 합창하며 2시간 30분에 걸친 연주회를 마쳤다.

이번 연주회 입장료는 총 300만원으로 전액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열린 음악회를 보면서 느낀점은 듣는 청중들의 태도이다. 청중들은 연주회의 기본수칙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하며, 보다 조용하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어 연주자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외부에서 초청된 연주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 다시 찾아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연주도중에도 떠들고 자리를 이탈하여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또한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주최측은 진행순서와 무대이동 등을 충분히 고려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성숙되어 가는 <열린음악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우리 춤의 화려함과 흥겨움 돋보인 『한국춤전』

— 경기도립 무용단 순회공연 —



경기도립무용단(단장-정재만)의 순회공연무대인 <한국춤전>이 4월 27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권영철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관장, 정종훈 군수 등 내빈들과 500여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막을 올렸다. 오후 7시에 개막되어 두 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도립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화관무·훈령무·부채춤·북소리사위·허튼살풀이춤 등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군무와 독무에 이어, 새롭게 구성된 사물놀이와 풍물놀이를 차례로 선보여 흥겹고 화려한 우리 춤사위와 가락의 묘미를 선사하였다.

서두를 장식한 <화관무>는 궁중무용인 춘앵전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무대감각에 맞게 창작되어진 무용으로 곱게 단장한 무희들이 궁중무 복식에 화관을 쓰고, 긴 색동한삼을 공중에 뿌리며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하였다. 담담하면서 유유한 장단의 흐름과 함께 춤가락이 우아하고 선이 고와서 현실을 초월하듯한 신비스러운 멋을 풍기며, 개인의 감정이나 개성적인 표현을 억제하여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두번째 작품인 <훈령무>는 8명의 훈령과 1명의 사령으로 구성된 조선말기 군대를 훈련시키던 장면을 묘사한 춤이다. 이 훈령무는 한성준 선생이 1930년경 창작하여 무용화 하였다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것을 정재만교수가 고 한영숙선생의 고증을 받아 재정립하여 독무를 추었고, 1987년 <정재만남무단> 창단공연때 군무로 발전시켜 무대에 올린 이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춤은 진쇠, 엇모리, 자진긋거리, 휘물 이동 사물장단으로 진행되며 그특징은 엄격한 훈련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다이내믹한 남성적인 동작의 군무에 있다.



에 쓰이는 팽과리·징·장고·북등 4가지 악기를 가리켜 사물이라 하는데, 최근에는 <김덕수사물놀이>가 합주단을 조직하여 전통민속음악에서 타악기로 연주되는 리듬음악을 실내합주음악 양

수 있었다.

<북소리사위>에서는 사물놀이의 반주에 맞추어 6명의 고수가 나와 춤을 추다가 다시 6명이 합류하여 12명이 되고, 12명이 고정북을 들고 나와 24명이 되고, 4명의 고수가 나와 28명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는 북소리 사위를 들려 주었다. 이작품은 「세계잼버리대회」 예술제에도 참가했던 북춤으로 기존의 북춤이 고정된 틀에 매어 주어졌다면 이춤에서는 움직이는 북으로 남녀의 사랑을 대화체로 표현하여 철학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다. 1991년 캐나다와 프랑스 공연에 선보였으며 제45회 디종(Di Jong) 국제민속제에서 금상을 받기도 하였다.

<허튼살풀이춤>은 단장인 정재만 교수가 직접 선보였는데 허튼춤이라 함은 일정한 약속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연 당시 춤추는 사람의 기분과 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는 춤을 일컫는

## 정재만 단장의 독무 <허튼살풀이춤>도 선보여

13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부채춤>은 우리나라의 무당춤에서 추출한 무용으로, 무리의 춤을 살려 펴고 접는 부채의 흔들림을 따라 다채로운 색조로 화려한 춤사위를 연출하며 고도의 조화와 율동감을 표현하였다. 이번 작품은 기존의 부채춤을 재구성하여 화합을 표현해 내기 위하여 꽃으로 상징하여 만든 춤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꽃모양이 만들어질때마다 환호하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물놀이(앉은반)는 농악

식으로 연주하면서 사물놀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물놀이의 연주형식은 앉아서 악기만 연주하는 소위 앉은반과 악기를 메고 서서 연주하는 선반으로 구성되는데, 이번공연에는 도립무용단 사물놀이팀이 새롭게 구성한 앉은반을 선보이게 되었다. 특히 징과 부쇠를 맡았던 단원이 이천출신이라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었고 20여분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물의 울림소리는 듣는이들에게도 절로 흥이 나며 소리속으로 빠져드는 감을 느낄



다고 한다. 전래되어 내려온 일정한 살풀이의 형식을 벗어나서 풀고, 맺고, 얼르는 춤사위를 사용하여 고도의 기교를 부리면서 흥과 멋을 유발해내는 춤으로 잔걸음으로 무대를 휘돌 때는 마치 미끄러져 날아가듯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풍물놀이(농악)>순서에서는 사물놀이팀 4명, 장고 8명, 북 12명, 소고 10명등 34명이 출연해 무대를 가득 메우며 상모를 돌리고 경충 경충 뛰기도 하고 어깨춤사위를 추며 드넓은 평야그림을 배경으로 한국춤을 마무리하였다. 풍물이란 농악의 본디 이름의 하나로 원래는 농사등의 집단노동을 할때 흥을 돋우거나 힘을 북돋아 줄 목적으로 여러사람이 어울려 공동체 놀이로 연주하던 것인데, 요즘에는 마당이나 들판보다는 오히려 무대화한 작품들이 많이 연주되고 있다. 이번공연에서 경기도립무

용단 안무자인 정재만이 새롭게 구성하였고, 특히 비좁은 군민회관 무대를 객석 앞 공간까지 넓게 활용하여 신명나는 한마당 놀이를 펼쳐 보여주었다.

정규공연을 마치고 정재만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에서 하나 뿐인 도립무용단인 경기도립무용단을 세계적

인 무용단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이천 주민들의 열띤 호응에 보답한다면서 출연진 전원이 무대에 나와 신명나는 뒷풀이를 선사하였다. 이 뒷풀이는 군민회관 앞뜰로 이어져서 관객들이 한데 어울린 인상적인 마무리가 되었다.

도립무용단의 이번 순회공연은 특히 무용분야에 있어 전문가들에 의한 무대공연의 기회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민들에게 모처럼 신명과 흥을 선사해준 뜻깊은 공연이었다. 그러나 관내의 유일한 공연장인 군민회관의 비좁은 무대공간과 조명 등 미비한 시설이 이번 공연을 통해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

## 「경기도립 무용단」의 공연을 보고

이 향 주

(이향주 무용학원장)

이천군은 지역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방면으로는 좀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천은 좋은 예술작품이 있어도 시설이 미약한 군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기엔 그 작품이 보여주는 역량과 감상효과의 10분의 1 정도의 효과밖에 내지 못하는 공연을 우리 군민들은 보아야만 한다. 이번 공연에도 다른 작품이 아닌 무용작품에 단원 40여명 이상이 군무

(群舞)도 하는 작품을 조명 등 여러가지 미약한 무대장치 등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의아심과 걱정으로 군민회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임시가설을 통해 무대를 최대한 넓혔고 조명등을 더 보충했다. 그리고 공연중에는 공연자들이 관람석까지 내려와 무대와 관객의 벽을 넘어, 보는 관객에게 더욱 가까와질 수 있는 친근감과 무대와 내가 별개라는 선을 넘어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했다. 크고 작은 공연을 치루어 보았지만 역시 '프로'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무용은 신체를 통하여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무용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관객들은 무용공연을 감상하면서도 아름다움과 황홀감, 또한 흥까지도 얻을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도립 무용단이 우리 이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약력에 소개된바 안무자 정재만씨는 무용계의 거목일 뿐만 아니라 세종대및 숙명여대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남자 무용수의 지침들이 되기도 한다.

이천에서 무용을 가르치는 한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천에서 서울까지 나가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은 T·V 또는 VTR에서나 공연관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도립무용단이 이천에서 공연을 갖는다면서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7시 공연 시작인데도 우리들은 미리 와 자리를 잡고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며 공연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거의 7시가 되어서야 자리는 채워지기 시작했다. 유선방송과 벽보에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공연 사실을 알고 오신것 같다. 군민회관은 화려한 춤을 관람하기 위하여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관람석이 하나 하나 채워지기 시작했다.

궁중정재인 화관무에서 시작하여 부채춤, 장고·쟁과리·징·북이 하나가 되어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사물놀이, 그리고 살풀이춤 무엇하나 빠뜨리고 볼수 없을 만큼 흥겹고 화려한 무대였다.

경기도립 무용단의 안무자인 정재만선생님의 「허튼 살풀이 춤」에서의 흠잡을데 없는 맏고 얼르는 정말 곡예와도 같은 춤사위는 보는이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하였다.

오랜 동안의 목마름에서 기어코 웅달샘을 찾은 이와 같이 예술문화에의 목마름을 이천군민들은 해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써 관객과 무용수들이 하나됨을 느낄수 있었다. 내 옆에 앉은 학생은 자기가 배운 춤사위와 흡사한 춤사위가 나오면 팔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워 하였다.

남성들의 힘과 정열을 춤으로 창작한 「훈령무」에서는 아직까지도 무용은 여자들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편견임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화려한 우리의 궁중무용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창작한 부채춤은 그 화려함이 더할 나위 없었고 아이들의 눈은 화려한 부채춤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풍류를 즐겨왔으며 북이나 장고 등의 악기가 흥을 돋우어 주면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우러져 어깨를 덩실거리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춤을 거리낌 없이 추곤 한다. 이는 우리도 모르게 춤의 정서가 우리들의 몸속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점점더 삭막해지며 이기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볼때 이런 무용 공연은 우리의 단혀진 마음을 말끔히 풀어주며 많은 스트레스속에서 다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끝으로 이런 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음악회, 연극공연 등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많이 공연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도립 무용단의 단원중 한명이 우리 이천출신이란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 4차원적 심상의 세계

## < 金基日展 >

— 5월 19일 ~ 5월 29일 예술의 전당 —



<自然-自我-山脈> 162×112 천위의 도자기흙, 먹, 안료



<自然-自我-얼> 112×61 합판위의 도자기흙, 먹, 안료

서양화가 김기일 씨의 두 번째 개인전이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안의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천에서 태어나 1982년 이천고등학교를 나왔고, 1991년 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그동안 고향을 지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해온 토박이 향토작가인 김기일 씨의 이번 전시회는, 그가 그림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오는 7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고별전의 성격을 겸하여 마련되었다.

수년전부터 <自然-自我·山脈>이란 표제로 굵고 가는 점과 선들이 뒤엉킨 독특한 심상의 세계를 추구해온 김기일 씨는, 이번 전시회 역시 <자연-자아·산맥>과 <자연-자아·얼>의 표제를 내건 크고 작은 연작들을 과거보다도 한층 정돈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면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회화의 한계 - 점과선, 면만으로 구성되는 3차원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의 이미지를 연대기(年代記), 또는 속도를 통해 4원



<自然-自我-山脈> 156×54 천위의 도자기흙, 먹, 안료

적 시공을 표현하려 했다는 작가의 실험의도는, 손구치고 끈두박질치며 힘차거나 혹은 날렵하고 부드러운, 때로는 어지럽기까지한 화면위의 울동으로 나타난다. 작가 스스로의 설명을 빌리면 '연대기의 개념은 벽화의 이미지와도 같은 바닥의 탈색된 듯한 색채와 소지(도자기흙)들의 두터움에 의한 터짐이나 갈라짐 속에 숨을 내쉬는 듯한 예정되어진 운명이며, 속도의 개념은 시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므로 몇번의 반복된 겹치는 검정선의 엇갈림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속도감'이라는 것이다.

김기일 씨의 왕성한 실험의욕은 재료의 선택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청자·백자의 원료인 도자기흙과 일반적인 토분(土粉), 역시 도자기의 원료인 규석·산화철·동분에다 먹과 안료를 혼합하여 종이나 천·닥지·합판 등에 칠하고 바르는데, 도자기 원료의 두터운 질감과 자연스러운 균열 위에 먹물로 날카롭

고 매끄럽거나 혹은 부드러운 선을 그려넣어 운동감을 나타냈다. 역시 작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천이나 종이의 바닥에 어두운톤은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하나의 심상표현이며, 여기에 벽화의 이미지와도 같은 탈색된 듯한 색채들은 스스로 강조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을 몇 번의 반복되는 겹치는 검정색 선들이 엇갈리면서 시간의 개념을 점·선·면이라는 3차원적 공간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준다'고 하였다.

재료가 주는 느낌, 특히 도자기 흙의 투박한 질감이나 빛깔을 작가의 '마음속에 응고된 마음의 벽일 수도 있으며, 기계적 매카니즘이 범람하는 현실에 자연의 투박한 아름다움을 문명의 이기에 빗대어 그 옛날 시골의 흙냄새와도 같은 향수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현실의 각박함과 메마름의 사회현상들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풀이

했는데, 시골의 토담벽이나 갈라진 논바닥 같은 독특한 느낌의 참신성을 부여하고 있다.

김기일씨는 그동안 <이어전> <신세대전> <감성과 표현전>등 주로 젊은 실험작가들이 모인 단체전에 활발히 참여하였고, <이천 풍물 이미지전> <지역미술의 상황전> <한국미술협회 이천지부회원전> <설봉미술제> 같은 지역미술과 지방문화활동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그밖에 <제18회 양데광당전-92년, 국립현대미술관> <제49회 현전-93년, 일본 동경미술관> <대전엑스포 기념 한일미술교류전-93년, 대전시민회관> <서울의 바람전-94년, 인데코 갤러리> 등에도 출품하였으며, 지난해 4월 첫번째 개인전인 <人間金基日展>을 서울의 단성 갤러리와 터 갤러리에서 함께 선보였다.

## 제 14회 북하예술제 『굳·닥터』



지난 2월 5일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이천학우회(회장 - 이동숙)의 열네번째 문예행사인 북하예술제가 오전 11시, 오후 4시 2회에 걸쳐 35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금번 공연은 삶의 여러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여준 닐·사이몬원작 「the good Doctor」를 송인경(광운대)군의 연출과 심우만(충주산업대)회원을 비롯한 7명의 회원들이 한달 이상 심혈을 기울여 연습하여 선보였다.

이동숙회장의 인사말과 축시낭독에 이어 2부 행사로는 송우경(아주대)외 4명으로 이루어진 노래패의 「내일이 찾아오면」, 「그루터기」,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한 줌 될 수 있다면」, 「남에게」등 대학가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들을 들려 주었다.

이날의 주행사인 연극 「굳·닥터」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고 매장마다 내용이 바뀌는데 이는 굳·닥터의 내용이 단막극을 일련의 연작극으로 꾸며놓은 형식인 때문이다.

2장에서는 소심하고 염세적인 성격의 봉계장이 연극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그의 상사인 홍장관을 만나지만 실수로 그에게 심한 재치기를 하게 되면서 사건은 전개된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온 재치기이기에 조용하게 넘어갈 일이지만 봉계장의 호들갑으로, 미련한 충성심으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연극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만 홍장관은 이를 개의치 않음에도 봉계장은 귀찮을 정도로 아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혹시 이일로 인하여 직장을 잃지

않을까 몹시 염려하던 봉계장은 장관과의 면담시간을 이용하여 재차 연극공연장에서 일을 되뇌이며 사과한다. 이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홍장관은 화가 치밀어 결국 봉계장을 파면시킨다. 소심하고 염세적인 봉계장은 이 충격으로 모든 삶에 의욕을 잃어 버리고 죽어 가게 된다. 죽음으로 결론지어지는 장면이 너무 비약적인 사건 해결이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3장에서는 부유한 가정집에서 가정교사 일을 하고 있는 이선생이 보수문제로 여주인과 갈등을 겪게 된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트집잡아 보수를 깎는 여주인, 그의 횡포에 놀리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이선생,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며 자신의 입장과 떳떳함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선생의 태도를 여주인은 타이르며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묘사가 인상적이었고, 각박한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아가는 이선생은 끝말에 '괜찮아요'라며 무엇인가 묵시적인 의미를 내포한 한마디를 남기고 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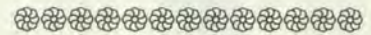
4장의 성당신부와 이를 치료하는 치과 조수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보

여준 병원진료의 문제점, 5장에서 머리를 식힐겸 바람을 쐬러 나간 작가가 바닷가에서 이상한 건달을 만나 그의 비정상적인 생각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 6장의 작가가 19번째 생일을 맞던 날 생겼던 재미있는 사건, 참다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지나는 과정을 사회의 단적인 면에서

소재를 택한것, 제 7장의 작가가 소개한 5개의 단편을 마감하며 막이 내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때로는 기쁨의 환희를 맛보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길들을 외면한채 안락속에서 안주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

인 자세로 부딪쳐 마침내는 소중한 결실을 맛보기도 한다. 이러한 몸짓들의 주인공이 결국 다름아닌 우리 자신 들일 수도 있으며, 배우와 관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준 공연이었다.



## 보크 목관 앙상블 정기연주회

음악활동을 통한 이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고전음악의 보급을 목적으로 꾸준한 활동과 연주회를 갖고 있는 한울림음악동호회를 중심으로, 우리고장 음악 애호가들에게 친숙한 얼굴들이 모여 보크목관 앙상블(대표 이성근) 정기 연주회를 가졌다.

'93년 12월 11일(토) 오후 7시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천문화원과 삼익피아노사가 협찬한 보크 목관 앙상블 정기 연주회에는 최준태(플룻-이천중교사)·이순옥(오보에-숙대졸업)·나영미(클라리넷-관동대졸업)·이영미(호른-서울음대졸업)·이성근(파곳-백사중교사)씨가 출연하여 목관악기 특유의 부드러움과 목가적인 서정을 선율로 들려 주어 이날 연주장에 모인 500여 청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이날 맨처음 연주된 곡은 모짜르트가 1776년에 작곡한 「디베르멘토 № 9」 전4악장을 연주하였는데 일명 '희유곡'이라고도 불리우는 18세기 중엽의 기악 모음곡이다. 형식은 모음곡보다 자유로우며 18세기 후반에 성행하다 실내악에 흡수되었으나 20세기

에 다시 부활되어 스트라빈스키, 바르톡에 이어진 곡형식이었다.

이어서 베에토벤의 목관 5중주곡 작품번호 71번 전악장과 모짜르트곡 「피아노를 위한 관악 5중주 E장조」를 피아노 박미선(관동대 졸업)씨와 함께 열정적인 협연을 가졌다.

특별 출연한 바이올린 권혁주(이천국교 2년)군은 '92 음악저널 콩쿨대상을 수상하고 '93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

원 예비학교에서 수학중이며,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씨에게 사사를 받고 있어 꾸준한 노력과 함께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이인데, 모짜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 4」 1악장을 연주하여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재질, 능숙한 연주로 청중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아쉬웠던 점은 일부 청중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분위기가 산만했던 점인데, 좋은 연주회를 위해 청중들은 연주회 예의를 잘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주간신문 <이천저널> 창간

이천저널 신문사가 1993년 11월 11일(등록번호 다-3302)신문사 설립 등록을 마친후 3개월의 창간 준비를 거쳐 94년 1월 13일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발행인 김명동(명동미술학원장), 편집인 박인식, 편집, 취재, 광고, 전산, 관리등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이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천 관내의 기관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야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이영문 국회의원은 당부하였고, 정종훈 이천군수는 군민 여론을 수렴 전달하는 신문이 되기를 부탁했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주는 따뜻한 신문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천저널>은 주간신문으로 매주 8면을 발행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천신문>과 함께 지역신문의 사명을 다하는 충실한 내용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任亨淳열사 추모비전립



이천출신 의병장 任亨淳열사의 추모비 제막식이 지난 12월 21일 11시 백사면 현방리 공원에서 김동옥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임창일 풍천임씨 종중대표및 문중인사들, 기타 다수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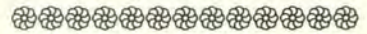
임형순 열사는 1870년 5월 22일 이천군 백사면 송말리에서 태어났다. 송말리는 풍천 임씨의 선조가 약 3백여년 전에 터를 잡아 마을을 이룬 곳이다. 임형순은 당시 30여세의 청년 유생이었으며 학문이 출중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고 용맹과 담력이 남달리 뛰어났다고 한다.

당시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는 충격과 군대 해산으로 국가 멸망 징후가 확대되니, 이 때 일어난 민중 봉기가 丁未義兵運動이었다.

임형순도 스스로의 몸을 던져 구국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심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利川倡義所를 결성하고 대장이 된다. 여주의 의병진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 연대적인 의병 활동으로 廣州·楊根·陽智·龍仁·陰竹·砥平·驪州등지를 무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여 일본군과 수십차례의 접전을 벌여 혁혁한 공을 세운다. 또한 충주로 부터 군량미를 싣고 남한강을 따라 이포앞 강나루로 이송하는 일본군을 사살하고 군량미를 노획하기를 수십차례, 일본군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任亨淳열사의 추모비 제막에는 모두 1천 7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 제 4회 이향주 무용학원 발표회



이향주 무용학원 제 4회 발표회가 12월 18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무용의 대표적인 화관무·고풀이·살풀이·장고춤에 이어 유치부 원생들의 감적한 울동인 빨간코 꽃사슴, 네오·오즈·닉키니키, 인형춤, 도라지(처녀총각)로 귀여움과 갈채를 받았으며, 고전발레인 「꽃의 왈츠」를 12명의 원생들이 출연하여 그동안 연습하여온 기량을 펼쳐 보였다.



또한 찬조 출연으로 호법면 주부대학생 18명으로 꾸며진 부채춤이 선보여 학생이나 일반인 가릴것 없이 한국전통 무용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유치부·

국민학생·중학생·일반등 20명의 출연과 18명의 찬조 출연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공연예술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독립운동가 李壽興의사 추모식 — 이천와이즈맨 클럽에서 —



이천이 낳은 독립투사 이수홍의사 추모식이 순국 64주기를 맞아 지난 2월 26일 이천국교앞 이수홍의사 기념상 앞에서 정중훈이천군수, 허열이천와이즈맨회장을 비롯한 각급기관장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수홍의사는 1905년 9월 11일 이천읍 창전리 224번지에서 태어났으며, 19세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중 군자금모집을 위해 국내에 잠입하여 동소문사건·

안성군사건·이천군사건·수은동사건의 4대 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수천명의 일본 경찰이 동원되는 등 민족의 독립열망을 과시하였다. 1926년 11월 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9년 2월 27일 25세의 아까운 나이로 순국하였다.

## 설봉문학회 94년 정기총회

설봉문학회 94년도 정기총

회가 지난 2월 4일 오후 6시 이천문화원 사무실에서 개최되어 월례 세미나와 합평회 개최, 설봉문학 3집 발간, 문학강좌개설 등 금년도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

설봉문학회는 출향문인들과 이천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문인들이 모여 지난 92년 창립되었으며, 향토문학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94년도 임원으로 회장에 김수년, 부회장 신배섭, 감사 서상혁, 사무국장 김학성 제씨가 선출되었다. 설봉문학회에서는 문학동인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는데, 연락처는 이천문화원 사무실(635-2316번)에 두고 있다.

## 한국전승도에협회 정기총회

한국전승도에협회(회장 - 유광렬) 94년도 정기총회가 2월 25일 이천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 13회 전승도에협회전 개최, 일본전시회 추진, 요지공동답사, 도자사를 중심으로 한 미술사 강좌 등 도예문화발전과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중점으로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 이천대학생미술인회 두번째 會員展



이천출신으로 각 미술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의 모임인 이천대학생미술인회는 93년 2월 20일 창립회원전에 이어 두번째 회원전을 한국미술협회 이천시부와 이천문

화원의 후원으로 군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총 16명의 회원중 9명의 작품 15점이 전시되었는데, 목각, 조소, 한국화, 서양화등 다양함과 젊은이들의 참신한 맛이 겹들어 졌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19일 오후 2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이인수 문화원 사무국장, 이영환 미

협이천시부장, 미협회원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천대학생미술인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원전과 지역내의 각종 미술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미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좀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창작활동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은 물론 관계인사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겠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윤정숙(강릉대 4)·엄미숙(추계예대 4)·이주현(강릉대 2)·박연주(성신여대 3)·노승균(청주대 1)·서기숙(성신여대 4)·이남무(강릉대 2)·박호용(강릉대 3)·최상현(한남대 3)

## '94에일음악학원 정기연주회

에일음악학원에서는 94년 정기연주회를 1월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시내 국립관레스토랑에서 학원생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초·중·고·일반으로 구성되어 성악과 피아노 부분의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었다. 최준기의 연주곡 「삐꾹왈츠」를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를 들려 주었고 특히 일반부 이창희씨는

독창곡 「오라」를 멋있게 불러 주어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남정인·하효진의 「비인합창곡」 오수정의 「은파」, 김나래 「아라베스크」 허효정 「모짜르트의 세레나데」 조현정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이민경 「장난감 교향곡」, 김미정 「헝가리 춤곡 5번」등 다양한 곡목으로 연주되었고 함께 자라난 학부모, 친지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받았다.

##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

지난 2월 12일(토) 군민회관 대강당에서는 극단 <무아>의 어린이 뮤지컬 「인어공주」가 세차례에 걸친 공연을 가졌다.

안데르센 원작인 인어공주를 홍보선 연출 안정호 기획으로 재구성한 이번 공연의 인어공주역에는 나혜옥씨가 맡았으며, 여덟명의 배우가 출연하여 꿈과 희망이 담긴 인어공주 아리엘과 에릭왕자의 눈물겨운 사랑이야기로 어린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 이천군 음악학원 제 1회 합동 연주회

이천군 학원연합회 음악분과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이천교육청과 이천군 학원연합회 후원으로, 이천군 음악학원 제 1회 합동 연주회를 관내 14개 음악, 피아노학원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광수 군의회의원 김명동 이천저널 발행인, 황규선 민주당 위원장 등 내빈과 500여명의 학생, 학부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헨델피아노학원의 김선화(이천국 3년)양의 피아노소나타 연주를 시작으로 22명의 학생들의 독주곡을 연주하면서 간혹 실수할때마다 학부모 지도교사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 예일음악학원 오수정의 25명 원생들의 합창 「아기염소」, 「푸른 산 푸른들」, 중앙음악학원 홍

미나의 6명의 플룻 앙상블 「만물아 감사찬송 부르자」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헨델피아노학원의 황정옥(이천국 4년)의 12명이 7대의 디지털 피아노로 멕시코민요 「라쿠카라차」, 우리나라민요 「노들강변」 「밀양아리랑」등 연주하였는데 간혹 연주자들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기도 했다. 서울피아노학원 강병혜(이천국 3년)의 8명이 9대의 키보드로 세레멘티의 소나타의 3곡을 연주하면서 음악회를 마쳤다.

많은 출연자와 90분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 학부모들이 연주도중 출입하여 연주장내에서 뛰어다니는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옥의티로 지적되었다.

## 백합음악학원 피아노 발표회

백합음악학원에서는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 30분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제 9회 정기연주회를 (주)한독 피아노와 삼익피아노 이천대리점 협찬으로 원생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발표회로 가졌다.

예능유치부 원생들의 귀엽고 감직한 모습으로 도레미노래, 작은 별, 초중고 피아노반의 그동안 배우고 익혀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학부모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특별출연 순서로 학원생 어머니들의 합창 「만남」 「피노키오」를 들려주었고, 학원생 아버지들의 합창 「사랑이여」 「코끼리 아저씨」의 합창으로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연스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 제 8회 에이맨 정기연주회

이천 YMCA 에이맨 노래선교단이 지난 2월 19일 여덟번째 정기연주회를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천지역 교회와 기독교학생 및 관람객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혼성합창 「천사들의 외침을 들어보라」의 7곡과 중창 「크신 주의사랑」의 4곡을 들려 주었다. 특히 합창곡 중 성프란체스카의 기도문인 평화의 기도(박영근편곡)는 널리 알려진 명곡으로 듣는

청중과 연주자가 숙연해지는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다.

한편 찬조 출연한 군산지구 대학선교회(C. C. C)와 갈릴레아 중창단의 가스펠송, 성가곡등을 불러 주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지난 85년 10월 <연합중창단>으로 창단된 에이맨은 서울, 경기, 이천, 여주지역 순회 선교활동과 재활원, 고아원, 군부대 위문공연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천학우회 「回歸」 제 4집발간

이천학우회에서는 94년 2월 19일 회지 제4집 <회귀>를 동아정판 발행으로 출간하였다. 1980년 2월 17일 학우회를 발족하여 열네번의 북하예술제, 일곱번의 향토여름학교 교육봉사등 지역사회 문화에 적극 이바지한바 85년 제1집을 발간으로 6년만에 제4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회원들의 체험글과 논단, 그리고 문예란, 회원최근 동향, 주소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 올바른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

— 황필호교수 초청 강연회 —

이천군청 가정복지과에서  
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육개발연구소 협찬으  
로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황필호(전 동국대교  
수)씨를 초청, 「올바른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참석한 정종훈  
이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천군민이 생활 개혁을 통  
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  
하고 이웃과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복지이천을 건설하  
자고 당부하면서, 자녀교육및  
생활개혁 역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일반국민들이 일  
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  
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  
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  
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  
강한 사회를 건설하자며 인  
사에 가름하였다.

강연에 나선 황필호 교수  
는 서울대 철학과와 동대학  
원을 마치고 동국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교육개

발연구소의 강사로 있다. 올  
바른 자녀교육의 현실은 예  
전과 달리 가정에서의 아버  
지 부재현상으로 교육의 어  
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어머  
니는 완전한 교육을 위해 아  
버지에게서 배워야할 동적인  
정서—질서의식, 권위, 삶의  
의지—와 어머니의 정적인  
정서—사랑, 동정, 자비, 교  
양—을 터득하여 자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노력하여 심리적인 접근감의  
다리를 구축해주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의 영향을 받고 학교교육은  
사회교육의 상호 영향을 받  
는 열악한 현실속에서 부모  
가 모르면 아이들에게 가르  
칠 수 없고, 현대인은 읽는것  
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  
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이를 극복하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해 책을  
가까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자아 성장을 통  
해 자녀와 가정에게 귀중한  
시간을 가치있게 활용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역설  
하였다.

## 박완일교수 초청강연도

이천향토협의회(회장 - 이  
교춘)가 주최한 박완일 교수  
초청강연회가 회원및 일반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  
월 23일 군민회관 대강당에  
서 열렸다.

박완일 교수(동국대·한국  
사회교육연구회회장)는 이날  
강연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  
는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누구나가 피할수 없으며 욕  
심이 있으므로 사는 것이 어  
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  
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사는  
이치는 어린이를 어린이로보  
는 법, 남자를 남자로 보는  
법, 여자를 여자로 보는 법을  
알아 상호간에 인격적인 인

간관계가 성립돼야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  
다. 또한 인간사는 반드시 윈  
인에 따라 결과가 있으며, 태  
양이 밝을 수록 그림자가 짙  
게 드러워지는 것이라 하였  
다. 이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으며,  
권력과 부귀는 유한하여 물  
거품과 같으므로 각자가 나  
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로 끝을 맺  
었다.

이천향토협의회는 50동문  
회부터 58동문회까지 1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0년 창립되었다.

## 제 1회 이천군 어린이 큰잔치

— 적십자 이천청년봉사회 주최 —

푸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제 1회 이천군 어린이 큰잔치가 5월 4일 오후 1시 이천 공설 운동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이천청년봉사회가 주최하고 현대전자산업(주), 대한적십자사 이천협의회 협찬으로 이천읍내 3개 국민학교 학생들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우학 교육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이영문 국회의원, 정중훈 이천군수등이 참석하여 격려와 축사를 해주었다.

대한적십자사 이천협의회에서는 매년 노인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가을에 열고 있으며, 지난 3월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열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애쓰고 있는바 이번에는 어린이를 위한 큰잔치를 마련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밝고 희망찬 미래상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윤종성 대회장은 대회를 통해 밝혔다.

식전 공개행사로 육군 3군사령부 군악대의 축하연주, 양정여중 학생들의 삼고놀이, 육군항공대 헬기 축하비행, 모형헬기 축하비행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학교대항 경기에서 학년구

분없이 남, 여 30명씩 1팀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였고, 풍선 크게 불기, 가위바위보 게임, 개그맨 이용식씨가 진행하는 토끼와 거북이놀이를 하여 1위에는 이천국교가, 2위에는 이천남국교가, 3위에는 설봉국교가 차지하였으며, 장기 자랑 시간에는 숨은 실력들을 마음껏 선보였다.

또한 초청된 가수 「삼태

기」와 한상업은 병아리 접속곡, 동요 메들리, 등 30여분간 어린이와 함께 손뼉치며 즐겁게 노래 불렀다.

시상을 마치고 「어린이날 노래」를 다함께 부를때 축포를 쏘며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었고 5월의 신록처럼 튼튼한 어린이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해를 기약하였다.

## 제 1회 무지개 무용학원 발표회



무지개 무용학원(원장 배근아)에서는 5월 10일 오후 6시 30분 이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관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무지개 무용학원 발표회를 열었다.

무지개 무용학원 원장인 배근아씨의 한국무용 「화관무」를 시작으로 낭만주의시대의 발레로 라인랜드 시골의 전통적 실생활을 보여준 발레 지젤 1막중 「마을 처녀」를 안신영(성균광대졸)씨가 공연했으며, 이어서 신수

미씨의 현대 무용 「여름」, 강영주(경희대졸)씨는 한국 무용 부채춤을, 공숙희씨의 발레 「피카타」, 한국 무용 김민정씨의 「깨고 싶지 않은 꿈」을 선보였다.

변한나의 13명의 학원생들이 보여준 「경복궁 타령」과 「꼭두각시」는 5살된 어린이와 국교 5년생의 언니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귀엽고 감쪽한 모습을 보여 주어 격려의 박수를 한껏 받았다.

# 국민학생 초청 문화재 답사

## — 현대전자에서 문화재보호사업 추진도 —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 김주용)가 지역사회 봉사 및 지방문화활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관내 문화재 보호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관리본부 세일터창조운동 추진팀이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사업은 문화재 보존정화와 문화재 알리기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문화재 보존정화를 위해 관내에 있는 중요 문화재들에 대하여 문화재별로 담당부서를 설정, 매월 1회씩 주변청소와 잡초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 알리기사업으로는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한 향토문화재 현장답사가 있다. 지난 4월 22일에 실시한 1차 현장답사에는 이천국민학교 3~6학년 각 반 반장 및 부반장 어린이 87명을 초청하였고, 5월 24일 2차 답사에는 부발국민학교 6학년 120명이 참가하였다. 답사 코스는 신둔면 해강도자미술관 견학을 시작으로 도립리 육괴정, 송말리 반룡송, 현방리 공원과 지식묘군, 신대리 백송을 차례로 견학하였고, 문화원과 군 문화공보실 관계자들이 사적안내를 맡았다.

이 문화재 답사는 같은 고장에 살면서도 대부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어린이들에게 고장의 문화전통과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현대전자에서는 이동차량 외에도 간식과 음료수,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참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현대전자에는 이 밖에도 문화재 안내도를 제작하여 중요도로변에 세울 예정이며, 6월중으로 소개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 제 16회 학생예능발표대회

이천군 교육청에서는 5월 27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제 8회 설봉문화제 학생음악 경연 예선을 겸한 제 16회 이천학생 예능 발표대회를 관내의 초, 중, 고에서 47개 팀 1,0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합창 15개팀, 합주 4개팀, 무용 9개팀, 독창 8개팀, 독주 12개팀등이 참가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특히 독주부문에서 홍영식(대월중 3년)군은 국악기인 설장고를 연주하여 그동안 피아노, 바이올린등 양악부문에만 치중됐던 독주부문에 신선함을 주었다. 학생들의 연주 실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향상되어 이천 음악 활동의 밝은 앞날을 보여주어 듣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으며, 격려의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부문별 우수팀들은 가을에 있을 제 8회 설봉문화제 학생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합창 □

<국민학교부>

최우수-이천국교

우수-가산국교, 장호원국교

장려-부발국교, 이천남국교

<중학교부>

최우수-장호원여자중학교

우수-경남중, 이천양정여중

장려-이천중, 설봉중

□ 합주 □

기악부문최우수-모가국민학교

국악부문최우수-송곡국민학교

□ 무용 □

독무최우수-송유나(이천양정여중 1년)

군무최우수-이천국교(화관 무)

우 수-이천국교(현대 무용)  
발레최우수-장호원국교(봄 의소리)

□ 독창 □

최우수-김지현(장호원여중 3년)

우 수-김은실(설봉중 3년)  
이윤재(배영중 2년)

장 려-이주형(이천중 3년)

□ 독주 □

고등부최우수-

이보람(이천양정여고 3년)

중등부최우수-

유성미(장호원여중 2년)

우 수-

문윤희(이천양정여중 3년)

김부경(이천양정여중 1년)

## 제 31회 대통령배 전국자유수호웅변이천군 예선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이천군지부(지부장 : 신현익)에서는 5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이천 교육청 후원으로 제 31회 대통령배 전국 자유수호 웅변 이천군 예선대회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이천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본 대회에는 초등부, 중등부의 13명 연사가 나와 열변을 토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및 폐쇄된 북한사회의 실상을 웅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시민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웅변

대회는 군예선 대회에서 최 우수상을 수상한 권은영(설봉중 2년)양이 도예선 대회 연사로 추천되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교육장상)  
김진석(장호원국 4년)

권은영(설봉중 2년)

○우수상(경찰서장상)

김범석(이천남 2년)

이순진(양정중 2년)

○장려상(자유총연맹지부장 상)

나향숙(부발국 6년)

이현주(장호원여중 3년)

姜大喆 구도소설

## 『그대 몸짓 속의 그대』



생명을 주제로 독특한 조형 세계를 구축해온 중견 조각가 강대철씨의 체험적 구도소설 <그대 몸짓 속의 그대>가 출판사 석필에서 지난 5월 출판되었다.

이 소설은 체선(體禪)이라는 일종의 기공 명상 수련을 통하여 지혜의 발을 일구며 「나」를 찾아가는 다섯 예술가들과 그들을 영적 세계로 이끄는 한 「영혼의 안내자」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우주라는 큰 생명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수도자들과 도인들의 세계를, 작가의 실제 수련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생동감 넘치게 그려냄으로써, 추상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道와 道人の 실체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 道에 관한

텍스트(Text)로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의욕적인 젊은 화가 민욱은 한때 그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행위 예술가 나문희와 사랑에 빠진다. 육체의 교감과 정신의 교감이 균형을 이룬듯 보이는 사랑. 그러나 어느 순간 나문희는 민욱을 버리고 기약없는 방랑길에 오른다. 민욱이 이별의 충격에서 겨우 빠져나올 무렵 나문희는 뜻밖에도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다. 친구벽이라는 중년남자와 함께. 민욱은 친구벽이라는 수수께끼같은 인물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적대감은 경외감으로 바뀐다. 어느새 민욱과 나문희는 친구벽의 지도를 받으며 일종의

기공 명상법을 수련하는 도반의 자리에 서게 된다. 거기에는 같이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세사람이 더있다. 이들 다섯 젊은이들은 수련을 통해 우주적인 큰 생명의 에너지를 자신들의 몸안으로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른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지향점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도 체험하게 된다.

이 소설의 작가인 현역 조각가 강대철의 분신일 수도 있는 화가 민욱을 비롯한 다섯 젊은이들이 수련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겪는 놀라운 체험을 이 소설은 추적하고 있다. 여기서 <그대 몸짓>으로서의 존재는 道를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속의 그대>는 道를 깨달은 이후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작가 강대철씨는 1947년 경기도 이천출생으로 1976년 이후 생명, 생명현상을 주제로 열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78년 국전 문공부장관상과 제1회 중앙미술 대상을 수상했으며, 82년 장편소설 「끝」을 발표하기도 했다. 출판사 석필발행으로 값은 5,500원이다.



# 경규희 時調集 『新思美人曲』



경규희 시인의 세번째 시조집 「신사미인곡」이 도서출판 백상에서 엮어져 나왔다.

경규희씨는 여주에서 출생하여 이천양정여고를 졸업했고, 84년 「현대시조」誌 추천 완료로 문단에 데뷔하여 한국 문인협회회원, 국제PEN클럽, 한국 시조시인협회, 현대시인협회, 여성문학인회, 현대시조동인, 경인 시조문학회 회원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보여 주고 있고 제 1회 광명 문학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규희 시인은 책머리에 '씻은 눈빛으로 영혼의 창 열고 밖을 내다보면 비갠후 산

뜻한 풍경처럼 햇빛 더욱 부시고 유리알처럼 맑아 보이는 세상, 하지만 잘 닦은 유리창도 더러는 마른 수건 자국이 남듯 한시인의 영혼의 창도 얼마를 닦아야 투명해질까, 천하의 진시황도 결국은 못찾은 불로초, 조그마한 나의 텃밭, 원고지 이랑을 일구며 한포기 영혼의 불로초를 찾아 오늘도 호미질을 한다. 오래 오래 기억되며 누구나 읽혀질 수 있는 시 한편을 만나기 위해 지상의 불꽃놀이, 사루비아 꽃길을 따라 걷는다'고 白序하였다.

이번 시집에는 「산안개」 「말 못하는 앵무새」 「신사미

인곡」 연작시조 21편의 섬세한 감성의 눈으로 일상적인 삶의 세계를 노래한 90여수의 시조를 수록하고 있다.

문학평론가 박진환씨는 경규희 시인의 시세계를 의인화·감정이입·동일성 추구의 삼위일체로 보고 있다. '경규희 시인의 시에 즐겨 동원되고 있는 의인화가 단순한 수사기법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자각에서 시를 출발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되고 이점에서 그의 시는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규희 시인의 시는 자아동일성, 민족동일성을 거쳐 궁극적으로 자연동일성을 실현하려는 일관된 시관으로 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향이 단순한 시적 쾌적이라는 데 있지 않고 동일성을 실현함으로써 현대적 위기나 불안을 극복하고자 한 구원의 의식이나 구원의 시사라는 점에 있다'고 했다.

저로는 시집 「낮음 음자리」 「햇살도 저 군무 앞에서는」 「신사미인곡」이 있으며 값은 3,000원이다.

# 망현산(望峴山)망월놀이 재현

일명 상원절(上元節)이라고도 불렀던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우리 전통 세시풍습인 망월놀이가 음력 정월 17일인 지난 2월 26일 저녁 망현산(속칭 아리산) 기슭에서 펼쳐졌다.

이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이천문화예술진흥회가 주관, 이천군이 후원한 이날 망월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동산에 올라가서 보름달이 솟을때 햇불을 밝혀 들고 한해의 소원을 빌면서 달맛이를 하던,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루 실시했던 대표적인 세시풍습이었다. 대보름달은 남보다 먼저 뜨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길하다고 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산을 오르기도 했는데, 사라져 가는 전통 세시풍습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연례행사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이 행사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의 잔재로 남아 지금도 잘못 불리우고 있는 신사산(神社山)이란 오명을 원래의 이름인 망현산(望峴山)으로 바로 잡기위한 취지도 있다. 이날 행사는 망현산 기슭 송광사 동쪽 언덕에서 이루어 졌는데, 정종훈 군수와 이기환 문화예술진흥회장 및 문화원, 문화예술진흥회

회원, 이천군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하여 각자의 나이 만큼 띠를 묶은 망월대에 불을 붙여 보름달을 향해 일년간의 무사와 안녕을 빌었다.

한편 망월놀이에 앞서 이천양정여고 풍물반이 한 해

의 풍년과 태평을 비는 고사반과 풍물판을 벌려 한층 분위기를 돋우었으며, 송광사 측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망월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훈훈한 인정을 베풀기도 했다.

## '94년도 利川文化院 定期總會개최

이천문화원 94년도 정기총회가 1월 20일 오후 5시 30분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3년도 사업실적보고와 결산승인에 이어, 총 예산 1억 3천 3백만원 규모의 9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천문화원의 금년도 사업중점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한 문화원 조직강화와 자생력 강화, 설봉문화제의 관광축제 정착, 향토문화 연구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질적향상 도모, 문화사랑방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에 두었다.

중요사업계획으로는 먼저 향토문화보존 발굴사업으로 신둔·백사면 일대의 선사유

적조사및 민담설화조사,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거북놀이 보존 및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도예촌현황조사, 향토문화교육사업으로 제 8회 향토여름학교 개설, 풍물놀이강습회 개최,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설봉문화>지 제 11집, 12집 발간 등이 있고, 향토문화진흥사업으로 제 8회 설봉문화제 및 도자기 축제 개최, 향토문예강좌 개설, 초청음악회 개최, 문화행사 및 예능씨클 지원 등을 마련하였다.

이어서 결원된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최영호(한양실업 대표)씨와 최정애(하수꽃꽃이회장)씨가 신임이사로 선임되었다.

## 신둔면지역 支石墓 지표조사(1차)완료

문화원이 관내 선사유적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자료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신둔면지역 지석묘 1차지표조사가 지난 3월 종결되었다.

원적산을 뒤로한 신둔면지역은 지식리 지식묘, 장동리 고분을 비롯한 선사시대의 유적지로 주목되는 곳이었다. 문화원이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실(실장-최건, 조사책임자-이종민 학예연구사)에 의뢰하여 2년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지식리를 중심으로 신둔면 도암리와 장동리·도봉리·남정리·수하리 지역에만 모두 620기에 달하는 대규모 지식묘와 지식묘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지식리 지역은 580기에 달하는 지식묘 군집지역임이 들어났다.

우리나라의 지식묘는 한반도 전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나타나지만 대규모의 군집지역은 주로 전라도 해안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없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는 남방식 지식묘의 북방한계선인 이천지방에 이와같은 대규모 지식묘군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

나 이들 지식묘군에 대한 보다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려면 본격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둔면 지식묘조사는 당초

## 利川陶藝村 현황조사 실시

이천문화원에서는 전통도예문화의 보급 발전과 도자기축제 등 도예관련 행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이천도예촌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신둔면 일대와 이천읍 사읍리를 중심으로한 이천도예촌은 지난 50년대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여,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일의 도예마을을 이룬 전통도자기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도자기는 쌀과 함께 우리고장의 양대 특산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눈에 들어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에 관한 기본통계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아, 도자기 산업 육성이나 관광개발, 도예문화 발

지난해 초에 종결지를 예정이었던 이과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됨으로서 조사기간이 배로 연장되었고, 그것도 일부지역에 대한 1차조사로 일단 종결지를 수 밖에 없었다. 문화원에서는 금년말 신둔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2차조사에 이어, 대상지역을 백사면과 마장면으로 연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이 모두 주먹구구식이 될 수 밖에 없었고, 각종 언론기관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주어 왔다.

이번 조사는 요장 현황파악과 도예인들의 의식이나 관계기관의 지원현황, 경기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관내에는 모두 141개의 요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도예업계의 불황이 매우 심각하고, 가내 수공업형태의 요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영세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원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오는 7월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 제 2차 전통풍물놀이 강습회



직업의 청장년층 30여 명이 참가하여 우리 가락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우선 첫시간에 풍물의 구성과 발달, 풍물의 쓰임새등에 대한 설명과 악기타법을 배우고, 다스름·인사

이천문화원에서는 국악의 해를 맞아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민속음악 보급을 위한 2차 풍물놀이 강습회를 지난 3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군민회관 지하연습실에서 3개월 과정으로 열고 있다.

지난 93년 11월 15일부터 실시했던 1차 강습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강습회에는, 직장인, 교사, 주부 등 다양한

곳·취모리·곳거리·풍류·양산도·삼채·영산가락·오방진등 다양한 풍물가락의 기초과정을 익히게 된다.

풍물지도는 양정여종고 풍물놀이 지도를 맡았던 이성순(원주민속연구회)씨가 맡아 지도하고 있다. 한편 이천문화원에서는 오는 9월 초에 3차강습회를 열고 기초반과 중급반 수강회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 「鄉脈」 제 4집 발간

이천향토사연구회(회장-김동옥)의 회지인 <향맥> 제 4집이 지난 12월 5일자로 발간되었다.

제 4집 내용은 향토유적소개 이천의 문화재(1)(이인수), 음죽현감 김의의 진폐소(김동옥), 犬碑石에 대하여(한승남), 의병장 임형순 추모비 건립에 즈음하여(신배섭)등 향토사 관계 자료논문과 임형순 추모비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의 명단을 함께 수록하였다.

한편 이천향토사 연구회에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지명유래, 설화와 민담·민속등 향토사 향토문화 각 분야에 관심있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이천문화원 사무실(전화 635-2316)로 연락하면 된다.

### ◆ 압 령 ◆

〈雪峰文化〉는 지역문화의 전통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주민과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배포됩니다.

보다 알찬 내용의 책이 만들어 지도록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자료모집

- 향토사 연구자료(서적류, 유품, 사진등)
- 성씨 자료(이천에서 세거했수 100년 이상된 성씨의 내력 및 관련자료)
- 오래된 사진(향토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
- 기타 책자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자료

#### ● 원고모집

- 제언(설봉문화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한 글. 이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
- 향토문화 연구사례
- 문화 유적 탐방기
- 향토문예(시, 시조, 수필, 기행문, 풍트 등)
- 기타

#### ● 보낼 곳

467-800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장전리(군민회관 3층) 이천문화원  
〈雪峰文化〉 편집실  
전화 (0336) 635-2316

# 이천문화원 임원및 회원명단

## 임원명단

순위	직위	성명	직업	주소	전화	
					직장	주택
1	원장	이은구	청파요대표	이천읍 사음리 490	635-5792	635-5791
2	부원장	구자걸	광학당안경	이천읍 창전리 147	635-2789	
3	"	조명호	이천상공회의소사무국장	이천읍 증일리 2번지	33-3961~4	
4	이사	유광렬	해강청차대표	신둔면 수광리 323-4	32-7017	32-7029
5	"	박의협	박의협법무사사무소	이천읍 관고리 7	635-2605	635-3057
6	"	이백우	우신건축	이천읍 중리 193	635-3396	635-2880
7	"	이정연	축구협회회장	이천읍 창전리 철기B/D	635-6366	33-1811
8	"	노일부	서울한의원원장	이천읍 창전리 148-8	635-2275	635-3336
9	"	이인호	퓨리나사료대표	이천읍 창전리 131-12	635-2080	
10	"	최병주	동부철강대표	이천읍 중리 36-1	635-5555	635-4106
11	"	곽웅근		이천읍 창전리 동남빌딩		
12	"	김구웅	김구웅외과의원장	이천읍 창전리 88-2	635-2407	
13	"	조경호	조경호한의원장	이천읍 창전리 160-10	635-3434	
14	"	최영호	한양산업대표	이천읍 창전리 125-1	635-3626	
15	"	최정애	하수꽃꽃이학원원장	이천읍 창전리 150-4	33-2191	
16	감사	이이선	영창피아노대리점	이천읍 창전리 150-4	635-0033	635-2764
17	"	조성원	대우건축사대표	이천읍 중리 186-6	34-1000	635-3415

# 회 원 명 단

순위	성명	직업	주소	전화	
				직장	주택
1	윤태정	모범약국대표	중리 종합터미널 내	635-7677	
2	이찬의	미광사대표	이천읍 중리 464-25	635-3018	
3	김정의	양정여중교감	이천읍 관고리 90	33-7804	635-3094
4	김용문	이천중교사	안흥리 342 이천중학교	34-7577	635-3225
5	유병규	(주)유영	부발읍 마암리 44-1	32-6004	
6	이재혁	부발읍장	부발읍 부발읍사무소	32-5613	635-3344
7	김명호	인테리어아트원	이천읍 중리 193-12		635-6829
8	위명택	사회과위생계장	이천읍 중리 187-2	33-8003	33-9269
9	신배섭	양정여중교사	이천읍 관고리 90	33-7805	33-7847
10	김재룡	대원조경대표	이천읍 중리 466-4	33-3265	
11	최경식	국악인	이천읍 창전리 213		635-6885
12	권영택	양정여중교사	이천읍 관고리 90	33-7804	635-4365
13	박인식	이천저널신문사	이천읍 중리 204	637-1313	
14	최영규	설봉중교사	이천읍 증포리 설봉중학교	33-5212	33-2381
15	이영환	미협이천군지부장	이천읍 창전리 162-3	32-7589	
16	최홍기	이천군기획실기획계장	이천읍 중리 187-2	33-8003	635-1158
17	박치완	공무원	공보실 공보계장	"	
18	고영진	순금당	이천읍 관고리 14-5		635-6616
19	이재영	경기도의원	장호원읍 이황리 435-3	641-0398	642-0398
20	장영무	해화요대표	이천읍 사음리 527	33-1148	
21	이정면	청산요대표	이천읍 사음리 508-1	33-6869	
22	지재섭	고청요대표	이천읍 사음리 536	635-5641	
23	박향수	미란다호텔도자기점	이천읍 관고리 산호APT 2동 512호	33-9955	33-2727
24	이춘규	해림요대표	이천읍 사음리 407-1	33-5371	
25	박상진	개천요대표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217	(0347)62-1885	

순위	성명	직업	주소	전화	
				직장	주택
26	남성현	남일환경건설	이천읍 중리 186-20	34-0001	
27	조태권	광주요대표	신둔면 수광리 443-1	32-7007	
28	채기중	금강철강대표	이천읍 창전6리 467-21	33-5675	
29	유미원	피아노교습	이천읍 창전5리 417-3 현대주택 101호	636-3453	
30	김경이	현대음악학원	이천읍 창전리 150-14	635-1437	
31	한상욱	공무원	호법면 유산리 산 3번지	635-0100	
32	엄기환	해주도예대표	신둔면 수광리 267-3	32-7120	
33	김수년	명지대용인캠퍼스	서울 동작구 흑석 1동 79-121 21/11		
34	이육량	일월도예연구소	이천읍 사음리 477-1	33-5741	
35	김건식	강서구청도시정비국장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152		
36	이상만	상업	창전 9리 한신APT 405호	635-2075	32-8894
37	김선우	이천저널신문사	이천읍 중 2리 204	637-1313	
38	김정목	한국도요공사대표	이천군 신둔면 소정리 49	638-7037	
39	김진현	심천도예대표	신둔면 수광리 383-3	32-7086	
40	오정환	주광요대표	신둔면 수광리 265-2	32-7335	
41	이대영	조선도예대표	신둔면 수광1리 12	32-7034	
42	황병구	이천군청도시과	이천읍 중리 187-2번지	30-0497	
43	황규선	민주당이천군지구위원장	이천읍 중 4리 219-1	635-6349	33-5599
44	이희규	이천군발전연구소장	이천읍 창전리 2차현대AP 201동 908호		32-2088
45	김학성	설봉중서무과장	이천읍 증포리 설봉중	33-5213	
46	김태란	파랑새속셈학원	이천읍 창전 2리 166-5	32-8808	
47	구자남	홍익속셈학원	부발읍 신하리 536-1	636-3485	
48	김미성	경희속셈학원장	이천읍 창전 3리 440 대원4차 803호	636-6468	
49	송옥란	새우리옹변학원	이천읍 창전 3리 447-7	33-8292	

## 회 원 모 집

삼국통일의 시발지이며 쌀과 도자기의 고장이기도 한 우리 이천은, 그러나 요즘 급격한 도시화로 가는 길목에서 크고 작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살기좋고 정감이 넘치는 문화의 고장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뜻을 함께 하시는 문화원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원 회 원** ○월회비 10,000원

**설봉문화후원회원** ○년회비 20,000원 이상

\* 연 락 처 : 이천문화원

(전화 : (0336)635-2136)

## □ 편 집 위 원 □

강대철 · 김영길 · 김학성 · 박인식  
박호창 · 신배섭 · 이인수 · 장광문  
최영규 · 최종상

## 언제든지 이용해 주세요

까치소리 전화(02)735-1990/문화전반  
가 나 다 전화(02)765-9909/어문정책  
아 리 랑 전화(02)753-1991/영화진흥  
저 작 권 전화(02)392-5578/저작권 전반  
글 방 전화(02)537-9446/문헌정보전반

## □ 編輯後記 □

○이번호에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이천도 예촌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특집을 꾸며 보았다. 도자기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기본통계는 고사하고 도대체 몇 개의 요장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도예문화의 발전과 도자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번 특집내용이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눈 앞에 두고 문화원의 위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는 혼한 관변단체의 하나로 치부하려는 견해도 있는 모양인데, 아무도 관심조차 기울여 주지 않았던 힘든 여건 속에서 출발하여 30년이 넘도록 지방문화를 지켜온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섭섭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문화선진국의 시대는 아직도 요원하기만한 것인가 -.<洙>

## 雪峰文化 <'94년 봄 제 11 호>

1994년 6월 10일 발행

<非 賣 品>

발 행 인 李 殷 九

편 집 인 李 仁 洙

발 행 처 467-8000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군민회관 3층)

이천문화원

전화 (0336)635-2316

인쇄 홍익문화인쇄

☎ (02)274-8110/277-6584

FAX : (02)271-0951






# 우리는 행복합니다

“전국상호신용금고 발전경진대회”  
우수상 및 재무부장관상 수상

서로 믿음을 나누고 키우고...  
그것이 바로 고객 여러분의 행복,  
이천상호신용금고의 행복입니다.

작은 경제의 행복을 위하여...  
이천상호신용금고가 함께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으로  
함께 해온 이천상호신용금고...  
이천상호신용금고는 고객여러분 가까이서  
늘 작은 경제를 키워가는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고객 한분, 한분의 행복이  
곧 저희 이천상호신용금고의 행복—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믿음을 나뉘갈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번영하는  
 (주)이천상호신용금고



이제, CD로  
보고 듣게 됩니다!



오디오, 비디오 -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CD, LD - 이제는 따로 사용할 수 없다.  
CD의 음질과 LD의 화질을  
하나로 통합한 비디오 CD -  
오디오와 비디오를 완벽히 결합한  
AV 시스템 -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현대 CD비전의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신세대, 신감각파를 위해

'서태지와 아이들'  
서 태지

현대 CD비전

현대전자  
뉴 미디어 사업부

● 본사 : 경기도 의정부 부일동 41번 1 대우빌딩 411호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랑구 적선동 66 현대전자유지 대표전화 : 398-4000  
● 뉴미디어 사업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9 보원고등학교 10층 전화 : 527-2983-5  
● 지방지점 : ● 부산지점 : 807-1232 ● 대구지점 : 757-0364  
● 인천지점 : 026-8770 ● 광주지점 : 805-0364

